

성무

제 41호

2012. 7.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10년의 노하우가 드리는 특별한 감동!

名品 시니어타운_ 삼성노블카운티



도심 속 고품격 주거타운 - 대한민국 시니어타운 1번지

Community for a Great Life

강남 30분, 분당 20분 - 도시근교형 고품격 주거공간 삼성노블카운티.
주거와 의료, 스포츠, 문화, 요양을 한곳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시설과 시스템 - 삼성노블카운티의 역동적 세계로 모십니다.

DAILY LIFE SERVICES_ 만족스러운 편의 서비스가 가득!

신선한 식재료의 600여 가지 메뉴,
주2회 거실 청소 서비스

MEDICAL CARE_ 건강한 행복 에너지가 가득!

24시간 간호사 응급대기, 정기 건강검진,
내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클리닉

LEISURE & CULTURAL ACTIVITIES_ 즐거운 문화 에너지가 가득!

다양한 동호회 활동,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전용강좌 프로그램, 등산로 및 산책로

일일체험 초청안내_ 사진 예약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용 시설 관람, 회원 전용식당 식사 체험
위치 용인시 기흥구 (수원 경희대캠퍼스 인근)
* 삼성노블카운티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www.samsungnc.com
031.208.8001 문의

업계 최초, ISO 9001 국제 인증 획득



삼성생명공익재단

검색창에

삼성노블카운티

를 쳐주세요





우리는 그 한 길만을 걸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그 한 길만을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한 길을 왜 걷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한 길이 바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노력,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일류항공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T-50

T-50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초 국산 초음속 고동축연기로 대한민국 공군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을 통해 세계 6번째 초음속항공기 수출 국가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KUH-SURION

KUH-수리온은 육군의 병력수송을 목적으로하는 최초 국산 한국형기동헬기로 개발되어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가로 진입 시켰습니다. 수리온과 이를 기반으로하는 후속헬기(상륙기동, 의무후송, 해상작전, 소방 등)사업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든든한 토양입니다.



KT-1

KT-1은 공군 조종사의 기본 비행훈련을 위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 국산 기본훈련기로 대한민국 공군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터키의 수출로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출시대를 본격 개막하였습니다.



UAV

정찰용 무인기 수출에는 2011년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육군에 전회차 중추요인 그 성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KAI는 전투형 무인기, 연료전지 무인기, 스마트 무인기 시스템, 반디OPV 등 자체선행연구를 통해 미래 무인기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C-100 NARAON

4인승 단발 피스톤엔진 항공기 KC-100은 비즈니스 및 개인 레저용 항공기입니다. KC-100은 국제 수준의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의지이며 향후 민간 항공기 시장의 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성의 제품입니다.



기술

이 모든 요구에 신뢰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랫&휘트니의 힘.™



준비태세



믿음



신뢰

전세계 29 개국의 군이 8,500 여 개의 프랫&휘트니 엔진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utc.com 참조.



Military Engines



Pratt & Whitney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1982년 최초의 국산 전투기 제공호 생산



1976년 국내최초 항공기 5000D 생산



1990년 AH-60 블랙호크 국내 생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비행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미래
대한항공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



보잉사 에어버스사 항공기 공동개발



차세대 무인항공기 개발



군용기 및 민항기 첨단정비



인공위성 및 우주 발사체 개발



최고가 되는 것이다.



NO **CRYSTAL** **BALL** REQUIRED



In the air domain, the future is always present. And because most projects demand solutions or technologies that do not yet exist, the big challenge is foretelling what the future holds. We have found that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be part of building it. That's what we've been doing for around 75 years, a heritage that is exemplified by the continued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Gripen fighter system.

The challenge continues. I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Saab is a key player. We are a partner in the nEUROn demonstrator program, where future technologies are already in evidence, and we lead the MIDCAS project, enabling secure and safe civil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Today, Saab can already offer a fully autonomous UAS: Skeldar – a versatile, mission ready VTOL system.

The future will also demand new surveillance solutions. We are already delivering a state-of-the-art aerial early warning radar system, the Saab AEW&C, and we are constantly working on new innovative and cost-effective solutions for increased security.

We're committed to building the future – no matter what it brings.

www.saabgroup.com

ANTICIPATE TOMORROW ●●●●



SAAB | **75** YEARS OF DEFENCE AND SECURITY

F-16에 완벽하게 장착되는 올바른 레이더 선택의 가치

F-16 및 F-35 레이더 부문 경험과
공통성을 활용한 노스롭 그루먼의
SABR는 F-16 AESA 레이더의 전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지난 35여 년간 F-16 레이더 부문
개척자이자 유일한 공급업체로서
업계를 선두해 온 당사의 AESA는
F-16용으로 고안된 유일한 레이더입니다.
AESA의 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공통성을 한 데 모아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스롭 그루먼이 해저에서부터
우주 공간까지 레이더 솔루션 부문에서 선두
기업이 된 이유입니다.

성능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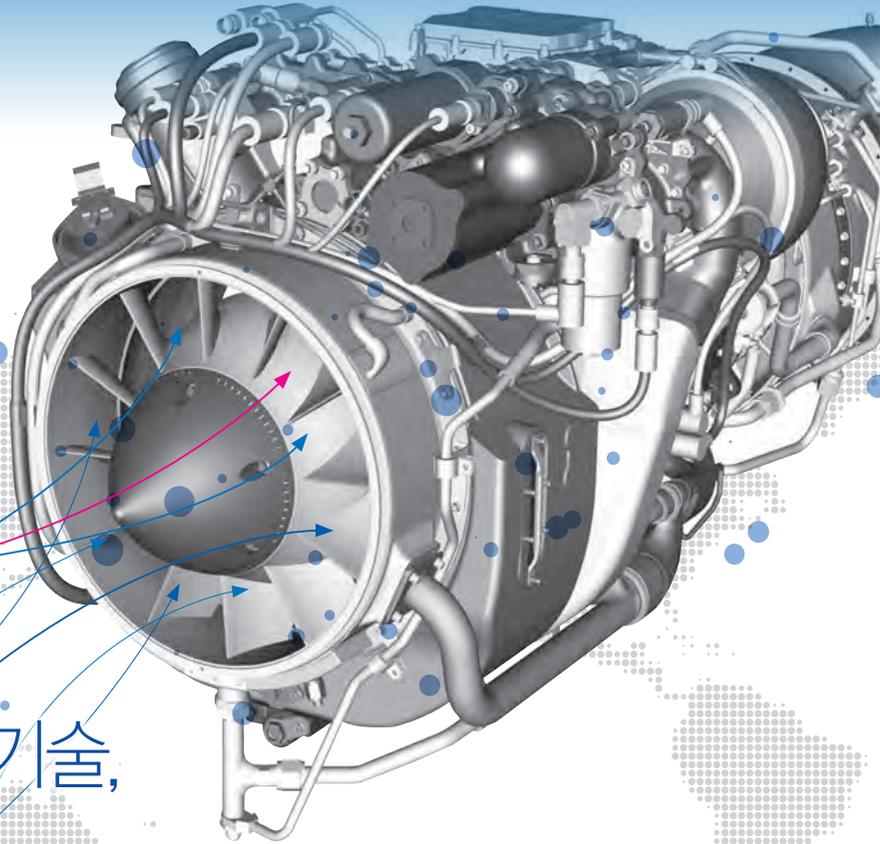
NORTHROP GRUMMAN

THE WORLD LEADER IN INTELLIGENT ENERGY SYSTEM



한국형 수리온 헬기의 힘,
삼성/GE 공동개발

T700-701K TURBOSHAFT ENGINE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은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제조업체로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생산사업과 한국형 헬기엔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주국방과 첨단 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터보압축기, 발전기 등 에너지 장비분야에서 삼성테크윈만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50 Golden Eagle / F404 Engine



F- 15K Slam Eagle / F100/F110 Engine



KUH 수리온 헬기 / T700-701K Engine/STA-150-APU



Ship to Ship Missile / SS-760K



SAMSUNG

삼성테크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번지 삼성테크윈 판교R&D센터 파워시스템 사업부 | 대표전화 031-7147-7000

www.samsungtechwin.co.kr

GE AVIATION

UNMATCHED ADAPTABILITY. CHECK.



F404/F414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GE의 F404/F414 엔진은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과 최신의 기술을 전세계 군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장의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의 F404/F414 엔진에 새로운 성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2~3배 늘어난 부품 수명, 낮은 운용 비용과 20% 늘어난 추력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T-50과 미래의 항공 전력에 최적의 임무 준비도 및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GE.COM/AVIATION을 참조하세요.



imagination at work



TOTAL AIR POWER

최강의 전투력, 유로파이터 타이푼

6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세계 최강의 멀티롤, 스윙롤 전투기 타이푼은 비교 불가의 편대 운용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자식 AESA 레이더부터 최신의 헬멧 시현장치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써 향후 수십 년간 전세계 전투기 분야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www.eurofighter.com



nothing comes close



6년 연속

초우량기업 신용등급 **AAA**

군인공제회!

변화와 혁신은 계속 됩니다.



AAA

6년 연속 (2007년~2012년)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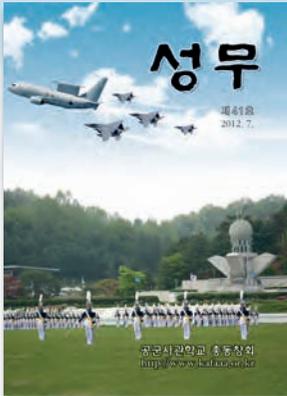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135-700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 www.mmaa.or.kr | 문의전화 1544-9090

- 한국캐피탈(주)
- 대한토지신탁(주)
- 덕평관광개발(주)
- 고려종합물류(주)
- 공우이엔씨(주)
- C & C
- 제일식품
- 대양산업
- 대신기업
- SOC사업관리단

성무

[CONTENTS]



제자 이문 (공사2기)

금번 호부터 한문 표제를 한글로 바꾸었다. 한글체는 2기 사관 이곤 회원의 친필이다.

14 공군 소식

18 모교 소식

22 총동창회 소식

41 회원 논단

42 최근 남북한 상황과 국가안보현안과제 | 송대성

48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반도 안보 | 김구섭

56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상황과 우리의 대응 | 김규

63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근원적 문제와.. | 정선구

73 유·무인 통합 전투기 개발방안 연구 | 이희우

81 회원 기고

82 한반도 평화수호자 「피스아이」 | 김봉주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91 -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 김홍래

94 - 10기 사관, 임관 50주년을 맞았다. | 이은봉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였는가?

103 -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공군의 시각 | 이한호

111 - 국방개혁도 소통이 필요하다. | 이문호

118 - 우리가 걸어온 길 | 배기준

123 서라벌에서 온 편지 2 | 이종학

129 TOP GUN 소감 | 신건우

131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 김영배

133 당신만 행복하다면 | 김국창





- 136 **마부론** | 명영남
- 138 **87 공군 장학회** | 정성규
- 142 **백담사의 가을** | 박창용
- 145 **레바논 소통 이야기** | 이영하
- 154 **비행생활과 우주의 신비** | 이영순
- 159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 유원봉
- 166 **히말라야 임자체 등장기** | 이달호
- 171 **건강한 숨쉬기** | 한봉규
- 175 **부동산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 김영식

177 동문 동정

181 총동창회 알림

- 182 **정기총회**
- 186 **회비 납부 안내**
- 187 **평생회비 납부현황**
- 190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191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현황**
- 194 **전역자 현황**
- 198 **주소 변경**
- 200 **각 기생회 임원현황**
- 201 **편집후기/기고안내**



발행일자 | 2012년 7월[41호] 발 행 인 | 공사총동창회장
 발 행 처 | 공사총동창회 전화_02-823-1091 군_923-7570 편집·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 용 덕

작곡 김 성 태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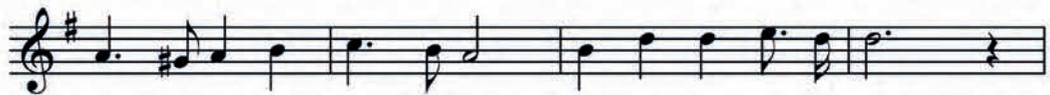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訓 十 士 空

正白從遂貫私敢罰範備

端潔服完一無果必垂兼

儀廉心任義平着賞先威

容清誠責信公沈信率恩



空士十訓
容儀端正
清無潔白
試心遂貫
責任從私
心義平着
儀廉心任
端潔服完
一無果必
垂兼

제32, 33대 공군참모총장이 · 취임식



제33대 성일환(26기)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및 제32대 박종헌(24기) 공군참모총장 이임 및 전역식이 4월 18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제33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성일환 대장은 제17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등 군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고, 소통과 배려의 리더를 갖춘 덕장으로 알려져 있다.

신임 성 총장은 취임식에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상징하는 공군기를 인수받음으로써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책임지는 공군참모총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성 총장은 재임기간 지휘목표를 『자랑스러운 선진 정예공군 육성』에 두면서 우리 공군이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와 국방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대비태세 확립’, ‘군인 정신과 전문성을 구비한 정예 전사 양성’, ‘전력공백 방지 및 현재와 미래위협에 대비한 공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실전에 부합된 교육훈련체계를 정립하며, 신장된 국력에 맞게 한미연합 훈련은 물론 다른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군인 모두는 각자 제 몫을 다하는 가운데 굳건한 팀워크를 이뤄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공군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종헌 전 총장은 이날 이임 및 전역식을 끝으로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하였다.

제1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지난 2010년 9월 창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이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공군은 1월 19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휘관 및 참모, 장학금 수혜자, 장학기금 기증자, 공군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 중 현재 유치원 이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총 45명에게 3,7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¹⁾ 이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이은아 양 등 9명에게는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이번 장학금에는 여러분 부친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기 위한 공군 전 장병과 선·후배 조종사들, 사회 각계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서 “앞으로 부친의 뜨거운 조국애를 삶의 거울로 삼아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각계 기업과 후원단체 및 뜻있는 인사들의 온정이 모여 현재까지 17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재단은 이번 첫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조종사들의 의로운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 유자녀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유자녀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장학기금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은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은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교생 100만원, 대학생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2011년 탑건(Top Gun)에 신건우 소령



공군 최고의 조종사를 일컫는 ‘올해의 탑건(Top Gun)’에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소속 신건우 소령(45기, 주기종 F-15K)이 선발됐다.

올해 탑건으로 선발된 신 소령은 이 10가지 필수요소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61.2점을 참가자 중 최고 득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사격결과를 반영하는 ‘사격능력

평가’ 분야에서 140점 만점에 138.6점(1,000점 만점 기준 990점)을 받아 ‘2011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F-15K 기종별 사격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되는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신 소령이 기록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사격 점수는 역대 최고점이다.

신 소령은 주기종 F-15K 1,080여 시간을 포함하여 총 2,4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인 신 소령은 2005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F-4D 사격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참모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 소령은 비행단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원칙주의자’다. 완벽한 비행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술교범과 규정에 입각하여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편대장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요기 조종사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동시에 이들을 리드하여 공대공, 공대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소령은 “제가 잘해서 탑건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군의 모든 조종사와 지원요원들을 대표해서 선발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F-15K 편대장으로서 적의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기전술 연마와 비행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

공군 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이하 미 8비)은 3월 2일(금) 군산 기지에서 조종사, 무장·정비사 400여 명과 KF-16, F-16 등 한·미 전투기 60여 대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Practice Generation)」을 실시했다.

유사시 적 핵심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최대 무장을 전투기에 신속하게 장착하고, 최단시간 내 대규모로 출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이번 훈련은 2011년까지 「Elephant Walk」라는 이름으로 미 8비가 단독으로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한·미 연합 훈련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그간 한·미 공군은 「Max Thunder」 훈련 등을 통해 공중전 및 전술폭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수십 대의 전투기가 참여해서 출격 이전 단계인 무장장착과 활주로로 이동(TAXI)하는 실제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은 유사시, 또는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하여 적 지역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시작했다.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38전대와 미 8비의 무장·정비사들은 각각 KF-16과 F-16 전투기에 전시상황과 동일한 종류와 중량의 무장을 신속하게 장착했고, 출격준비가 완료된 조종사들은 전투기들을 차례로 활주소에 도열했다.

이후 가장 선두에 있는 전투기부터 출격지점으로 이동하자 한·미 공군 도합 60여 대의 전투기가 공대공, 공대지 등 가공할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를 함께 진군하는 장관이 펼쳐졌으며, 막강한 연합 공군력과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제60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



공군사관학교 제60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2월 24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사관학교장, 공사 지휘관·참모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내빈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에 졸업하는 60기 생도들은 14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교육 생도 제사다 춤다라를 포함한 148명이며,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전원 군사학사 학위도 동시에 수여받았다.

이날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그토록 동경하던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갖게 되었다”면서 “졸업생 여러분의 강인한 날개가 향후 우리 공군이 추구하는 하늘로, 우주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건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졸업 및 학위수여식은 사관학교 8개 학기 중 5번의 우등상을 수상한 수석 졸업생 김민규 생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사를 졸업하게 된 은석준·정우철 생도, 공군학군단 39기인 쌍둥이 동생과 같은 날 임관하게 될 홍준기 생도와 사관후보생 127기인 쌍둥이 형과 같은 해 임관하는 김은천 생도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졸업생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박빛 생도가 국무총리상을, 정우철 생도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명이 우등상을 수상하였으며 총동창회장상인 대표보라매상은 김영배 생도가 수상하였다.

제44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



제44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식이 5월 3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렸다.

이날 새로이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한 김영민(28기) 중장은 지휘권을 이양받고, 미래 항공 우주군을 선도할 정예공군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김영민 사관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명예로운 군인, 활기찬 병영조성 등 세 가지를 강조하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처럼 교육이 공군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정예공군장교 양성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결집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교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주기종은 F-5E/F(제공호) 전투기이며 2,6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장, 남부전투사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군대학 총장을 지내는 등 작전수행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분야에도 탁월한 자질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 재임기간 동안 정예공군장교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대표 사관생도, 美 공사를 평정하다.



美 공군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최정규 생도(62기)가 위탁 첫 학기에서 美 공사 1학년 1,066명의 생도들을 모두 제치고 학업성적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최 생도는 작년 8월 美 공사에 입학(항공공학전공)하여 1학년 1학기에서 Engineering(공학), Computer Science(컴퓨터 공학), Behavioral Science(행동과학), Calculus(미적분) 등 5개 과목 15학점을 수강했으며, 모두 A학점을 받아 평점 4.0 만점을 기록했다. Forbes지가 작성한 2011년 美 대학평가에서 10위권 내에 포함될 정도로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하는 美 공사의 본토 생도들도 학기당 1~2명 정도 밖에는 받지 못하는 꿈의 점수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영어에는 나름대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온 최 생도였지만, 막상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최 생도는 한국 공사에서 가장 강조되었고, 1년 4개월의 생도생활동안 몸으로 체득했던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새겼다. 美 공사 위탁교육의 기회를 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비록 생도 신분이지만, 군사외교사절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에 뒤처질 수는 없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성실함으로 이겨내자, 美 공사의 동기들과 교수, 훈육요원들도 최 생도의 노력을 인정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비교적 단기간에 언어장벽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오히려, 미적분 같은 이공계열 과목들의 실력은 최 생도가 미국 생도들이나 영어권 국가의 외국군 위탁생도들보다 앞섰고, 많은 생도들이 최 생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최생도는 학업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업과 군사 분야 평점 3.0 이상인 생도에게 수여하는 배지를 달 수 있는 영예도 얻었다. 외국군 위탁생도가 첫 학기 만에 달성한 성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 생도는 “대한민국과 공군사관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 같아 기쁘다”며 “국가대표 사관생도라는 생각으로 졸업까지 남은 3년 반의 생도생활에 최선을 다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공군은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과학 행사인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12' 본선대회를 5월 1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했다.

올해 34회를 맞는 Space Challenge 대회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항공우주사상을 양양하고자 1979년 처음

개최되어 연간 선수와 관람객 6만여 명이 참가하는 항공우주축제로 성장하였다.

지난 3월 31일부터 50여 일간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으로 본선대회에 진출한 2,0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각 부문(자유비행 글라이더 및 고무동력기, 물로켓, 동력비행)별로 실력을 겨루었다.

특히, 올해에는 물로켓 단체전이 신설되어 재미를 더했다. 각 지역 예선대회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둔 학교에서 대표 선수 2명을 선발해 물로켓 본선대회 단체전에 참가하였고, 저마다 자신과 학교, 그리고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띤 대결을 펼쳤다.

또한, 동력비행 부문은 '무선조종 비행기', '무선조종 헬리콥터', '무선조종 글라이더', '유선조종', '정밀축소기' 등 5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국내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참여,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다.

대회 개최식에서는 사관학교장을 비롯한 참가학생 대표, 항공소년단 및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고무동력기·물로켓 개시비행을 시작으로 '군악·의장 시범', '낙하산 고공강하 시범'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공군사관학교와 각 후원단체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와 안보사진 전시회, 다채로운 항공우주과학 전시·체험행사를 마련해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항공우주과학 체험과 안보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제19차년도 이사회



공사총동창회는 '10년 7월 28일 공군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동문 및 공군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총동창회'를 19차년도 운영목표로 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화 및 효과확산, 전 동문간 상호교류 확대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대 사회 공헌활동 전

개를 통한 공사인 자긍심과 위상제고, 모교 및 공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주요사업 방침으로 정하였다.

현역 임원 간담회



'11년 8월 31일 제19차 총동창회 임원들은 계룡대를 방문하여 현역에서 불철주야 영공방위 임무에 진력하고 있는 후배기수(29기~43기) 임원들을 초청하여 후배 격려와 함께 선·후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UFG훈련 직후인지라 업무상 일부 후배기수 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

쉬운 점이 있었으나,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와 함께 현역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자문위원 간담회



'11년 9월 7일 공군회관에서 역대 회장 및 사무총장님들을 모시고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병구 회장은 그동안 1기 선배님들로부터 대를 이어오면서 많은 열정과 애정을 갖고 총동창회를 잘 가꾸어 19기까지 물려주신데 감사하며

19차년도 전 임원들은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총동창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진행은 회장인사에 이어 임원진 소개, 총동창회 현황보고 및 토의에 이어 5대 회장이신 박용태 회원님의 건배 제의, 자문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선배기수 임원 간담회



'11년 9월 21일 성남 체력단련장에서 선배기수 이사(12~18기) 간담회를 가졌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모처럼 선·후배 회원간에 친목을 다지는 한편 각 기생회 운영과 총동창회 발전에 관한 많은 고언과 격려를 19차 임원들에게 전수해주셨다. 운동 후에는 만찬으로 정담을 나누고, 전우회 사무총장(이문호 회원)을 초

청하여 군 상부구조 국방개혁에 관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그간 열심히 노력해주신 TF팀에게도 큰 박수를 보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총동창회 발전과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제18차 총동창회 회장(이선희 회원)과 사무총장(송희전 회원)에게 유병구 총동창회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해 드렸다.

후배기수 임원 간담회



'11년 10월 12일 후배기수 이사 (20~28기) 간담회를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선후배간에 따뜻한 정담을 나누는 한편 총동창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토의하였다.

운동 후 만찬을 하고, 식후에는 현재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상부구조 개편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는 시간도 가졌다.

친선 바둑대회



'11년 11월 16일 공군회관에서 제9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우회 고문 윤자중 (1기) 회원님을 비롯한 선수 및 참관자 60여 명이 참석, 총동창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김수장 지도사범님 소개, 정지수(11기) 간사님의 기우회 약사 설명, 손정환 바둑추진위원장의 대회규정 설명 및 진행에 따라 대진표에 의해서 개인전 및 복식전이 질서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수장(9단) 지도사범님은 7명과 동시에 대국하는 다면기를 보여 주어 대회를 빛내 주셨으며, 시상식 후에는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2기 김경태 회원님 격려 말씀과 건배 제의로 만찬을 시작하였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나서인지 준비된 음식을 즐겁게 들며 친선 바둑대회의 발전과 참여 회원 확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둑대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동창회 소식



● 개인전

A조 : 우승 - 이 남 재(22기), 준우승 - 정 윤 태(18기)

B조 : 우승 - 최 동 철(16기), 준우승 - 김 정 동(7기)

C조 : 우승 - 장 성 문(20기), 준우승 - 김 광 현(11기)

● 복식

우 승 - 강 영 진(8기), 전 세 일(11기)

순조회 회장단 방문



'11년 12월 26일 순조회(순직 조종사 미망인회) 회장단이 전우회장 및 총동창회장을 방문하였다.

순조회 회장단은 2년의 임기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준신 회장(고 박명렬 소령 미망인)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손이분 회장(고 조상진 중령 미망인)이 선출되었다.

전우회장 및 공사총동창회 회장은 순조회 회장단을 격려하고, 각각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60기 졸업생 격려 방문



지난 2월 21일 60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축하를 위하여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이 모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진행된 회장의 특강에서는 41년간의 군 및 사회생활 사진들을 모아 장교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공사총동창회 소개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 등을 강조하는 한편 임관 후 초급

장교로서 지켜가야 할 덕목을 제시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총동창회에서는 작은 정성이지만 졸업선물(가족지갑)을 준비해 전 졸업생들에게 전달하여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해주었다.

총동창회 등산대회



지난 5월 16일 등산하기 아주 쾌적한 날씨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총동창회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행사에 항상 술선수범해 주시는 1기 선배님부터 26기 후배들까지 약 2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모처럼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금번 등산대회에서는 원로 기수(1~10기)에서 5기 선배님들이 14명 참석하여 단결력을 과시하였고, 11기 이하 기수에서는 18기생이 15명 참석하여 모범을 보여주었다. 총동창회 운영기수인 19기 및 메추리 기수인 22기 후배님들도 많이 참석하여 식사운반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공사총동창회 임관기념 행사



지난 5월 4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총동창회 임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0기 50주년, 30기 30주년, 40기 20주년, 50기 10주년을 맞아 기생회원 및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임관 50주년을 맞은 10기 회원님들께서는 해외에서도 오셔서 참석하시고,

미망인분들께서도 모두 함께해 주셔서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1부 행사는 사관학교 계획에 따라 성무의식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축하 곡예비행을 관람하고, 2부 행사는 각 기수별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하였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후배 생도들의 자랑스럽고 능름한 열병분열 행사를 참관할 수 있었고, 금년부터 시작된 3군 사관학교 교환교육에 따라 육사 및 해사 생도들도 함께 성무의식에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40기생들은 과거 생도시절을 회상하며 분열시 마지막 대열에 참여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10기 동기생회에서 1,000만원, 김홍래 동기생회장이 1,000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주셨으며, 30기(1,000만원), 40기(1,000만원), 50기(500만원)에서도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모교사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총동창회 소식

부대 방문



● 공군본부 ('11. 7. 5)



● 공군사관학교 ('11. 7. 7)



● 작전사령부 ('12. 4. 5)

총동창회 소식



● 교육사령부 ('12. 4. 6)



● 군수사령부, 남부사령부 및 제11전투비행단 ('12. 4. 6)



● 제3훈련비행단 ('12. 4. 6)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 7기 사관 **곽영달**
- 17기 사관 **이한호**
- 17기 사관 **이문호**

공사총동창회는 제19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7기 사관 곽영달 회원과 17기 사관 이한호, 이문호 회원 3명을 선정하고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7기 사관 곽영달 회원은 공사교장과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정예 공군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제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전역 후에는 제14대 국회의원으로 공군발전 및 국가 안보에 큰 공헌을 하였다.

총동창회 소식



17기 사관 이한호, 이문호 회원은 제17차 총동창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순직조종사 추모비 건립 및 경조사 알림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동문간 전우애를 공고히 하였으며, 특히 2010년 12월 구성된 공군전우회 주관의 국방개혁 대책위원으로서 올바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두 회원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총동창회 소식

공사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발전기금 전달



2012년 6월 13일 공사총동창회 주관으로 모교에서 공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총동창회에서는 현 회장단과 차기 회장단, 기생회장(21~26기)들이 참석하고, 공사에서는 교장 이하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그동안 예비 선배들이 느끼는 공사 교육의 문

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허심탄회하게 제기하고, 사관학교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제도개선, 교과과정 반영 등 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유병구 회장은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 및 행사에서 절약한 1천만원을 사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공군 하늘사랑 장학금 전달



2012년 6월 21일 유병구 회장은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해 공군에서 2010년에 설립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공사총동창회 이름으로 1천만원을 기증하였다.

기탁금은 지난 1년 동안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사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예산 일부와 각종 행사비에서 절약한 예산을 모아 기증한 것이다.

총동창회 소식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총동창회는 2012년 6월 27일 공군회관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업무 및 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및 감사패를 전한 후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총회를 가졌다. (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20차년도 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 이기동 장군을 선임하였다. 총동창회 업무는 20기 사관이 운영기수를 맡게 되었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20차 운영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20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 회 장 : 이 기 동
- 부 회 장 : 장성문(선임), 김성두, 김성일, 김호동, 안병걸, 이치훈
임근배, 전호훤, 차종권, 허원욱, 홍민
- 감 사 : 김동래, 김팔수
- 사무총장 : 이영희

이 임 사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희 19기 사관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20기 사관에게 총동창회 운영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총동창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총동창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 기생회의 회장단, 자문단 및 원로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19기 사관들은 지난 1년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선배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동문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는 봉사를 하였던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기 사관 선배님들의 “임관 50주년 기념 축하행사”, “친선바둑대회”, “등산대회”, “현역 후배들과의 간담회”와 “60기 사관 후배들의 졸업 및 임관 축하 행사” 등을 알차게 수행하여 선·후배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조종사 미망인들에게 안보 견학을 후원하고, 순직조종사 자녀들을 돕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회”에 성금을 기탁하여 우리 총동창회가 힘들게 생활하시는 순직 조종사 유족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총동창회에서 모교를 방문하여 총동창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학교 간부들과 모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배 사관생도 교육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모교 발전기금을 쾌척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총동창회를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19기 태성회원 여러분들 덕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9기 태성회원들은 총동창회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늘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총동창회 지원금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 시에는 동기생은 물론이고 개인 사정으로 미처 졸업을 하지 못한 동기생들과 하늘에서 산화하신 동기생 미망인분들까지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해주셨던 일은 가슴이 찡하는 고마운 일이었기에 이 기회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동창회를 인수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태성회 회장단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총동창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봉사를 해주신 총동창회 임원진과 각 사업별 추진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년 내내 총동창회의 모든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주신 정하섭 사무총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총동창회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성을 다하기는 했지만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총동창회의 운영을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이기동 회장님과 20기 사관 여러분에게 넘기게 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19기 사관들은 총동창회의 한 회원으로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신 곽영달, 이한호, 이문호 회원님과 감사패를 받으신 정형석 중령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재삼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와 대한민국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이임 총동창회장 유 병 구

취 임 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먼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수락해 주신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일 년 이후 여러분들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도 커서 중압감을 느낍니다.

다행인 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20기생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기생 모두는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1년간 모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공사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애정을 갖고 총동창회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사관학교 출신 9,000여 회원들은 성무대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랑스러운 호국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역 회원들은 공군의 각 분야에서 조국의 영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며, 청춘을 공군에 바치고 전역한 예비역 여러분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인 활약을 펼침으로써, 우리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창회를 아껴 주시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저와 20기 동기생들은 모든 힘을 결집하여 선배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총동창회의 훌륭한 전통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관련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동문간에 끈끈한 유대감과 결속력이 더욱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기 계신 회원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참여와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마음에서 그 결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살뜰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와 모군인 공군의 발전을 성원하고 돕는 후원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교 후배 생도들에게는 공군 간부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그리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의 모군인 공군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문 행사를 통하여 현역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영공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보탬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현역과 예비역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교량적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들이 공군사관학교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심 고취와 우리 총동창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동창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 등 기본적인 대내적 활동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외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증진하고 총동창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시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훌륭한 조언과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유병구 회장님과 19기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공사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신임 총동창회장 이 기 동

축 사



푸르름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을 맞아 2012년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존경하옵는 역대 총장님과 원로 선배님, 그리고, 많은 동창회 회원님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가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간 헌신하신 유병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공군 각급부대 격려방문을 비롯하여 60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행사 지원, 1기 사관 임관 50주년 행사지원, 계룡대 지역 후배 장교들과의 간담회 등 공군과 공사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공사 19기 임원진을 위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새로 취임하신 이기동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 역시 훌륭한 리더십과 인품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발언이 지속되는 한편 SU-25가 개성부근까지 남하 비행을 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불만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태세를 보완하였으며, F-15K 등 최신에 기종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도록 실전적인 비행훈련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좌파 세력들이 국내 곳곳에서 활개치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 나라사랑 체험활동과 공군장병 정신교육 강화로 전역 후에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영의 국민교육 도장화에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군은 차기전투기 사업, 공중급유기 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기 전력화를 통해 국가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 전장병과 예비역 동문이 하나가 되어 공군 발전과 항공우주군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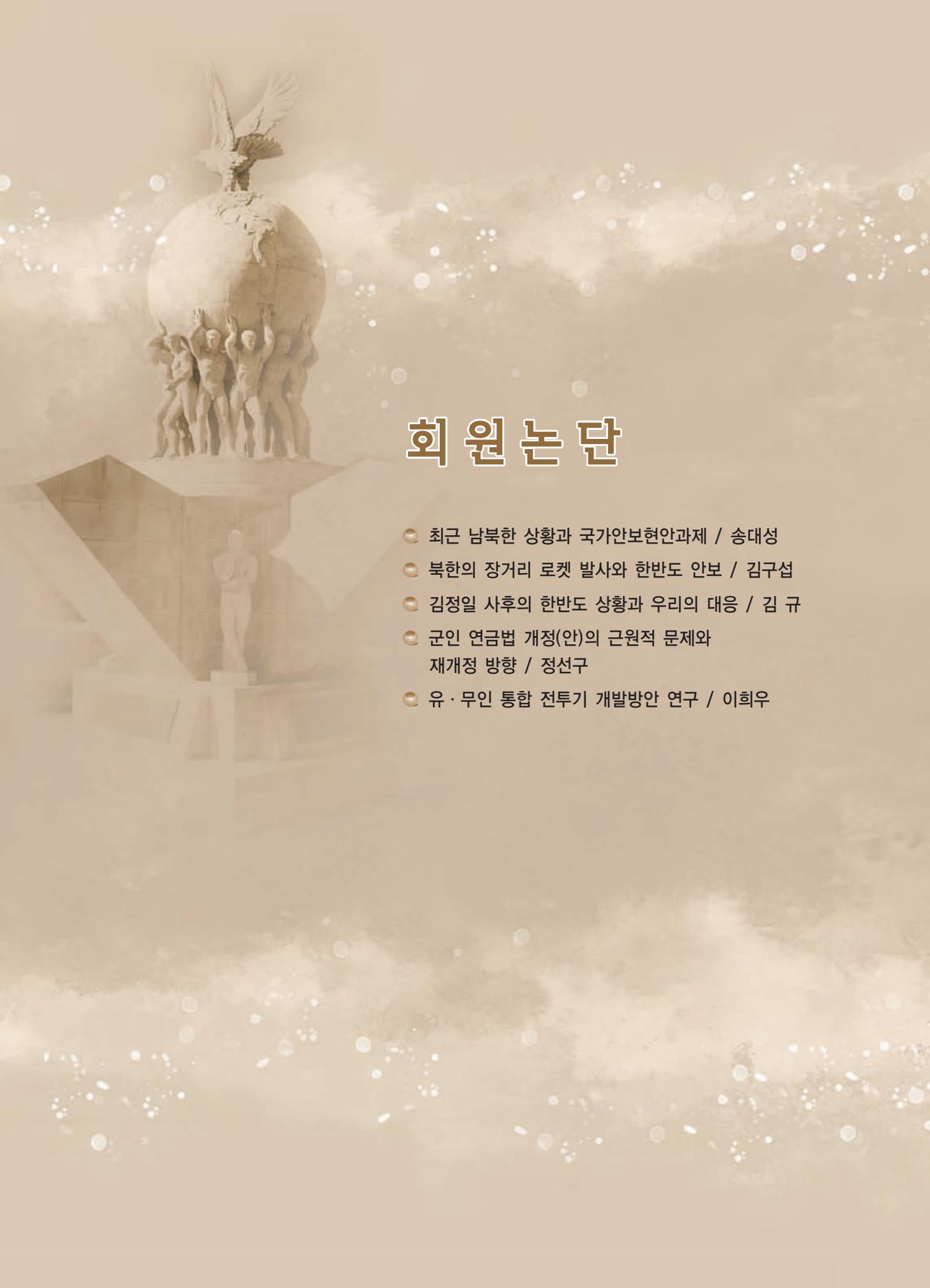
끝으로, 오늘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후배, 동료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공사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 및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성 일 환**



회원논단

- 최근 남북한 상황과 국가안보현안과제 / 송대성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반도 안보 / 김구섭
-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상황과 우리의 대응 / 김 규
- 군인 연금법 개정(안)의 근원적 문제와 재개정 방향 / 정선구
- 유·무인 통합 전투기 개발방안 연구 / 이희우

최근 남북한 상황과 국가안보현안과제



17기 사관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글 들어가기

지난해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사망 이후 혹시나 하고 기대하였던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화 및 남북관계의 합리적 발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큰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승계된 김정은 북한정권은 더욱 잔혹한 체제로 그 속성이 변화되면서 북한의 내부정황은 더욱 불안정·촉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내부상황이 고착되어 있든 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든 그 북한의 상황이 우리에게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완벽한 실천을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한국안보현안과제다. 본고에서는 2012년 5월이라는 시점에서 남북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할 현안과제들을 도출코자 한다.

남북상황

현재의 남북상황은 남북 공히 그 향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종의 부유상황(浮遊狀況: floating situ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 정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부유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차기정권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부유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상황은 (1) '유훈통치+선군정치' 승계, (2) 정통성 강화를 위한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속성 강화, (3) 예측불변성 증대, (4) 남한혁명역량증대 노력경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를 답습하겠다는 유훈통치와 북한보유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선군정치 천명이었다.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재자들로 군림한 김일성과 김정일 통치하에서 제시된 각종 내용들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출범은 그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 예측이 된다. 김일성 시대에는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교시’(김일성의 발언), 김정일 시대에는 ‘말씀’(김정일의 발언)을 더 중시한 그 발언의 내용들을 김정은 시대에도 중요한 통치기준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은 “북한의 군사력은 한반도를 북한주도하에 통일할 통일의 원천력이며,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체제옹호력이며, 대남대외 협상력”이라는 내용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올인하겠다는 통치원칙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어린 나이에 정권승계라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통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하여 온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의 속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은 탈북자들에 대해 “조국을 배신하면 3족을 멸하겠다”(지난 2월 25일 보도)는 지시, 김정일 사망 후 조문기간 중 음주한 인민무력부부장을 박격포 처형(3월 22일 보도) 등 더욱더 잔혹한 독재자 속성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인이 정권을 승계한 이후에도 북한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예측불허의 속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행과 괴행이 수시로 자행되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권(Enigmatic Regime)이 북한정권임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속성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그 도를 더 하여가면서 표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4월 13일 북한은 로켓 발사 장면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외신기자들 및 전문가들 70여 명을 미리 불러놓고 정작 로켓을 발사한 그 시간(4월 13일 07:38:55)에는 그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발사하는 괴행을 자행하기도 했고, 수많은 그들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인민들이 먹을 8년 치의 식량 값을 쏟아 부으면서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대남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소위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위주로 통일한다는 원칙을 더욱 강도 높게 추구하고 있다.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라든가 화해 등을 그들의 혁명역량 강화차원에서 철저히 이용하는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남한상황은 (1) 권력구조 및 정치무대 재편, (2) 사회문화 · 가치 혼돈, (3) ‘코리아 브랜드(Korea Brand)’ 고조, (4) 취약 안보역량 보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 12월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치무대의 구성원들이 재편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적인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소위 보수세력들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진보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친북적인 자세를 취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적인 가치들을 존중하는 보수세력들이 집권을 할 것인지 정치권의 질이 결정되는 정치무대재편이라는 큰 명제를 두고 부유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 남한상황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문화와 가치의 혼돈이 극에 달해 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과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또 다른 국민들 간에 그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가운데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한민국적인 가치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친북적이고 반대대한민국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각종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크게 부상되고 있다. 산업기술 능력의 발달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의 질적인 제고로 인해 한국제품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고 무역량도 증대되면서 코리아 브랜드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세계적인 대형 국제회의 개최, K-pop 등 한류의 지구촌적 인기 등 한국의 브랜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국가적인 재앙을 맞으면서 한국안보역량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졌다.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정확한 사전차단 능력부족이라는 문제점과 적으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고 보복할 줄 모르는 희한한 안보역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안보역량 상 노정된 문제점들을 보완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안보 현안 과제

현재의 남북한은 한마디로 부유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안보의 현안과 제로서는 (1) 동맹국(同盟國)·근린국(近隣國)에 대한 분명한 객관적 인식, (2) 북한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3) 반대대한민국적 가치 차단 제거, (4) 취약 안보역량 차단 제거 등 4가지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중국은 우리와 인접하여있는 근린국이다. 한국의 안보·발전·번영에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안보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함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국에게 안보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맹국이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한 한국의 보은국(報恩國)이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한국전쟁에서만 33,642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되었고, 123,905명이 불구가 되었다. 지구촌에서 가장 인간다운 한 삶의 질을 갖추고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세계최강의 안보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세력들의 침공을 차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맹국이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함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국민적 과제다.

중국은 안보분야를 제외하고 우리와 여러 가지 삶이 얽혀 있는 우리의 근린국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계이성(World Reason)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특수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와 근접하여있는 때로는 협조, 때로는 갈등을 갖는 우리의 근린국이다.

한국안보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과제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 인식을 함이다. 한국의 역대 대북정책 중 저질러진 가장 큰 실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그 근본 원인이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을 잘 못 인식하고 있음에서 비롯되었다. 현 이명박 정부도 때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몇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개인이든 국가든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면 대책에서 문제점을 갖게 된다. 북한이 우리에게 순수한 형제동포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의 적인지 객관적 인식을 함이 가장 중요한 안보차원의 과제다.

현대국가의 안보역무는 국가 혼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국가의 안보역무는 국민과 함께 이행하여야만 한다. 국민과 함께 안보역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국가와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함이다. 국가와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해 각기 상이한 개념 및 가치를 갖게 되면 안보역량은 결집될 수가 없고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된다. 국민과 국가가 어떤 가치가 국가를 위한 가치고 어떤 가치가 국가에 위해되는 가치인가에 대해 공통의 견해들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차원 문제점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켜야만 할 가치와 지키지 않아야만 할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고, 반대한민국적인 가치들이 대한민국적인 가치들을

위해(危害)하고 훼손(毀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과제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지난 역사의 부정, 심각한 반미친북성 문화, 대한민국 국군 비난 및 군 비하 문화, 안보역량 훼손 문화 등이 반대한민국적인 가치들이다. 이러한 반대한민국의 가치들을 차단 내지 제거함이 한국안보의 중요한 현안과제 중 하나다.

취약안보역량 보완은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개괄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는 미흡한 억제역량(Deterrence Power) 보완이요, 두 번째는 미흡한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보완이다. 평화는 억제역량의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적의 도발의 지를 사전에 분명히 파악하고, 정확한 도발수단을 간파한 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함은 국가의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쟁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에서 이러한 억제역량 차원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 도발에 대한 보복은 전쟁에서 기본 중 기본이다. 사실상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은 안보역량이 아니다.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는 경우 반드시 갚아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안보역량이 구비하여만 할 A.B.C다.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는 경우 우선 적공격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 공격에 의한 피해상황을 정밀분석한다. 그리고 적 성격과 적 능력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정교함과 확증 파괴력을 갖춘 보복능력을 완벽하게 구비한다. 마지막으로 적이 전율과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보복하는 능력을 구비함이 안보역량에서 구비할 필수요소 중 하나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역량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역량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북한은 한국군의 안보역량을 알잡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다시 연평도 포격이라는 더 큰 북한의 도발이 야기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 보복하지 못한 한국의 안보역량은 실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차원에서 그리고 반드시 보복한다는 신념차원에서 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노정되었다. 이러한 점이 신속하게 보완되어야만 할 사항이다.

결 언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질적 변화와 남북한관계의 합리적 변화를 기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변화의 징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남북상황은 남북 공히 그 향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유상황(浮遊狀況: floating situation)이다. 북한상황은 (1) '유훈통치+선군정치' 승계, (2) 정통성 강화를 위한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속성 강화, (3) 예측불변성 증대, (4) 남한혁

명역량증대 노력경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한상황은 (1) 권력구조 및 정치무대 재편, (2) 사회문화·가치 혼돈, (3) '코리아 브랜드(Korea Brand)' 고조, (4) 취약 안보역량 보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안보의 현안과제로서는 (1) 동맹국(同盟國: 미국)·근린국(近隣國: 중국)에 대한 분명한 객관적 인식, (2) 북한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3) 반대한민국적 가치 차단 제거, (4) 취약 안보역량 차단 제거 등 4가지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던 하지 않던, 남북한 관계가 합리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던 대한민국의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적인 가치를 수호함은 국가안보의 변함없는 목표다. 본 목표의 철저한 달성은 여하한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숭고한 국가적 그리고 국민적 역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반도 안보



19기 사관 김 구 섭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정치학 박사

I. 서 언

북한은 지난 4월 13일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이미 공연해 온 바와 같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 되는 금년에 강성대국 출범과 김정은 체제 출범을 축하하는 축포를 쏘 올린 것이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관련 주변국들은 북한이 처음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발표한 3월 16일부터 꾸준히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제2항의 위반이기 때문이다.¹⁾ 동 안보리 결의 제2항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위성발사체 개발이 사실이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단행했고,²⁾ 국제사회는 지난 4월 1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했다.³⁾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시작된 불안정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로켓 재발사는 물론이고 3차 핵실험마저 강행할

1) U.N 안보리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2009년 6월 12일에 강화된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S/PRST/2009/7 of 13 April 2009,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RES/1874(2009),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un.org/Docs/sc/>>

2)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발사가 실패로 끝난 4월 13일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보도를 통해 첫 실용위성은 오전 7시 38분 55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었고 위성의 궤도진입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는 간단한 발표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3) “S/PRST/21012/13 of 16 April 2012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un.org/Docs/sc/>> 참조.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단한 관심과 일치된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기 위해 작성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의도와 로켓 발사 선언 후 주변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최근의 상황 변화를 살펴보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II.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의도

1.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기본적으로 '先 체제 안정화 後 대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체제 안정화에 정책적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외관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대외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된 것이다.

체제 안정화는 구체적으로 강성대국 선포를 통한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체제 선전을 위한 공세적 선택으로서 로켓 발사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일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위성이라는 선진과학을 실현해 낸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강요하고자 했을 것이다.⁴⁾ 다른 한편에서 대외관계의 손실은 김정은의 손실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손실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지원 중단으로 곤경에 처하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소외계층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갖출 범한 김정은 체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손실도 감수할 것이다. 물론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기에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실패했고, 북한 지도부는 내심 매우 당황해 하고 있을 것이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도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은의 현실적인 이익과 조화된다고 본다. 핵실험의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2009년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로켓 실험을 인공위성 실험으로 인정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북한이 가장 많이 시도했던 도발은 대남 군사도발이었다. 하지만, 대남 군사도발은 실패로 귀결될 경우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으며 군사작전의 특성상 완벽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반면 미사일 발사는 인공

4) 최근 북한은 당 대표사회회의를 통해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김정은을 당의 최고수위로 추대하였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위성 운용이라는 김정일의 유훈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2.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서의 재활용

북한의 로켓 발사는 당장은 대외관계 악화를 가져오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향후 새로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핵 문제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관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 및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과의 협상 재개를 기대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원한다면 핵개발/핵실험 중단을 매개로 얼마든지 ‘2.29 합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11월 13일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이후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매개로 미국을 유인해 왔고, 이러한 북미관계의 구도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선택의 폭은 매우 제약될 것이다.

Ⅲ. 장거리 로켓 발사 전후 주변국의 입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선언한 이후 주변국들은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반대의를 표명했다.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던 중 “미사일 개발보다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더욱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길 요구했다.⁵⁾ 그러나 러시아 역시 최근에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개별국가의 대응 또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1.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 내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PAC 3를 배치

5) 『중앙일보』 2012년 3월 27일.

하였으며, UN에서도 북한 비탄성명을 도출해 내기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⁶⁾ 과거에도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2009년 안보리결의 1874호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일본이다. 물론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로 부터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대외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는 측면과 내부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동창리에서 발사한 로켓은 그 경로가 과거 일본 본토 위를 넘어가는 것에 반해, 한 참 후에 난세이(南西) 제도 위를 통과하게 될 뿐이었기에 과거에 비해 덜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가장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인면서도 미묘한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은 ‘2.29 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연이어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15일 미측에 로켓 발사 의사가 전달되었으며, 지난달 ‘2.29 합의’ 과정에서 로켓 포함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본다. 다행히 미국 내 북한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바마 정부 역시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 미국 등의 견해에 동조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들 국가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2. 상대적으로 덜 비난하는 입장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 발사체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는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주변국의 과도한 대응을 우려했다. “당사국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요격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일본 등에서 제기되었던 요격 문제에 반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UN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동참하여 북한을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 이후 UN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일본은 2009년에도 동일한 대응을 했다. 2009년 3월 27일에 도쿄 주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이동시켰다. 방위상이 하달한 ‘파괴 조치 명령’에 따라 시작된 부대전개과정을 방송국들은 실시간으로 중계 보도하였다. 『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2009년 3월 28일.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보다는 비교적 독자적 주장을 하였다. UN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대화로서 풀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IV.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의 상황

1.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와 UN 안보리 의장 성명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고 1~2분 정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되어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어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광범위하게 떨어졌으며 한국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⁷⁾

비록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 불법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UN 안보리는 17일(현지 16일)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⁸⁾ 이날 성명은 UN 결의안 1718호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지적하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포함하였다. 이처럼 의장성명에 담긴 내용은 과거의 그 어떤 성명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결의에 반해 의장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비해 국제사회는 이를 단지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7)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 2012.4.13)

8) 앞의 각주 3 참조.

2. 당분간 긴장국면이 예상

과거 북한은 잘못된 행동을 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에도 항상 새로운 도발을 감행했다. 2006년과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단행한 뒤 안보리제재가 이뤄지자 북한은 핵 실험으로 대응했다. 또한, 2010년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응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왔기에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로켓 발사에 따라 대북제재가 논의될 경우 국지전/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미국의 '2.29 합의' 위반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⁹⁾ 이를 통해 3차 핵실험의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원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데, 미국이 합의를 안 지키고 위협을 하므로 자위적 차원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하려 들 경우, 한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오늘날의 긴장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비난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행태의 도발이든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발이익의 측면에서 북한은 국지적 무력도발보다는 3차 핵실험이 더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군사작전의 특성상 국지전 도발은 실패의 부담이 있고 도발이익도 적었다. 연평해전·대청해전 등 실패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성공한다 해도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핵실험은 실패 가능성도 적고 성공 시 '핵보유국' 위상 강화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핵실험 후에는 항상 이익이 수반되었다. 2006년 핵실험 이후 BDA 문제가 해결되었고 2009년 실험 이후에는 중국의 대북지원 강화를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과 핵실험으로 보여주는 북한의 '장거리 투사가 가능한 핵무기 보유'는 향후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부여할 것이다. 실제로 핵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향후 대미협상에서 북한의 위상을 증대시킴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UN 차원의 더 강도 높은 제재나 무력 제재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경제제재 강화 역시 실효성이 없다.

향후 북한은 상황을 조망하며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반응을 민감히 고려할 것이다. 중국이 대북 교류중단과 같은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3차 핵실험을

9)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은 외무성 "미국의 행동으로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이 깨져 조미합의에서 벗어난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7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핵실험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본다. 기술적으로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황이 중요하다. 현재 핵실험 준비가 완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상당기간 준비를 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향후 북한은 김정은과 군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서구 선진국 등 우리의 동맹이나 우방들 외에도 중국의 참여가 핵심 관건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강경정책 전개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중국 내부 권력경쟁 상황에서 대북정책 방향 전환이 어렵다. 더구나 최근 보도되는 것처럼 중국의 국내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다.¹⁰⁾ 결국,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북한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없는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는 국제정세 형성과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먼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추가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및 3차 핵실험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미협력을 통해 한국 입장에 대한 외교적 지원, 한반도 안정 지원, 대중 설득 노력 강화를 추진하고 대중협력을 통해서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N 및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UN 안보리결의안의 성실한 준수와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해야 할 것이다.

국제공조 못지않게 국내적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실질적인 군사적 예방 조치들도 필요하다.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재발사에 대비한 감시·정찰을 강화하며 북한의 국지전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불안정이 조성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환율 및 주식시장 안정을 통한 국내적 동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10) 보시라이 전 총칭서 서기 사건 이후 중국정계는 매우 긴장되어 있다. 군부내 동조 세력이 숙청되는 등 민감한 정치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4월 21일.

북한 문제의 해결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발 → 보상 → 재도발 → 재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금번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자칫 방관하면, 김정은의 더 큰 오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그간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안은 결국 북한의 더 큰 도발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절대 보상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상황과 우리의 대응



27기 이사 김 규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들어가는 말

2011년 12월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 사망으로 최고 권력이 28세의 김정은에게 세습되자 세계는 조롱 반, 우려 반으로 향후 한반도 정국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중에서는 세습 반대 세력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 예상 밖의 연착륙, 개혁·개방 추진 그리고 대남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을 치르고 처음 시찰한 부대가 6·25 때 서울에 첫 입성한 제105탱크사단이었으며, 지난 1월 중순에는 대남 도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169부대(특수전부대)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다. 북은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 유산을 철저히 계승하기 위해 김정은의 “유일적 영군(領軍) 체계”를 튼튼히 세우자고 하였다.

이러한 북의 동향은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의 권력 세습을 가능하게 한 절대권력 형성 과정과 특성을 개관하고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대응책을 논해보겠다.

1. 김일성과 북한

김일성은 혼란한 해방 정국에서 상징 조작과 선전선동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는 구호 아래 1948년 9월 공산주의를 최종 목표로 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그의 빨치산 활동을 조선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패망을 그에 의한 혁명투쟁의 결과물로 조작하면서 김일성을 영명한 지도자, 절세의 독립영웅으로 묘사했다. 이와 함께 주민 지지를 얻기 위한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無償沒收 無償分配)라는 왜곡된 토지개혁 등을 실시(무상분배 아닌 국가 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환심을 사고 대중동원의 틀을 마련하면서 전체주의 기반을 다졌다.

1950년 6월에는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받고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패배하자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남로당 당수 박헌영 등에게 적과 내통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처형하고 독재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독재자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자 위기를 느낀 김일성은 주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반대파를 수정주의자 분파주의자라는 명에를 씌어 처단하였다. 이렇게 정치적 도전 세력을 제거하고 6·25전쟁의 패인을 희석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에 선전 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1967년에는 주체를 사상으로 체계화하고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명시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반도 공산화 혁명을 구현할 최고 지도자는 수령이고 수령은 완전무결하므로 수령유일영도체제(국가기구가 수령 1인의 지도하에 움직이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소위 유일사상, 유일적 영도를 골간으로 하는 수령과 유격대원과의 끈끈한 관계로 설명되는 수령제 사회주의국가를 완성하였다.

2. 김정일 등장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은 1973년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감찰과 인사권을 거머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조직지도부장(임종시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1974년에는 당중앙 정치위원이 되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1980년 6차당대회에서 이를 공식화 함). 1986년에는 유일영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개인숭배와 절대권력체제를 융합한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을 내세워 권력을 절대화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사회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주민은 사회의 어버이인 수령에게 효성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북한 주민을 수령에 맹종하는 혁명 전사로 전략시킨 수령제사회주의국가의 틀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여 명칭을 김일성헌법으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명문화 했다. 그리고 북한은 주체사상을 국가지도이념으로 내세우고, “(김일성 일가에 의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라 하여 김씨 왕조체제(2010년

9월 노동당규약 개정시에 북한을 김일성조선이라 칭함)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김정일은 북한 주민을 김씨 왕조의 신민화(臣民化)하는 왕조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자신에게 절대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지시에 북한 주민이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이상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사용한 ‘인류의 태양’, ‘정의와 인류 평화의 수호자’, ‘세계 제1명인’ 등 김정일 이상화 호칭만 1,200여 개가 넘는다는 것은 이를 설명한다. 김정일이 김일성에 못지않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능력 보유자이자 인류 평화 수호자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비효율·비합리성은 경제적 빈곤과 식량 부족을 심화시키고 통치의 버팀목인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수령의 위치가 흔들리는 체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김정일은 이의 돌파구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내세워 강력한 주민 통제체제로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만 수령제 사회주의의 체제 모순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결국, 김정일은 수령(왕) 유일영도체제를 배경으로 17년간의 절대 왕권을 행사한 산물로 300여만 명이 아사하는 기아국가, 인권이 유린된 수용소 국가 이마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그의 죽음을 두고 북한 주민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광적으로 통곡하는 행태는 연민을 느끼게 한다. 사이버 종교의 광신도라고 치부하기에는 감정을 앞세운 비논리적 비판 같고, 정상적 애도 표현이라 하기에는 상식을 비웃는 것 같다. 어쨌든 북한 주민은 김일성이 기초를 다지고 김정일이 영역을 넓힌 절대 권력자 왕과 절대 복종자 신민이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은 세습체제의 향방

왕조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절대 권력을 20대 김정은에게 물려주면서 이번에는 김정은을 ‘걸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전출 위인’ ‘불세출의 선군 영장’으로 호칭하는 등 또다시 이상화를 위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 조작이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북한 권력 세습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 상황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될 것 같다. 세습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급변사태 발생, 주체사상 울타리를 넘어선 중국식 개혁 개방 추진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고 김정은 체제 연장력을 위한 수단으로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세습체제의 불안으로 인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김정일 장례식 직후에 최고 사령관 직에 올랐으며 금년 첫발을 군부대 시찰로 시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2년 공동신년사설을 통해 김정은의 “유일적(唯一的) 당 영도 체계”와 “유일적 영군(領軍) 체계”를 튼튼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권력의 핵심인 당과 군에 탄생각 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김정일 장례식장과 군부대 시찰지에서 원로 노장들이 20대 애송이에게 깎듯이 예의를 표시하는 장면을 수시로 방영했다. 최고 권력자의 위상을 존엄하게 보이려고 연출하는 선전이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권력 고위층의 가식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 뒤에는 김정은 체제 버팀목인 고모부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 총참모장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제1부부장 우동축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권력의 핵심 포스트에 불만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오랫동안 수령유일영도체계에 체질화되어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김씨왕조와 신민(臣民)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급변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유일한 후견 세력인 중국도 한반도 안정이라는 기조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정착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공산당 정치국 전원이 베이징의 김정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이나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조선의 영도자’가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세습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이를 말하고 있다. 또한,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1월 10일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호적인 이웃 북한을 계속해서 힘닿는 데까지 지지하고 도울 것”이라며 중국의 주변 외교 방침인 “이웃을 잘 대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與隣爲善 以隣爲伴) 것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를 우회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적어도 김일성 사망 시와 같이 3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랜 기간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가 1월 18일 통일연구원과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은 북한 내 주요 파벌 간의 이익을 위해 덮게 역할을 하는 임시적 인물”이라며, “김정일이 현재 정권을 3~5년도 존속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 것은 세습의 지속 정도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할 것 같다.

둘째, 주체사상의 울타리를 넘어선 중국식 개혁, 개방 추진이다.

1990년대 중반 후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제침체는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식량난은 그 원인을 천재와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선전선동 하였지만, 이제는 설득력도 잃어 체제 이탈자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이 주체의 틀에 갇혀 개혁, 개방을 체제 전복으로 인식하는 한 개혁,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김정일 영결식 날 노동신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유산은 ‘핵(核) 보유’라고 하더니,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전례 없이 김정일 유해를 10회 이상 강조하고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 정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정치사상을 강조한 것이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왕조사회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못을 박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기본적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히 개혁, 개방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가져온 번영을 지켜본 북한의 기술 관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중국식 개방뿐이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형의 남북협력사업의 확대, 한만 국경지대의 중국식 북중 경제특구의 대대적 건설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지식경제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 개혁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한 것은 개혁, 개방 가능성에 변죽을 올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내부의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고 김정은 체제 정착률을 위한 수단으로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20여 년 동안 2인자로서 권력 세습의 기반을 다졌으면서도 권력 승계 이후에도 권력 누수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하였다. 그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진술한 것처럼 내부 결속과 민심 이반을 외부로 호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대남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김일성 3년상을 치른 후부터 시작된 1998년 8월 대포동1호 발사,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4월 대포동2호 발사, 5월 2차 핵실험,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그리고 11월 연평도포격 등 끊임없는 대남 도발을 지속하였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대남 도발에 무게 중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급격한 권력 승계로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집권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 통치권자에게 필요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아버지 김정일의 행보를 답습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12일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와 존재를 다시 세우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김정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은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우리가 보여준 확전을 바라지 않는 한국 내 북 대남도발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김정일 장남 김정남이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요지(五味洋治) 편집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제적 손실 때문에) 한국은 공격을 받아도 확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이러한 한국 내 분위기가 북의 도발 의지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북의 세습 안착을 위한 정치적 필요와 한국인의 외부 충격에 몸을 웅크리는 행태가 상호작용을 할 경우 북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 우리의 대응

2012년은 북한 왕조사회주의 국가 시조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일이 선언한 강성대국의 원년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주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빠른 안정을 찾도록 국제 공조로 도와야 한다. 이로 인한 한국으로 유입되는 대량 탈북자, 북한 내 희생자 구조 및 구원 등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선택할 경우에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비용 분담 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야 한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는 되어야 남북 통합 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총선, 대선 정국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와 사회 분열과 반목, 북 도발 시 확전에 대한 두려움 정서, 미국의 대선 정국 돌입으로 인한 대외 개입정책의 약화 등이 북의 도발을 유혹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대남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군에게 국가의 틀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보호하도록 지원해야 할 소이가 여기에 있다. 또한 군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전 역량을 집중하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의 다양한 대남 도발 양상을 매트릭스와 하여 철저히 대비하면서 북에는 도발 시에는 얻는 것은 없고 멸망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국방장관이 지휘서신1호로 명령한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대응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맹국 미국과는 제도적인 연합작전 태세 구비를 위한 긴밀한 정치 외교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중국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것에 기반을 둔 지역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북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압력을 가하게 하는 등 2중의 외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맺는 말

우리는 북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죽음으로 통일의 호기를 맞았다는 객관적 상황에 놓였으나, 현실적으로 북은 위기를 호기로 만들려는 의지가 충만하고 우리는 호기를 갈등과 분열의 위기로 역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이 첨예한 대립(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전쟁 시에 적의 최고사령관의 급사는 전쟁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적장의 사망은 적의 퇴각이나 패배로 연결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012년 한반도 안보 상황의 향방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최선이라는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라는 부전승 사상을 강조 했다. 그 조건은 첫째, 내부적으로 여야 정치권,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접고 하나가 되는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둘째는 북한에 자유, 민주, 인권, 행복 추구 그리고 인류공영이라는 우리의 혼을 한반도 통일국가의 핵심 가치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전승 요소를 핵심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19기 사관 정 선 구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근원적 문제와 재개정 방향

- 퇴역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중심으로 -

군인연금제도는 전역군인에게 전역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제공함으로써 현역의 충성심 증진과 전역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960년도 제정된 공무원 연금법의 한 조항으로 존속하다 1963년도에 군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법으로 제정되었다.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5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지출증가로 현역 및 국가부담의 기여율을 인상하여 연금을 감액하여 왔으나 국가보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여율을 8.5%로 인상하고 퇴역연금 기준보수를 최종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조정하여 이전에 비하여 현역의 부담을 증대하였고 퇴역 연금을 감액하였다. 2012년에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과 비슷하나 군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연금수준과 지급시기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대 국회의원 선거로 폐기되어 추후 재상정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공무원 연금법은 2010년도에 개정하여 기준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세수당)으로 조정하고, 연금지급률을 과거 50~76%(년당 2%)에서 재직 년당 1.9%로 조정하고 기준보수를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조정하여 연금을 삭감하고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였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산정방식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최근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한 대학교수의 주도로 재정안정화라는 목적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형식을 무리하게 도입하여 현역 및 퇴역군인의 소득을 저하시키고 군인연금제도의 일반적 기능과 특성을 상당히 왜곡시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각종 연금제도와 선진국 군인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노후 및 퇴직 후 생활안정 연금제도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최초로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군인연금법(1963)과 사학교직원연금법(1973)을 제정하면서 공무원 퇴역연금의 기본모형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세 연금제도가 동일한 부담과 급여의 산정방식이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제정 이후 세 연금제도의 변천사를 볼 때,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부담과 연금수준을 조정하면 동일하게 조정하여 왔으며 단지 2000년 개정 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법은 1988년에 시행되어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강제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른 최소 기초생활(최대 은퇴 전 생애평균소득의 40%)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전 국민을 가입자로 상호 노령 및 장애와 같은 불확실한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며 소득재분배 기능과 함께 수입과 지출의 균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지속성을 전제로 재정적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부담에 의한 재원으로 정한 각종 급여의 지출을 부담하는 재정안정화가 최대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하고 급여를 삭감하고 세대 간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기업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1961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이 유동성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퇴직급여의 보장성이 약화되어 2005년에 기업연금제도(퇴직급여보장법)를 도입하여 퇴직급여지급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고용주 부담의 퇴직급여를 사외 기관에 적립하여 기업의 존망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연금제도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여 은퇴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기업의 근무환경과 경영여건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 각 기업은 정년이나 근무여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자질의 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현직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의 수준과 지급시기 등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제도는 시행초기이나 선진국은 역사가 길어 은퇴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을 받아 은퇴 후 생활안정혜택을 누리고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에 개인이 연금저축을 할 경우에 일정수준의 저축금액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부여하여 개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정 사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다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원하는 개인에게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및 법정 퇴직급여제도와 개인연금제도

구 분	근로자	군인	공무원	사학교직원
1층 보장	국민연금법(1988)	군인연금법 (1963)	공무원연금법 (1960)	사학연금법 (1973)
2층 보장	근로기준법(1961년) 기업연금법(2005)			
3층 보장	개인연금(1994, 조세감면 규제법)			

이러한 우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제를 일반적인 틀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가 기초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은퇴 전 생애소득의 30~40%)을 보장하는 1층 기능이면, 기업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연금이 은퇴 후 기본생활(은퇴 전 소득의 70% 수준을 목표)을 보장하는 2차 기능이고, 은퇴 후 기본생활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자의 개인연금보증을 3층 보장기능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기업연금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3층 구조의 연금제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직역연금제도(군인, 공무원, 사학)를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과도한 급여로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비판을 하며 개혁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따라 2010년에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정방식을 준용하고 현직의 부담을 증대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였다.

직역연금제도는 개념적으로 고용주 부담으로 장기근속 은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업연금제도와 같은 성격이며 노동시장에서 기업군과 경쟁하여 필요한 자질의 인력획득 등 인력관리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다. 또한, 직역종사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를 포괄한 1층 및 2층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는 2035년이 되어야 은퇴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이들의 두 연금소득과 직역 종사자의 퇴직연금과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학자들이 단순히 직역연금제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기여금이란 명칭)하는 형태를 보고 국민연금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2.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군인연금제도

선진국은 19세기부터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연금제도와 군 직무특성에 맞는 군인퇴직급여제도

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왔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군인 퇴직연금급여제도는 완전 국가보상으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급여수준도 최소 15년~20년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한 간부에게 노령연금(Pension)이 아닌 퇴직급여(Annuity)를 지급한다. 퇴역급여는 최종보수 또는 최고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38% ~ 75%로 은퇴 후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며 보험 형태인 경우에 가입자(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여 정해진 급여의 지출을 총당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전 국민(가입자)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에 비해 낮은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사회정년인 65세(62세 지급시 감액지급)로 전 국민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미·영·독)의 사회보장제도와 군인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 분	사회 보장제도	군인 퇴직급여제도
기본 개념	개인부담, 고용원과 고용주 부담	전액 국가부담(완전 국가보상)
지급 수준	소득 수준별 기초생활 보장	최종소득에 비례한 기본생활 보장
지급 기준	전 가입자 및 생애 평균소득	최종 기본급여/최고 3년 평균 급여
지급 시기	62세~65세 (노령 연금)	15~20년 복무 후 전역 즉시
지 급 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 평준화	근속비례 : 38~75% (1.875~2.5%/년)
연금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원칙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현역보수연동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군인연금제도는 사회 안정과 국가보상과 같은 기본개념의 차이로 급여의 지급조건과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군인연금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연금지급을 하향하는 지급률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개정방향은 근본적으로 군 직무특성을 반영한 국가보상의 개념에서 군인 정년을 제한된 연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최종보수에서 최고 3년 평균보수로 조정하고 30년 근속자에게 75%를 지급하되 그 이전 전역자에게 1년 미달 시 1%포인트씩 지급률을 삭감 하였으나 이것도 30년차가 되면 원상복귀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은 조합주의 국가로 중앙 공무원 공제조합에서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과거 미군과 같은 45~55세 조기정년제를 53~55세

로 연장하고 공무원 정년인 60세 이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이들 전원을 정부가 취업시키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국가재정부담의 증가로 1992년에 연금의 상한을 조정하였으며 군인도 공무원과 같은 정년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30년 근속 시 최대 연금지급률(75%)을 적용하였으나 40년 근속 시로 조정하였다. 태국은 종신복무제이기 때문에 군인의 최대 연금지급률을 70%로 하향하여 전역군인의 생활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은 군인연금제도를 최종 보수 또는 최고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지급률을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외국의 군인 퇴직연금제도의 개선 사례

국가	개정연도	주요 개정 사항
미국	1980, 1986	최종→최고 3년 평균보수, 30년(75%) 미만 년당 1% 감액
독일	1992	연금 지급률 하향(2.143→1.875%/년), 최대근속기간 연장
일본	1986	명예퇴직수당제 도입(60세 반영), 정년연장, 완전 취업 알선
태국	1997	최대 지급률을 하향조정 (80%→70%)

선진국의 군인퇴직급여제도는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자질의 군인을 노동시장에서 기업과 공무원과 경쟁하여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이 발생 시 군 경험의 전역군인을 평소 훈련과 소집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과거 전쟁경험을 통하여 젊은 군인의 필요로 조기정년제도의 적용의 불가피성과 이로 인한 전역군인들에게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목적과 기능을 한다.

군인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구분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1	군이 노동시장에서 군인획득에 타 직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2	군 계급구조상 조기 전역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유사시 경험을 지닌 전역 군인을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군인 퇴직급여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국가보상 개념으로서 기업의 퇴직급여제도와 같이 은퇴 근로자들에게 은퇴 직전 소득에 따라 형성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의 군인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이동성이 적고 전투 수행자가 아닌 공무원의 연금제도와 차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군인이 전시에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과 희생을 하도록 한 것이다.

3. 군인의 전역실태와 연금수급자의 생활실태

2010년도 전체 전역자 17,534명 중 18.4%인 3,225명만이 연금수급권자이며 대다수인 81.6%가 퇴직일시금 지급자로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집단이다. 이러한 퇴직일시금 수급자를 위하여 2008년도에 연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희망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평균 33명 정도만이 신청하고 있다. 연계 신청자는 퇴직일시금의 10%~60%인 퇴직수당만을 받아 근로자의 퇴직일시금보다 적고, 연계를 원하지 않는 대부분 전역자는 전역 후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하게 되어 노후생활 보장성이 근로자보다 아주 불리하다.

연금수급권을 가진 전역자는 평균근속연수가 29.4년이고 평균연령이 51.2세로서 자녀양육비용이 최대인 생애주기에 전역되고 있다. 특히, 소령의 경우에 연령정년이 45세이기 때문에 중령으로 진급을 못하면 45세에 전역되며 이러한 소령 전역자의 비율은 37.6%이다. 이들은 평균근속연수가 22.2년이며 평균연령이 44.6세로서 생활유지를 위하여 사회 재취업이 절대로 필요하나 사회취업에 필요한 지식의 미비로 취직도 어렵고 연금도 191만원으로, 가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유사하게 발생한다.

퇴역연금수급자는 현직 시 2년 주기의 보직이동과 사회와 유리된 격오지 및 비상대기 등 군의 직무특성으로 20년 이상을 근속하였음에도 주택마련이나 재산형성이 아주 미약한 편이다. 2002년도 국방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은 2.9억 원으로 주택보유율이 77%이며 평균 32.6평에서 거주하고 있어 군 복무 시 재산형성을 할 수 없어 전역 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도 퇴역연금 및 유족(퇴역)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도시가계의 평균생활비에도 아주 못 미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전체 퇴역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은 227만원이며 55세 미만인 9.6천명이 155만원~217만원을 수급하여 자녀의 학비부담이 최고인 생애주기에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퇴역연금이 최대인 56~65세 미만 집단도 연금을 253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 현직 시 소득에 따라 형성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유족(퇴역)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은 133만원으로 도시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55세 미만 유족연금수급자가 450여 명이 있어 이들은 아직도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144만원 이하의 연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유족연금이 최대인 집단은 95세 층으로 145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족들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1년 말 퇴역 및 유족(퇴역) 연금수급자 현황(명, 만원)

구 분		~45세	~55세	~65세	~85세	95세~	전 체
퇴역 연금	인 원	431	9,265	23,624	13,074	1	63,309
	평균연금액	155.5	217.7	253.6	198.6	203.8	227.3
유족 (퇴역)	인 원	59	394	1,620	5,235	3	12,845
	평균연금액	110.3	144.1	141.6	137.4	125.3	133.8

이러한 점에서 군의 조기정년과 주기적 보직이동과 같은 인사제도의 특성으로 인한 전역 후 취업곤란과 부양가족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부담만을 중시하여 부담 증대와 연금급여감소를 위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정년제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안을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답습하면 군 특성에 적합한 군인연금제도로 발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4.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평가와 재정립 방향

군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그 목적과 기능이 아주 다른 것으로서 국가보상의 퇴직급여제도이다. 현역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제도가 전역한 퇴역군인에게 1층 및 2층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군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능과 최근 시행한 기업연금제도의 기능을 포괄한 것이며 선진국과 같은 군인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군인연금제도는 국가가 군의 조기정년제와 직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의 적정한 수준을 정립하여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평시에 충성심과 헌신적인 강한 군대를 유지하여 유사시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기업연금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비전문가인 학자가 주장하는 사회보험원칙인 수지

상등을 위한 재정안정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8대 국회에 상정하였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평가하여 군 직무특성을 반영한 일반적 군인연금제도로서 선진국과 같이 독자적 국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군인연금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혁신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또한 19.5년 미만 전역자에게 기업퇴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여섯 개 주요사항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세 번째 사항인 연금 지급기준과 연금산정방법, 여섯 번째인 소득상한제 그리고 다섯 번째인 유족연금 지급률조정이며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 기여율 인상이다. 이 사항들은 국민연금제도 형태도 아니고 퇴직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부담의 기업연금제도(확정 급여형)의 형태도 아닌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재정만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들이다.

2012년 군인연금법 주요 개정 제안 내용

개정 항목	현 행	개 정 안
① 기여금/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월액 * 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 과세대상 수당) - 과세대상수당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② 기여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월액의 8.5% * 최대 33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월액의 5.5→6.7('11년)→7.0%('12년), * 33년 초과자 기여금 납부
③ 기준보수/지급률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0.5 ~ 0.76) * 최대 33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 * 최대 33년 적용 * 지급액은 현행 수준 유지(보정률)
④ 연금인상 및 정책 조정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3년 주기±2%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인상률 ('17년 정책조정 폐지) * 3년 주기 보수/물가인상률±3% 차액조정
⑤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역연금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역연금의 60% * 단, 18세미만 및 장애 자녀 시 : 70%
⑥ 소득상한제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상한액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

첫 번째 문제인 기준보수 및 지급률 변경을 평가하면, 연금산정의 기준보수를 최종 3년 평균에서 현역 시 평균기준소득으로 변경하고 보정율을 도입하여 기존 연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역 시 평균기준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고용주 보상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 재개정은 최종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년 복무 전역자에게 최종 3년 평균소득의 50%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30년 복무 전역자에게 70%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선진국형 국가보상의 전역군인 퇴직급여체계로 되어야 한다. 특히 생애평균기준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급여산정방식(가입자 평균소득도 반영)이기 때문에 보상개념의 퇴직급여방식이 아니다.

둘째 문제인 소득상한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서 소득 최상위집단의 노령연금을 제한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인 데 이를 직역연금제도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포장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 보상의 퇴직급여가 최종소득 기준의 기본생활유지란 일반적 원칙에 위배되고, 제도적으로 일부 최상위층 전역자의 퇴역연금을 강제로 삭감한 것으로서 자발적 개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맞지 않고, 타 전역자와 적용개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문제인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군인 가족이 군 구성원의 하나로 주기적인 이사와 비상근무 등 가족의 희생(정착 불가능, 자녀 빈번한 전학, 재산형성 불가능, 긴장)과 군의 45세 ~ 56세 조기정년제와 아주 적은 유족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군 직무특성으로 인한 군인 가족의 희생을 고려하여 현재 수준의 유족연금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문제인 현역 기여율의 인상은 현역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과 같으며 재정안정화란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소득의 4.5%를 기여금으로 각각 납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퇴직급여를 전액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방안은 선진국과 같이 현역 기여금을 없애 전액 국가보상제로 하거나 현재와 같은 기여금 부담률을 유지하고 기업의 퇴직충당금에 해당하는 비율(8.75%)을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인연금법에서 19.5년 미만 전역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연계자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의 10~60%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현 제도는 기업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퇴직급여에 비하여 아주 적다. 기업근로자는 퇴직 시 재직기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업의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재개정은 기본적으로 19.5년 미만 전역군인에게 기업근로자와 같이 1년 근속당 1개월을 반영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현역 시 본인과 국가가 기여한 기여금의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이를 연계퇴직연금으로 지급하도

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야 전역군인의 사회취업의 불리함을 차치하고라도 기업 근로자와 퇴직급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

기존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사회보험도 아니고 군 직무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보상도 아니며 단순한 생각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억지로 짜깁기한 혼돈스러운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재조정 방안을 반영하여 1963년 이후부터 유사하게 변화되어 온 공무원연금법과 연결고리를 끊고 군 직무특성에 부합한 일반적 모형인 선진국형 군인연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국가는 사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자질의 군 인력획득 경쟁성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전력의 주체인 현역 및 예비역들에게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건한 군대로 국가안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연금제도는 군 직무특성의 국가보상의 퇴직급여로서 장기근속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직업의 그것과 다르며 특히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험의 재안정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선구 외 2인, 2000년대를 대비한 군인연금제도, 한국국방연구원, 1999
- 정선구 외 2인, 『군인연금의 성격과 발전』 한국국방연구원, 2000
- 정선구 외 1인, 외국 군인연금제도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2000
- 정선구 외 1인, 20년 미만 복무한 전역군인의 노령연금 보장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4
- 정선구, 외국 군인연금제도의 연금제한제 특성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2005
- 정선구, 2000년도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7
- 미국 국방성, Military Compensation Background Paper 5th Edition, 1996



27기 사관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무인 통합 전투기 개발방안 연구

1. 서론

근 미국의 한 저명한 방산 칼럼니스트는 F-35 프로그램을 이제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계속 치솟고 있는 F-35의 개발비는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개발 과정에서 다국적의 다양한 소요군의 참여로 인한 요구 성능에 대한 무분별한 수정 강화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F-X 도입을 코앞에 둔 우리에게도 심각한 우려 사항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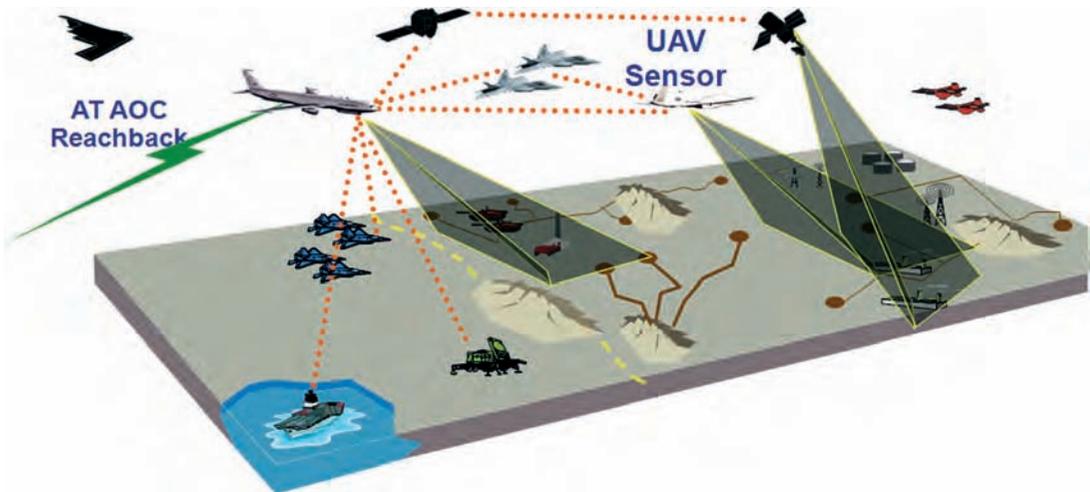
위의 논란이 어느 정도의 진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F-35와 같은 고성능 첨단 전투기의 경우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 전투기 시장에는 성능이 좀 낮더라도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체 전투기 소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대체 전투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성능과 운용개념을 갖추었을 때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현재 KF-X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도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전투기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전장 패러다임 변화

첨단 과학기술의 변혁은 국방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걸프戰, 아프칸戰, 그리고 이라크戰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반의 전장 환경으로 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로 전장공간의 확대를 통해 효과중심의 정밀타격작전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단기간 내 적 전쟁수행체계 마비가 가능한 신속결정 작전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5차원의 전장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센서(Sensors)를 통해 전장 가시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와 병행한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통제체계 구축으로 공통된 전장상황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슈터(Shooters)의 동시적·통합적 운용을 통해 전력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복합체계 운용환경이 도래할 것이다.



복합체계 운용환경

이러한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항공력 운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미래전장에서도 항공력 운용의 중요성은 불변할 것이며,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선진국들의 무인전투기 개발동향을 볼 때 2015년경에는 무인전투기의 출현이 가시화됨으로써 전투기 전력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인전투기의 출현이 곧바로 유인전투기 1:1 대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인전투기 개발소요 기술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컨대, 향후 약 30년~40년간은 유·무인전투기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혼합

운용되는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인전투기는 개전 초 저위협 지역에서 무인기를 통제하며 제공임무 및 긴급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고, 적 방공망이 무력화된 이후 전략목표 타격을 위한 대규모 공격임무에 투입되게 될 것이다. 반면 무인전투기는 개전 초 고위협 지역에서 정찰 및 SEAD(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임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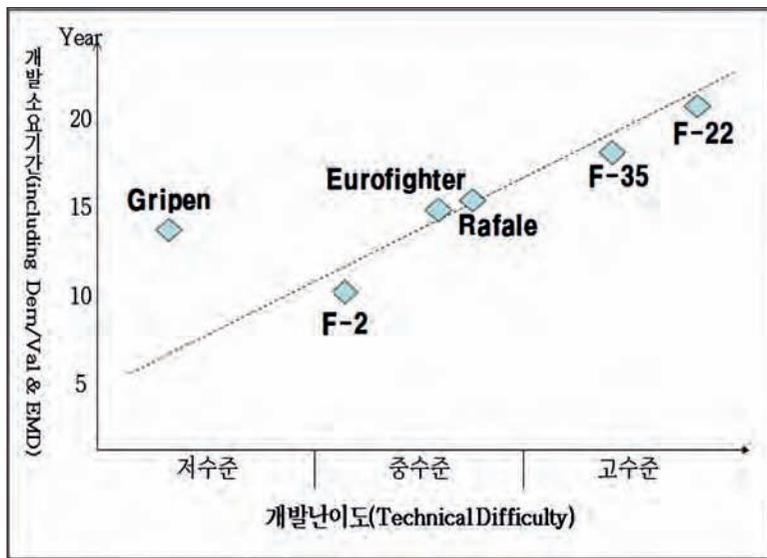
유·무인전투기 혼합운용 환경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미래전장 환경 변화와 전투기 전력운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요구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미래 항공력의 중심전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3. 차세대 전투기 개발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발상전환

이제까지 항공 후발국들의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선진국의 첨단 전투기를 모델로 따라가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이들 전투기의 요구능력도 미국의 F-35나 F-22에는 못미치지만 F-16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전투기로는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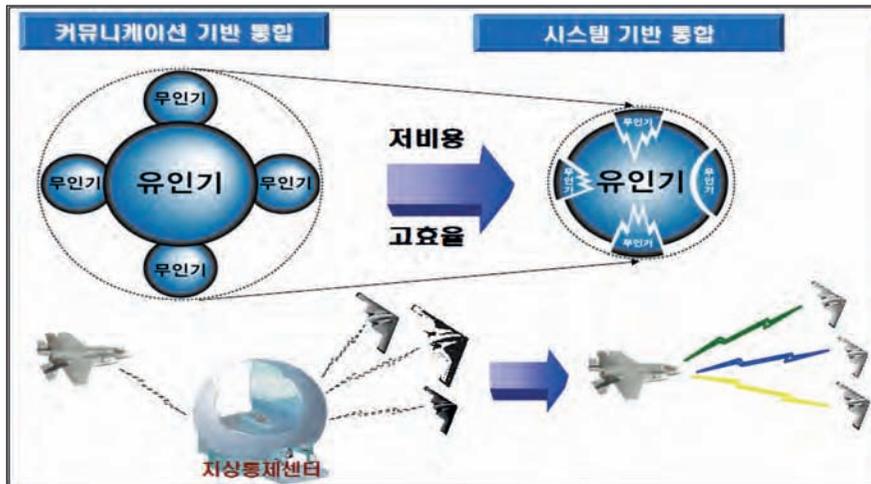
먼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는, 첫째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해야 하며, 둘째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셋째는 개발비용 및 기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는 발상전환의 출발점은 유인전투기 개발만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기존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탐색개발 착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기간을 거쳐 최초 전력화될 시점은, 개발난이도에 따른 선진국들의 전투기개발 기간(평균 13~15년)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빨라야 2025년경으로 추정된다.



선진국 전투기개발 기간

이 시점이 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유인기와 무인기가 혼합 운영되는 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미 개발된 4/5세대 유인 전투기들은 새로 개발된 무인전투기와의 유기적 운용을 위해 통신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개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 발상전환의 핵심이 존재한다. 즉 차세대 전투기는 설계 단계부터 유·무인전투기의 시스템적 통합을 반영한 개발을 한다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유·무인 전투기 연계방식은 지상통제센터를 중계소로 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통합이라고 한다면, 유·무인전투기를 동시에 설계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는 시스템 차원의 통합으로서, 저비용·고효율의 복합체계로 개발이 가능한 방식이다.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 개념

혹자는 이러한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 개념이 “비용이 더 들고 기술적 위험도가 높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한 방안 검토를 통하여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4.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 방안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 방식은, 설계 단계부터 유·무인전투기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핵심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동시 개발하는 방식이다. 즉,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무인전투기의 공통적·핵심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지휘통제, 자동항법, 센서통합, 데이터링크 분야 등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상호 적용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작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무인전투기가 스텔스 형상으로 고위협 임무수행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유인전투기는 저위협 임무특성을 감안하여 스텔스 성능 수준을 ‘Moderate Stealth’로 조정함으로써 스텔스 관련 개발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인전투기 전력화와 연계된 무인전투기 전력화 추진은 ‘1단계 정찰 및 대공제압(SEAD)임무’, ‘2단계 공대지임무’, ‘3단계 공대공임무’ 등으로 점진적 능력 확대를 통한 3단계의 진화적 전력화를 추진한다면 기술적 리스크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유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e Stealth 형상 • 초음속 • 전장제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alth 형상 • 아음속 • 센서 시스템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협下 무인기통제 • 긴급표적 타격임무 • 대규모 정밀타격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협下 SEAD임무 • 장기체공 전술정찰임무 • 소규모 정밀타격임무
형상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 방식

한편, 일각에서는 “유인전투기 개발 단일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벽차고,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인전투기 개발과 연계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그간 유인기에 치중한 전투기 개발을 해 왔기 때문이며, 무인기와의 시스템적 통합을 고려한 설계는 미처 착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무인전투기 개발 프로세스

따라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을 최초로 이뤄낸다면 이는 전투기시장의 미개척 분야를 선점하게 되는, 즉 세계 전투기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5. 결 론

이러한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될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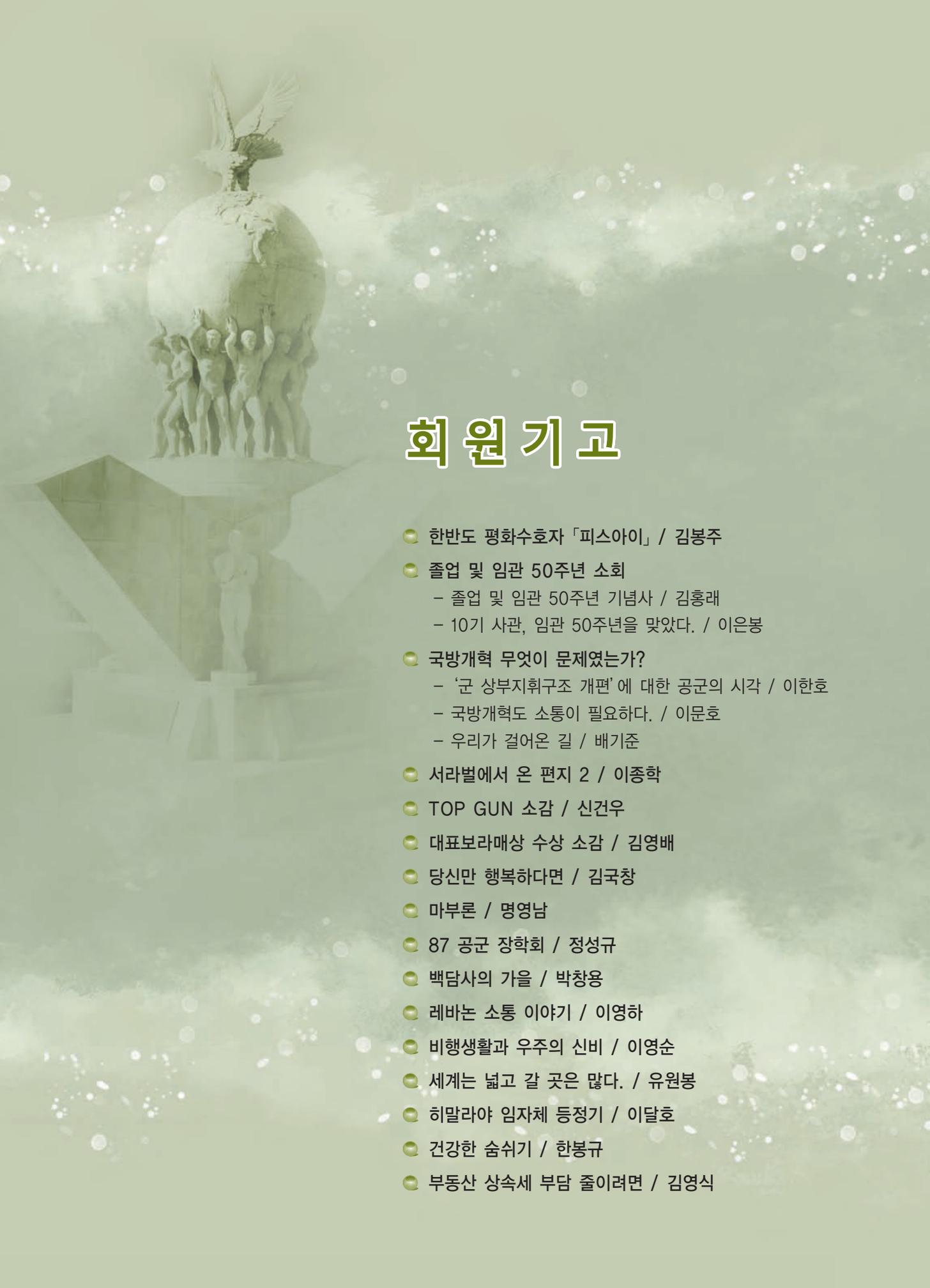
첫째, 전투기시장의 블루오션 전략으로 시장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F-35와 F-22같은 5세대 전투기로 미래 전투기 시장의 독점적 석권을 자신하고 있으나 경제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국제 전투기 시장에 상당한 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무인 통합전투기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는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경쟁력을 지닌 틈새시장의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둘째, 개발비분담이 가능한 국제 공동개발이나 공동소요로의 사업 추진이 용이하므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얼마 전 공군회관에서 열린 미래 전투기 세미나에서 유럽 최대의 항공사인 EADS는 필자가 발표한 유·무인전투기 통합개발 방안이 독일 공군이 수년간 연구한 차기전투기(FCAS) 개발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며, 양국간 공동 ROC 개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셋째, 유인전투기의 “Moderate Stealth” 개발로 “Full Stealth”대비 개발비용과 기술적 위험을 감소시키며, 무인전투기의 3단계 진화적 개발로 기술적 위험 해소는 물론 미래 무인전투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 공군력 건설과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KF-X 사업의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의 시장성과 천문학적인 개발비 투자 타당성 문제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유·무인 전투기 통합개발 방안이 새로운 발상의 단초가 되어 T-50의 개발 성공으로 다져진 국내 항공산업이 제2의 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회원 기고

- 한반도 평화수호자 「피스아이」 / 김봉주
-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 김홍래
 - 10기 사관, 임관 50주년을 맞았다. / 이은봉
-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였는가?
 -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공군의 시각 / 이한호
 - 국방개혁도 소통이 필요하다. / 이문호
 - 우리가 걸어온 길 / 배기준
- 서라벌에서 온 편지 2 / 이종학
- TOP GUN 소감 / 신건우
-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 김영배
- 당신만 행복하다면 / 김국창
- 마부론 / 명영남
- 87 공군 장학회 / 정성규
- 백담사의 가을 / 박창용
- 레바논 소통 이야기 / 이영하
- 비행생활과 우주의 신비 / 이영순
-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 유원봉
- 히말라야 임자체 등정기 / 이달호
- 건강한 숨쉬기 / 한봉규
- 부동산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 김영식

한반도 평화수호자 『피스아이』



38기 사관 김 봉 주
51전대 항공통제대대장

1. 서 언

효과에 기반 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화두인 현대전에서 중심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조기경보의 중요성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적의 침투징후를 조기에 경보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면 전투효과는 그만큼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이를 위해 일찍이 수동방공체계를 구축하였고 1985년 자동화체계로 발전시켰으며, 2010년 MCRC 성능개선과 더불어 LINK-16 전술데이터링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상방공통제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상레이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고도 및 원거리 탐지범위가 다소 제한되고 유사시 생존성이 문제될 수 있다. 공군은 이처럼 지상통제체계의 내재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동통제체계 기능제한시 항공작전 지속 보장수단을 제공하며 원거리 전력투사능력 확장을 통한 자주적 조기경보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약 2조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E-737 4대를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고는 창군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을 30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숨은 선배님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본고의 순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계의 기본이해를 위해 우선 개념과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이어서 E-737 체계의 구성 및 특성, 전력화 진행 및 작전운영 현황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1) 2차 세계대전 시 영국이 체인홈레이더를 설치하여 800대의 전투기로 독일의 2600여대의 전투기를 섬멸한 사례와 1982년 레바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장여건에서도 E-2 조기경보기 운영으로 80대의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례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2.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념 및 발전과정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조기경보기와 통제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항공기에 감시레이더를 장착하고 공중에서 표적을 탐지, 식별, 추적²⁾하여 조기에 적의 공중위협을 경보하는 공중플랫폼이 조기경보기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조기경보기의 공중감시 기능에 항공기통제 및 전장관리 등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E-3와 E-767 기종에 한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며 무기체계를 대변하는 명칭은 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휘관회의에서 표준명칭을 다시 제정할 예정이다.

‘피스아이(Peace Eye)’는 한국공군이 사용하는 통상명칭이며, E-737은 무기체계 종류와 임무를 구분하는 고유명칭이다. 동일 E-737 기종을 운영하는 호주는 ‘웨지테일(Wedge Tail)’, 터키는 ‘피스이글(Peace Eagle)’을 통상명칭으로 사용한다. 참고로 E-3³⁾기종은 모든 운용국가가 ‘센츄리’라는 통상명칭을 사용한다.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조기경보기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의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한 대책으로 TBM-3W Avenger에 탐지레이더를 탑재한 것이 그 효시라 하겠다. 이러한 조기경보기는 미 해군에 의해 E-1, E-2(호크아이)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고의 주제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 공군 등 6개국의 E-3, 한국·호주·터키의 E-737, 스웨덴의 에리아이-2000, 이스라엘의 펄콘-G550, 소련의 TU-126(Moss) 및 IL-76(Mainstay), 중국의 KJ-2000 등이 있다.⁴⁾

3. E-737 체계

가. E-737 체계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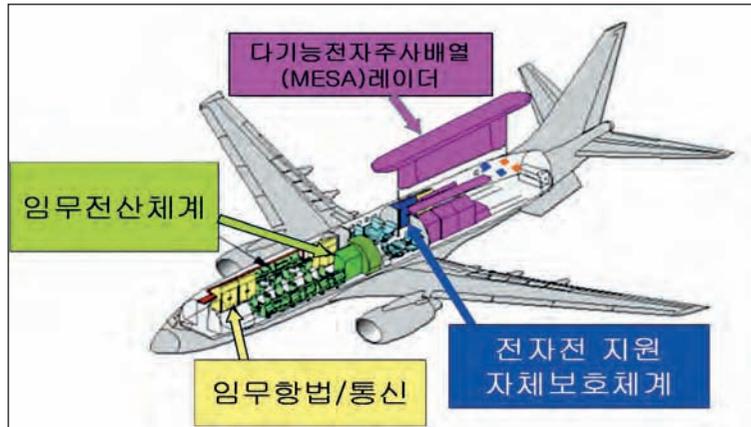
E-737 체계는 크게 공중임무체계와 지상지원체계로 구성된다. 공중임무체계는 B-737 상용항공기를 본체로 다기능전자주사배열 레이더, 적아식별레이더, 임무전산체계, 전자지원책, 항법

2) 공군에서는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중감시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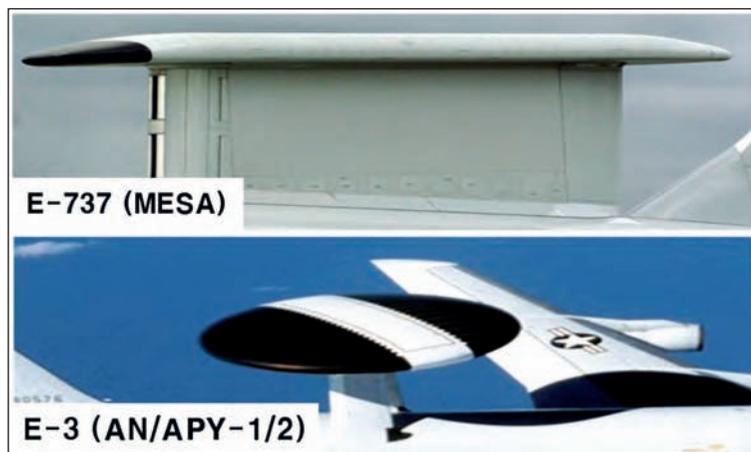
3) E-3기종은 B-707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AWACS로써 미국(33), 나토(18), 영국(7), 프랑스(4), 사우디아라비아(6)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B-767 플랫폼 기반의 AWACS는 고유명칭을 E-767로 사용한다.

4) E-2C,D도 일부 항공기통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장비, 통신장비, 전자전지원자체보호장비 등의 군용장비들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E-737 레이더 안테나는 기체 상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지느러미 모양의 양 측면 레이더와 그 상부에 위치한 전후방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다. 미 AWACS나 지상방공관제레이더는 E-737과 유사한 배열레이더이지만 기계식 회전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탐지범위와 탐색주기가 균일하다. 반면에 E-737 레이더는 항공기에 고정된 안테나를 채택하여 송신출력 범위 내에서 탐지범위와 탐색주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보다 신속한 표적탐지 및 추적, 그리고 다양한 레이더 모드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레이더 운용모드는 일반모드, 강조모드, 집중모드로 구분된다.



일반모드는 탐지거리와 탐색주기가 일정한 모드로써 미AWACS와 지상방공관제레이더에서도 운용되는 모드이다. 강조모드는 특정위협지역에 대해 탐지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지역은 탐지범위를 축소 운용하는 모드이며, 집중모드는 특정위협지역에만 빔을 송신하여 최대탐지범위를 제

공하는 모드로써 두 가지 모드는 E-737만이 운용가능하다. 특히 레이더 운용모드와 별도로 E-737 레이더는 특정 항적 또는 특정 섹터에 신속한 탐지가 가능하도록 재방사빔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레이더의 모드운용은 제한된 송신출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E-737 레이더체계는 안테나를 통해 공중탐색모드와 해상함정탐색모드의 전자기파를 동시에 방사한 다음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콘솔화면에 전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1차 레이더자료라고 한다. 동시에 모든 우군기와 민항기에 장착된 적아식별장치를 이용하여 콘솔화면에 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2차 레이더자료라고 한다. 또한, E-737은 기체외부 전후좌우에 부착된 전자지원책 센서를 통해 타 무기체계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콘솔화면에 스트로브 형태로 시현시키고 해당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의 3가지 센서에서 획득된 자료들은 임무전산체계인 대용량 컴퓨터 서버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 지형지물이나 구름에 의해 반사되는 신호들은 제거하고 실제 공중이동물체만을 선별하여 敵我를 자동식별한 다음, 콘솔에 항적 식별부호 형태로 시현해 준다. 이것을 자동 항적 대조/설정/식별기능이라 한다.

통신장비는 다수의 HF, U/VHF, 위성통신망, 전술데이터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U/VHF는 항공기 통제 및 지상과의 협조 주파수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신망은 가시권 통달거리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항공통제사는 실시간 통신상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가시권 통달 거리를 연장하고 연합작전을 위해 설치된 위성통신은 미군위성을 사용하는 음성전용 통신망이다. 또한 E-737 체계는 전술데이터링크로써 LINK-16과 11 체계를 구비하고 있어 동일한 능력을 구비한 공중 및 지상체계 등과 공중상황정보 교환 등 연동작전이 가능하다.

기타 장비로는 민항기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항법장비와 전자전지원자체보호장비, 공중수유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지상지원체계는 임무수행 필요자료를 생성하고 임무결과를 분석, 재 시현 및 브리핑을 지원하는 임무지원체계와 항공통제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임무훈련체계(시뮬레이터),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력 및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유지보수지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스아이 특성

다음은 피스아이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 중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피스아이의 도입이 한반도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첫째, 생존성이다. 고정된 지상방공관제체계와는 달리 피스아이는 기동능력이 있으므로 적 위협범위 밖에 위치하여 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전자전지원자체보호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자체보호가 가능하다. 둘째, 신속성이다. 약 3만 피트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지구곡률 및 지형차폐로 인한 지상레이더의 탐지범위 제한을 극복하여 저고도,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공중 위협을 조기에 경보하고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다양성이다. 피스아이는 MCRC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임무종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콘솔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임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스아이는 기동성이 있으므로 월드컵, 핵안보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시 주변공중감시 및 조기경보 임무, 카트리나 또는 대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시 현장 탐색구조통제임무, 한국영공 밖 상황발생시 국익수호를 위한 공중 및 해상통제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자주성이다. 피스아이의 전자지원책에 의한 식별능력은 항적식별의 자주성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스아이 도입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중심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자산 보유를 의미한다 하겠다.



다음은 미 AWACS와 차별성에 대한 고찰이다. 첫째, 경제성이다. E-737 체계는 미 AWACS와 달리 저중량 안테나를 탑재하고 소프트웨어 자동화로 정비사, 통신사, 항법사 등의 지원병력 탑승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B-737급 소형 플랫폼을 채택한 결과 초기 획득비용과 운영유지비가 절감되어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효율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무전산체계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로 자동 항적대조/설정/추적/식별이 가능하여 적은 콘솔과 병력으로 미 AWACS와 대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융통성이다. 미 AWACS와 달리 E-737 체계는 다기능 전자주사배열 레이더 운용으로 특정위협지역에 대한 탐지범위 확대와 신속한 표적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넷째, 생존성이다. 미 AWACS와 달리 전자전지원자체방어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E-737 체계는 미 AWACS와 비교시 자동화 및 소형화에 의한 저 비용 고 전투효과
 과의 공중지휘통제자산이라 하겠다.

다. 작전운영

E-737 항공기의 내부는 조종실, 작전실, 휴게실, 장비실로 구분되어 있다. 조종실은 정/부조
 종사가 탑승하며, 필요시 보조좌석을 이용하여 추가로 탑승할 수 있다. 작전실은 00개의 콘솔로
 구성되어 있다. 콘솔은 동일한 기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임무지휘관, 무기배정장교, 항공통
 제사, 공중감시장교, 공중감시수, 전자전식별장교 등이 사용한다. 휴게실은 0개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무교대병력, 교육훈련인원, 기타 필요인원이 탑승할 수 있다. 장시간 비행을 고려하여
 간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포트 등이 구비되어 있다. 장비실에는 각
 종 장비 캐비닛들이 설치되어 있다.

작전요원은 『비행 전 준비-휴식-비행-휴식-비행 후 분석』의 임무수행 주기를 따른다. 비행
 전 준비는 임무지원체계를 활용하여 비행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에 자료를 입
 력하여 저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임무계획시 필요한 내용은 비행계획, 통신망운영계획, 레
 이더 운영 세부사항 등이다. 이어서 저장장치를 지상 임무훈련체계에 적용하여 사전 훈련을 실
 시한다. 최종 점검완료 된 저장장치를 항공기에 장착하고 비행을 실시한다. 비행 중 모든 자료는
 녹화되어 저장장치에 저장되고 비행 후 임무지원체계에서 분석을 통해 미흡사항을 차기 임무에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비행 전후 작전요원의 팀별·전체 브리핑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비행 전후 각각 12시간은 작전요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항공통제사는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장비들을 작동시켜야 하고 각 콘솔별로 항공통
 제사가 항공통제 및 정보협조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시 조종사와 항공
 통제사의 협조하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조종사와 항공통제사간, 그리고 항공
 통제사간의 CRM이 매우 중요하다.

피스아이는 특정지역에서 평시 일일 수회, 유사시는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 감시구역
 은 E-737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무종류는 앞서 살펴본 가능한 다양
 한 임무 중 공중임무명령서에 의해 하달된 임무를 수행한다. 피스아이는 1회 비행시 장시간 임
 무를 수행한다. 즉, 인천공항에서 하와이 정도까지 비행하는 시간동안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긴
 급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 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공통제사
 선발시 인성검사와 공중근무자에 적합한 정밀신검을 실시하고 있다.

4. 사업 및 전력화 진행경과

가. 소요결정에서 1호기 인수까지

피스아이 도입사업은 1985년 소요가 결정되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2006년 방추위에서 E-737 체계로 기종이 결정되었다. 동년 보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항공, LIG넥스원, 휴니드, 대한항공 등 국내업체가 협력업체로 참가하였다. 2008년 전 국민공모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라는 의미의 Peace Eye라고 명명하였다. 2009년 상용항공기인 보잉-737 항공기에 전자식 레이더와 임무전산장비 등을 장착하는 체계조립 기간을 거쳐 2010년 6월 최초비행을 실시하였다. 공군은 2010년 1월부터 운영된 30단 피스아이 작전운영팀을 확대하여 3월 창설준비대를 구성하였고 2010년 10월 16일에 제51전대를 창설하여 E-737 체계 전력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나. 1호기 수락검사

E-737 사업은 해외구매사업으로 기종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는 종료되었으나 개발업체 주관 연구개발수준의 시험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규정과 계약의 범주에서 공군은 2010년 수락검사단을 구성하였다. 단장은 51전대장이, 총괄은 항공통제대대장이 맡고 개발시험평가와 유형시험평가를 주관하는 계획기술팀과 한국작전환경데모와 국내수락검사를 주관하는 체계검사팀으로 구성하였다. 계획기술팀은 연구분석단 시험평가과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체계검사팀은 51전대를 중심으로 작사, 30단, 37전대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였다.

수락검사단은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업체주관 1호기 개발시험평가(DT&E)와 유형시험평가(TT&E)를 참가하여 1,000여 개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와 사전검증, 분석자료 평가 후 전 항목 요구사항 충족판단에 따라 1호기가 2011년 8월 1일 김해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수락검사단은 6회의 한국작전환경데모 비행과 7회의 수락검사 비행을 통해 계약상 기능점검을 협상에 의해 성능점검 수준으로 수행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선소요를 업체 무상지원으로 이끌어 내어 성능개선효과를 달성하였고, 2011년 9월 21일 국방장관, 국회국방위원장 및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을 모시고 1호기 인수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다. 전력화 준비

신기종 도입에 따른 전력화 준비의 어려움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창설준비대에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창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창설 이후 전력화에 필요한 상급부대 및 전대 규정/교범 등을 수립했다. 그 가운데 미7공군과의 워킹그룹 운영 및 호주와의 정보교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험평가와 수락검사를 마치고 비로소 운영부대의 입장에서 운영경험이 없는 가운데 업체로부터 장비작동법 위주의 지상교육만을 수료한 초도교육요원이 자신이 교관이 되어 진행된 비행위주의 작전가능교육은 큰 도전이었다. 그나마 계약에는 없었으나 추가로 반영된 보잉조종사를 활용한 정예화훈련과 업체 시험평가시 한국공군 통제사 3명의 비행참여가 작은 돌파구가 되었다.

5. 결 언

이상과 같이 피스아이는 현존하는 최첨단 공중조기경보체계이다.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계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기체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종종 신무기체계 도입시 로봇 태권브이를 꿈꾼다. 그러나 피스아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의 요구에 맞게 제작되고 기능하는 무기체계이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지상을 향해 사각으로 방사되는 전파의 특성과 펄스도플러 제한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피스아이 탑재 레이더는 일정크기 이상의 공중이동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탑재레이더의 특성상 송신출력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체계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운영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성능개선 노력이다. 최첨단 무기체계는 소프트웨어가 생명이고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획득사업초기단계부터 성능개선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호주의 사례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식별체계, 지상 지휘통제기구와의 위성채팅 체계,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등은 계약단계에서 최저비용요구조건총족 원칙에 의해 제외된, 당장 추진이 필요한 주요 성능개선 항목들이다. 중·장기적으로 레이더 및 임무전산체계 개선, UAV를 활용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 적극참여이다. 30여 년간의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선형 운영국들은 매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포럼 개최와 교환방문, 교환근무 등

을 통해 긴밀한 정보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후발 운영국가인 우리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운영 노하우를 조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주임무를 수행하는 항공통제사에 대한 적정 항공수당 지급과 진급, 교육, 보직 관리시 균등한 기회부여이다.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수인재들이 소수인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책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첨단 전략무기체계를 운영하는 작전요원이 사기충천한 상태에서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중요한 지휘관리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각오를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사업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51전대에 우수자원들을 보내준 30단의 리더십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MCRC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탄생된 우리부대는 부대원간 형제지정으로 혼연일체 되어 역사 속에 길이 남는 부대전통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강한 전사양성과 작전운영태세를 완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국내유일 세계제일 항공통제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0기 사관 김 홍 래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신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계절에 10기 사관의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유병구 회장님과 교장 김영민 장군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살아오셨던 동창회 회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0주년·20주년·30주년 행사를 갖는 후배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선배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해 주기위해 이처럼 능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해준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1958년 3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입교한 지 어느덧 5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의 4년간의 생도생활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용이라는 교훈아래 호국의 간성으로서 갖춰야 할 조국에 대한 국가관과 군인으로서 사생관과 명예를 배웠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첫째로 사관학교에 입교했던 당시 국민소득 천불 미만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후진국에 원조를 주는 국민소득 2만 4천불의 세계 15위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도 미국이 무상으로 지원해준 항공기로 운영하였다가 우리의 예산으로 구입한 최신에 전투기인 F-16, F-15전투기와 AWACS 등 첨단 무기체계 등으로 무장된 막강한 공군으로 발전하였고 우리 손으로 최신에 훈련기인 T-50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양상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병력의 숫자가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소총위주의 보병전투에서 지금은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공군과 해군력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GULF 전은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승리, 종결시키는 획기적 변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공군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력이 해/공군력으로 대변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위와 국력의 선양, 발전입니다.

6·25때 들어보지도, 알지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의 국위가 높아졌으며, 작년도 G20 정상회담과 금년의 핵 안보 세계 국제회의를 통하여 세계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우리의 국격 또한 크게 선양되었습니다. 더하여 한류의 열풍으로 우리의 국위와 국격 모두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군에서 30년 사회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했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요, 아버지요 할아버지들 입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몸과 마음인 체력과 인성 및 지식은 군 생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군에서 배웠든 경험과 지혜가 군문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지탱해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21세기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공군에 근무하는 동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공

군을 건설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도 통일 후에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 바와 같이 전쟁승리의 주체도 공군력이고 전쟁억제의 핵심도 공군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쟁상대는 북한 공군이기는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공군이 될 것입니다. 더 하여 공군의 영역도 더 넓고 높은 우주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은 우주공군력 건설의 모체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라도 새로운 변화의 배움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 수행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배우고 익히는 사관학교 생도생활을 보다 알차고 즐겁게 보람되고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당부 드리는바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10기 사관들은 우리의 영혼의 기지인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공사인으로서 50여 년간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애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공군 발전과 공군사관학교발전을 위해 성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강한 정예공군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모범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동기생과 특히 유명을 달리하신 동기생들을 못내 아쉬워하며 그분들의 명복을 중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졸업 및 임관 기념식을 갖는 30기·40기·50기 사관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이 뜻 깊은 자리를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마련해준 총동창회 유병구 회장님과 19기생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장 김영민 장군님과 지휘관, 참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과 같이 우리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사관생도 여러분의 무운 장구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5월 4일

공군사관학교 10기 사관 동기생회

회 장 김 홍 래

졸업 및 임관 50주년 소회

10기 士官, 任官 50周年을 맞았다.



10기 사관 이 은 봉

1. 어제를 뒤돌아보며

10기 사관이 임관한 지 5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입교시기로 따지면 54주년이다. 1958년 초 우리 10기 사관은 진해시 장천동에 있는 공사 교정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상호 연(緣)을 맺고 오늘날까지 동기생으로 살아왔다. 짧지 않았던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온갖 희로애락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그 연륜 속에서 하나하나 묻어 나온다.

내가 공사에 입교하던 때는 6·25전쟁이 종식된 지 채 5년이 안 되었던 시기였기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나라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던 시기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학비 조달은커녕 하루 3끼 끼니가 어려워 늘 ‘보릿고개’를 외치던 터라 대학 진학은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 진학의 대안으로 사관학교를 택하게 된 것이고 여러 동료들 중에는 나와 같은 경우가 꽤 많았다. 왜였을까? 사관학교는 의식주가 동시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한다.”는 말을 구호처럼 외치게 되었지만, 입교 당시의 개인적인 가정형편은 인생 진로 선택의 목적과 수단이 혼재된 상태에서 방황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진해의 공군사관학교는 단층으로 된 기와집 건물에 아주 열악한 시설이었다. 1학년 메추리 생도로서 고된 훈련과 바쁜 내무 생활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람의 생활이 늘 고통의 연속만이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 법, 비록 메추리이긴 하지만 정규 생도 생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참고 지낼 만했다. 진해만의 심한 갯바람은 메추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했다. 내무반 난방 난로의 연통 청소가 메추리의 몫이었기에 손발이 트고 벌어져 선배들이 외치던 ‘국제신사’란 구호에는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었다. 진해 생활 약 9개월 만에 서울 대방동의 영구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좋아 기뻐했던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우리 10기 사관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던 유별난 기수(期數)에 해당된다. 진해 교정에 마지막으로 입교했던 기수였고 메추리 생도 기본 군사 훈련을 해병대 상남(지금의 창원시) 신병 교육대에 위탁되어 훈련받았던 마지막 기수이기도 했다. 또 대방동 신축 교사로 이동해 생활할 때 최하급생의 기수(얼마나 많고 많은 사역을 했었나?)였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 사관학교가 도약과 발전의 시기를 맞았을 때 10기 메추리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람되고 훌륭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가슴 뿌듯하다.

자율적인 생도 생활을 해볼 수 있는 3학년(1960년)이었을 때다. 학년 진급이 불과 두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4·19 민주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붕괴되었고, 이듬해인 1961년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인 대변혁기에 생도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특히 5·16군사혁명이 발발하여 혁명의 성공 여부가 며칠 동안 불확실했던 때인 5·19 (1961년) 아침, 당시 4학년이었던 10기 사관의 주도하에 전 생도들이 혁명지지 서울시가행진을 실행했었다. 당시 육·해·공 3사 생도들의 혁명지지 시가행진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 결국 군사혁명이 성공 쪽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음은 뜻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1962년 2월 23일은 10기 사관의 졸업식 날이었다. 당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장군(대통령이 되기 전)을 모신 가운데 졸업식을 거행한 것은 오로지 우리 10기 사관뿐이리라. 그분과 졸업식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눈을 마주쳐 본 것도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훗날 나라 경제를 부강시켜 국민들의 배고픔을 없애주었던 지도자가 됐음을 볼 때 그분을 추앙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10기 사관이 임관 후에도 유별나게 강인한 군인정신, 복종과 희생정신 그리고 근면 정신

을 어느 기생 못지않게 발휘하며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도 시절에 것처럼 많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일보다 험한 일, 굵은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 사이에는 각별히 상호 우애와 전우애가 돈독해 지고 유대가 커지는 법이다. 그래서인지 10기 동기들은 상호간 동료 사랑의 마음이 깊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선의의 경쟁의식이 체질화되어 있었음을 회고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사 학교란 것이 일반 사회학교와는 달리 제복을 입고 생활하는 동안에는 동기생이요 동료집단(peer group) 이지만 진급과 보직 등에서 경쟁이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군 사회의 특성상 이 같은 동기간의 경쟁이 많았었는데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진급과 상위보직에 선택된 자에게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고 반대로 발탁되지 못한 동료에게는 위로와 겸손한 마음을 주어왔다. 이런 현상이 있기까지에는 그 밑바탕에 강한 동료애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의 출세와 영화는 한순간이지만 친구의 우정은 영원한 것 아닌가? 이 같은 기풍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10기 사관의 커다란 미덕이요 장점이었으며 군의 조직생활에 있었던 상서(祥瑞)로운 동료의식의 발로였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떠했을까? 내 또래의 世代들은 일제 말기 무렵에 태어나 소년시절에 6·25전쟁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으며 중·고등학교 생활도 껍이나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 그 시절엔 내 자신이 부모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자립의 길을 찾았던 것과 같이 사관학교 진학을 택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나는 유·소년기에 어렵게 생활해 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보다 윤택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했고 훌륭한 일꾼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자녀에 대한 배려의식이 매우 컸다. 따라서 내 동료들은 거의 모두가 자녀들의 성장, 교육에는 무척이나 헌신적이었다. 동료들의 그 같은 일상적인 노력이 결실 맺었던 몇몇 동기의 예화를 들어보고 싶다.

우리 동료 중에서 재치 있기로 소문난 권영락 동료가 있다. 그는 슬하에 1녀 2남을 두었다. 그는 장남 며느리 사위 등 3명이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차남은 사법, 행정 양과에 합격하여 현재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의 자녀교육 성공사례는 김시호 친구다. 우리 동료들은 평소 그를 보고 울릉도 섬사람이 육지에 나와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왔다. 그는 슬하에 2남을 두었다. 그는 육지에 나와 성공한 것만으로도 보람인데 거기에 더해 그의 장남과 며느리는 같이 박사학위를 취득 각각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남은 중고시절에 벌써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시민으로 개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경우도 옆 사람들에겐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사람 더 소개하면 이수길 동료가 있다. 그도 2남을 두고 있는 바, 장남은 미국 시카고에서 시

민권자로 생활하고 있고, 차남은 공사 42기생으로 대위 때(당시19비 근무) Top gun의 자리에 올랐다. 아버지로서 그가 군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식으로 하여금 해낼 수 있도록 훌륭한 전투조종사로 키웠다는 것, 본인은 물론 공군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Top gun을 했던 그 당시 이준선 대위는 현재 공군 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그의 장래가 촉망된다. 이 이외에도 동료들 중 소개할만한 사례가 더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 싶다. 결국, 2세의 교육은 부모하기 나름이요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게 정설로 되어있다. 그런 면에서 10기 사관들이 자녀를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 온 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부분이다.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영공방위 임무에 헌신했었고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가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다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보아지고 이런 일로 인해 황혼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

2. 50 축하 행사

지난 5월 4일 모교에서는 우리들에게 任官 50周年 축하 행사를 성대히 베풀어 주었다. 사실 기념 축하를 받는 당사자들 10기생의 입장에서 보면 입교시를 연륜의 시점으로 쳐주는 게 보다 의미가 클 것이란 생각도 해 본다. 아무튼 임관 50주년 축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후배들이지만 그것을 받는 10기 사관들은 모교인 공사에서 베풀어준 행사로 믿고 싶다.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 '돌아온 탕아' (렘브란트, 1665)를 감상했던 기억이 난다.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었다. 그런 아들을 감싸 안으며 용서하는 아버지,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깝고 소중한 것이 가족이란 걸 일깨워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임을 말해준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5월, 높고 푸른 하늘아래 펼쳐진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아 군을 떠난 지 25~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모교 공사에서는 꽤나 긴 시간동안 뿔뿔이 흩어져 제멋대로 살아온 10기 사관들 이었거늘 이렇게 일일이 초청해서 임관 50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마련해 주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돌아온 탕아'의 그림에서와 같이 집을 나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빠가 감싸 안아주듯이 모교에서는 우리 10기 사관을 안아주었다. 나와 내 동료들이 과거 군 생활을 되짚어볼 때 모교와 공군을 위해 크게 뚜렷한 족적(足跡)을 남긴 것도 없는데 말이다. 결국은 모교와 열 번째 졸업한 10기 사관 간에 굳게 맺어진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본 행사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해당 기수에게 행해져 오는 연례적인 행사이지만 나에겐 너무나 황홀한 행사였고 남은 여생동안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새겨질 것이다. 이날 사관학교에서는 교장 이하 참모, 관계관들이 선배랍시고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친히 영접해줘 고마웠고, 학교 현황과 학교발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주며 모교의 눈부신 미래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어 대연병장에서 행해진 환영행사, 후배 생도들의 열병, 분열을 지켜보면서 5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보기도 했다. 또 특수 비행팀의 축하 공중곡예 비행은 내가 공군이 아니었다면 받아볼 수 없는 축하 이벤트여서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이 모두가 부족했던 선배였으나 그것을 너그러이 받아주면서 성대한 축하쇼를 보여준 데 대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일행은 학교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학교 시설을 이곳 저곳 구경했다. 옛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가 이날 둘러본 모교 사관학교는 너무나 많이 변해있었다. 50년이면 5번은 더 변했을 터이니 우리 때의 생활환경과 지금의 그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아니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비교한다는 표현보다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보금자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성무대!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이 너무나 늙름했고 자랑스럽게만 보였다.

학교 시설의 견학 순서에 따라 우리 일행 모두는 박물관에 들렀다. 공군관과 공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로서는 이 박물관을 처음 관람하는 기회였다. 공사관을 둘러보는데 한 곳에 졸업

생들의 명단이 동판에 새겨져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이름 세자가 보인다. 사진기를 꺼내 사진도 한 컷 찍었다. 이날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남기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데 이날 모교에서 동판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고 “나도 이름을 남겼구나.” 하는 보람을 느껴본다. 다음은 생도들이 생활하는 내무반도 둘러봤다. 옛날 나의 생도시절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훌륭한 시설과 비품들이 갖춰진 숙소였다. 오늘날 군은 좋은 시설에서 잘 재우고,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킴으로써 우수한 장교를 배출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같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만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공군력이 건설되리라 믿는다. 생도들의 생활관 구경을 끝으로 우리 일행은 귀경길의 버스에 올랐다. 이날 우리 일행을 환대해 준 교장 이하 참모 및 모든 관계관들 그리고 후배 생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

3. 우정을 위한 기념여행

우리 10기 사관이 처음 만난 게 1958년 초였다. 그때 처음 만나 메추리로 맺었던 초심의 우정을 되찾고 복원하고 싶었다. 우리 동료들이 임관 50주년 기념 자축행사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온몸의 오감을 열어본다. 나를 감싸고도는 산뜻한 봄바람 속에 느껴지는 대자연의 향기를 안아보게 된다. 비단 이번에 맞은 봄에만 그랬으랴! 되돌아보면 그 많고 많았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냥 아무런 의미나 느낌 없이 흘러보낸 계절에 대한 무감각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흘러간 50년을 회상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가 않다. 다만 그 세월 속에 녹아있는 우리 10기 사관 동료들의 희로애락, 애증후박(愛憎厚薄) 추억들을 차제에 반추해보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게 2박3일의 50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우리 동료들이 부부동반(일부는 single)하여 여행을 하게 된 지역, 경로는 충주-부산-거제-통영-사천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것이었다. 동료들 중 그 누구도 이 지역을 지금껏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으랴만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그 옛날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한 우정을 되살려 보고픈 생각에서 이 여행을 계획했다고 생각한다. 비록 길지 않은 2박3일이었지만 같은 버스를 타고 숙식을 같이하며 노래 부르고 환호하며 온갖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눈·귀로 보고 듣는 구경거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정말로 뜻깊고 환상적인 여행이었다. 이번 우리가 가졌던 기념 여행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공식 행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니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었다. 나와 우리 동료들은 그간 세월의 덧없음과 무상함 속에서 지금

은 70대 중반의 나이로 살아가고 있다. 번뜩이고, 화려하고, 아름답던 젊음과 기백도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처음만나 연을 맺고 우정을 꽃피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에서도 상호 유대를 더더욱 굳게 다지고 생활해 나가는 길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즉 동료 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기애애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4월 30일, 아침 일찍 성남 비행장 주차장에 여러 동료들이 부부동반으로 일부는 싱글로 모였다. 이들은 마치 초등학교생들이 소풍이라도 가듯 그런 들뜬 모습에다 얼굴에는 화색이 완연하다. 두 대의 버스에 분승해서 먼저 충주 제19비행단을 찾았다. 오랫동안 군을 떠나 있었던 우리들로선 후배들의 영공방위 현장을 가보고 싶었던 것. 단장 이하 지휘관 참모들이 일행 노병들을 반겨줘서 퍽이나 고마웠다. 부대 현황과 활주로 비상대기실의 현장 그리고 전시된 각종 항공 무기를 보면서 오늘의 전투비행단의 전력현황과 10기 사관이 현역으로 있었을 당시와는 20~30년의 시간 간격이 가로놓여 있음을 실감했다. 현대전에선 공군력이 승패를 결정짓는데 우리 공군이 월등히 우수한 전투기와 고성능 정밀 유도탄으로 적진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 공군으로 변해 있었기에 후배들의 영공 방위 활약상이 마냥 미더웠고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 일행은 다음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해 달렸다.

차창을 통해 본 내 나라 산야는 실록의 물결로 휩싸여 노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오후 늦은 시간 공군의 휴양소인 그린나래 호텔에 도착했다. 준공 후 처음 가 본 호텔은 시설도, 해운대 해수욕장 경관도 훌륭했다. 우리들은 그곳 연회장에서 임관 50주년 기념 만찬회를 가졌다. 모두가 즐거움에 젖어 먹는 음식이라 맛이 더한 모양이었다. 그간 못 다한 이야기며 웃음꽃은 만찬장의 흥을 한껏 돋운다. 춤과 노래 등 여흥도 이어진다. 이날 만찬 비용 수백만 원은 동료 이달화 회원이 부담했다. 전 동료들이 박수로 화답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여기에 한 줄 적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날 일행은 거제도를 향해 출발했다. 물론 근년에 개통된 거가대교를 통과했다. 나로선 처음 가본 거가대교이다. 특수공법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수중 도로를 통과하니 신비감도 더해왔다. 거제도에 도착하여 6·25 전쟁당시 운영됐던 포로수용소를 둘러 보았다. 거제도가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이제 섬이 아니었다. 부산과는 그렇게 가까워졌고 또 다른 육지와 연결된 다리는 통영~거제 간 교각이었다. 거제도 구경을 하다 보니 금방 점심때가 되었다. 거제도 현지



모 식당에서 거제도 별미 성계 비빔밥을 점심으로 했다. 나로선 처음 먹어보는 식사여서 신기하기도 했거니와 맛도 일품이었다. 때 지어 달리고, 구경하고, 관람하며, 먹고 마시는 일, 이 모두가 우리 일행의 즐거움이었고 단합이며 우정을 북돋우는 일이었다.

이어서 우리는 통영을 향해 출발한다. 통영에서 유명한 것은 케이블카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이르니 온통 통영시와 인근 바다와 섬이 한눈에 잡힌다. 관광의 명소였다. 일행이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아닌가? 마치 어린이들처럼 환호를 외친다. 경관이 아름답다는 표현들이다. 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는 게 이번 여행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100% 달성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후 내내 비가 내렸지만, 통영 구경은 멈출 수가 없었다. 일행은 버스를 타고 미륵섬 일주로를 따라 바다와 섬의 경관을 구경했다. 두 번째 날 숙박시설인 마리나 콘도로 돌아와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 사우나 시설이 있어서 다 같이 목욕을 하고 나니 기분이 만점, 인근 식당에서 통영의 별미 도다리 썩국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이곳저곳 식탁에서 추가 썩국을 요청할 정도로 별미였다. 그리고 안락하고 아늑한 콘도에서 그날 밤을 잘 지냈다.

그 다음 날, 여행 3일째 마지막 날이다. 숙소 마리나 콘도를 나와 아름다운 항구도시 통영을 뒤로하고 사천시로 향했다. 충무에서 사천까지 멀지 않은 거리여서 목적지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도착했다. KAI의 일반 업무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부 공장도 견학했다. 이어서 정성을 쏟아 맛깔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3훈비 단장도 동석해서 우리 일행을 환영, 축하해주어 고마움을 느꼈다. 이날 KAI에 머무는 동안 이 회사 윤상주 상무는 무척이나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일행의 길잡이를 해 준 그는 “이번 50주년을 맞아 일행 어르신들이 당사를 찾아준 데 대해 영광과 함께 감사합니다. 10년 후 60주년 행사 때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마지막 작별 인사말을 건넸다.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행은 웃음의 함성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만큼 인생의 삶 그 자체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표출해 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2박3일간의 공식적인 일정을 끝내고 사천 기지를 떠나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를 진입했다.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옆 동료들과 이야기도 끊은 채 눈을 감아 나 홀로 상념에 잠겨본다. 난 내 젊음의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평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30년을 블루 유니폼을 입고 공군에 봉직했다. 사람의 한평생을 놓고 볼 때 가장 황금기이기에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10기 사관들은 공군에서 30여 년 사회에서 24~5년을 살아오면서 자연적으로 나이 70대 중반을 맞이했다. 그래도 젊은 시절 군에서 단련했던 체력으로 지금껏 건강한 할아버지로 살고 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얼 더 바라고 희망하며 살겠는가? 오로지 국가 안보가 보다 튼튼해지길 바라고 내가 몸담았던 공군의 발전을 기도하며 남은 여정 흑시라도 여력이 있다면 공군의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걷고 싶다. 나는 아직도 늙은 보라매로서 그 날개깃이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보라매가 승천하면서 두 날개를 내려놓을 때까지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공군을 위해 헌신하는 보라매로 영원한 공사인으로 살고 싶다. 현재 생존해 있는 10기 사관들은 이번 행사를 끝내면서 유명을 달리한 동기생 여러분께 충심으로 삼가 명복을 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 온 김홍래 회장과 김태석 총무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보낸다. 임관 50주년을 맞는 우리 10기 사관! 영원하리라!



17기 사관 이 한 호
전 공군참모총장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였는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공군의 시각

‘통합군’이라는 침대를 만들어 놓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꼭 맞는 침대라고 선전하나?

지금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보다 우리 합참이 작전권을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한·미 연합사 해체 후 미군(美軍)과의 연합작전 협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 계획’의 완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국군 조직과 편성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군(軍)의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지난 20년간 발전시켜 안정화를 이룬 군의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먼저 현 지휘 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변경된 체계는 현 체계보다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것인지도 명백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5개 법률개정안을 작성한 과정을 보면 군사전문가에 의한 심층 검토가 부족했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으며 법률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도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 지휘체계는 모든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지휘체계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완벽한 군 조직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수시로 지휘체계를 바꾸어도 군사대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상부지휘체계 개편이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군 지휘부의 정보판단 능력 부족, 합참 내부의 기강해이 및 위기의식 부족, 합참 의장(議長)과 각 급 작전참모들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의 문제였을 뿐이다. 즉, 지휘체계나 합동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제도나 지휘체계 탓으로 돌리고 합참의 인적(人的) 구성 등 가장 기초적인 조치는 외면한 채 근거도 없이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많지만, 결코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효율성 있는 지금의 상부 지휘구조를 왜 바꾸나? 《조선일보》 5.17일자는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 군대로 변모시키려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부지휘구조가 행정형 군대가 아니라 전투형 군대를 지향한 것이다.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 작전지휘의 혼선을 방지하고, 작전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서 배제하고 합참의장이 직접 각 작전사령부를 작전지휘토록 한 것이다. 전투형 군대로 변모시키겠다고 하면서 핵심 전투부대인 육군의 1, 3 야전군 사령부와 해·공군의 작전사령부를 해체하여 각 군 본부로 통합하겠다는 국방부 안(案)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군정(軍政), 군령(軍令)을 획일적으로 분리 적용해오며 따라 상부조직의 비대화 및 기능 중복 등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국방부 홍보책자 5.13. 발행) 라는 말도 있다. 우리 군의 군정과 군령은 대통령과 장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다만, 합참은 군령, 각 군 본부는 군정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지휘통제의 범위(span of control)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과 서구의 대부분 군사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제도이다. 이것을 마치 우리만 채택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설명도 없다. 진단(診斷)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處方)이 나올 수 있다. 개혁이 잘못된 진단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정당성도, 신뢰성도 얻을 수 없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시작전 통제를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이행실무단이 구성되어「한미연합군 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STP/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작성하였고, 2007년 6월 당시 김관진(金管鎭) 합참의장과 샤프 주한미군 선임 장교가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전문가로 공동 검증단을 구성하여 2009년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 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태와 한국 합참의 기본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검증했다. 그 결과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정상 추진으로 보고되었다. 한·미가 최초로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은 2009년 UFG 연습 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하여 도출된 보완소요를 기초로 작성된「전략적 전환계획 수정2호」(2010년 3월)로 대체됐다. 그에 따르면 한·미간의 연합작전 체계는 <도표 1>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도표 1> 한·미 연합작전 체계

국방부는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하에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며 지휘관계는 변화되나 현 연합방위체제는 더욱 공고히 유지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토록 검증됐고, 이에 따른 각종 협조체계와 C4I체계도 완성단계에 있다.

다만,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해 놓은 것뿐이다. 그러나 STP에 서명했던 장본인인 김관진 장관이 이제 와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온 것은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공군총장(대장)이 미 7공군사령관(중장)의 작전통제를 받나? 현재의 한·미 연합작전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작전체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한·미간의 군 지휘체계가 대칭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

는 것이다. 우리 군의 각 작전사령부와 미 측의 지·해·공 구성군이 연합 구성군을 편성하고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하는 형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하던 부대들을 한국군은 우리 합참의장이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USKORCOM)이 작전지휘를 하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협조관계가 되고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사령부로 현재 창설준비가 진행 중임)와 미8군, 해군은 7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가 협조관계가 되고 공군은 미 7공군과 공군작전사령부가 연합공군사령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합사 작전통제 관계가 협조관계로 바뀔 뿐 모든 작전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인 연합작전체계가 될 것이다.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면 이러한 통제체계나 협조체계에 각 군 본부가 끼어들어야 하고, 그만큼 모든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도표 1>의 협조체계에 추가해 미국의 구성군사령부들과 한국의 각군 본부 간 협조체계가 추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측과 미군 측의 부대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협조체계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색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기간, 즉 우리 군의 작전사령부를 각 군 본부와 통합하고 전작권은 여전히 연합사령관에게 있는 기간 동안에는 대단히 기형적인 작전체계가 나타나게 된다. 육군참모총장은 연합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작전통제를 받고, 해군총장은 3성 장군인 미 7함대사령관의 작전통제를, 공군총장은 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연합작전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지휘체계를 현재대로 두고 합참은 전작권을 전환에 대비하여 작전계획수립과 전쟁지도(戰爭指導)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하고 한·미 각급사령부간의 협조체계를 효과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은 서류상으로만 가능하다. 즉, 각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면 합동성이 강화되고 각군의 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각군 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하고 합참의장이 각군의 작전사령부를 직접 작전지휘하게 한 것은 바로 합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를 하게 되면 각군 총장과 합참의장의 지휘범위가 중복되어 옥상옥의 구조가 되고 지휘 및 보고 계통이 1~2단계 늘어나 작전지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또한, 각군 총장은 자군 중심으로

작전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합동성은 실종되고 총장과 의장 간의 의견 충돌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6월 1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군대조직의 기본은 상명하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이 없어 작전지휘가 어렵다는 말은 상명하복과 어떤 관계인지 또 3군 총장이 합참의장의 부하가 되어도 합동참모회의에서는 각군 총장의 권한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말과는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다.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작전사령관 역할까지 담당하면 각 군 총장의 지휘 부담이 과중해진다. 그래서 2명의 차장을 두어 1차장이 작전지휘본부에 위치하여 작전사령관이 하던 일을 맡는다고 한다. 그러나 국군조직법에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행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차장은 총장 승인하에 작전을 지휘하고 총장을 통해 보고하게 되므로 지휘계층이 증가되어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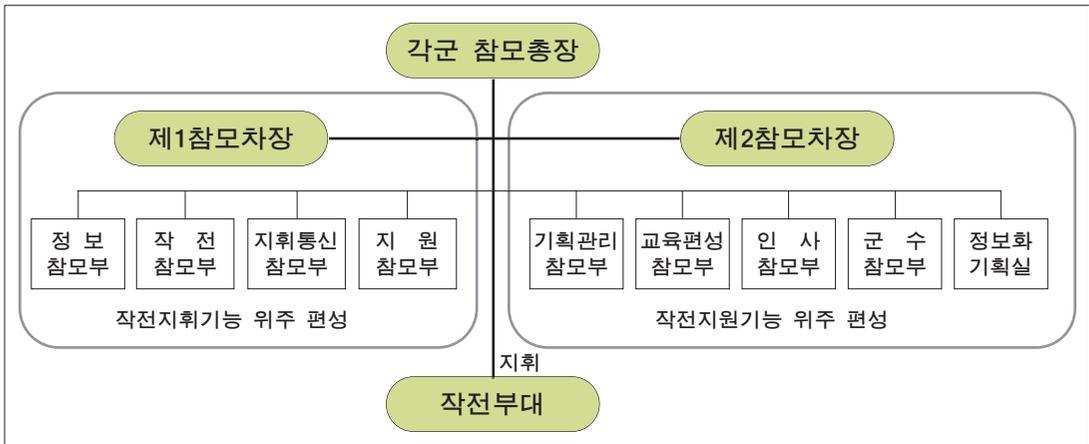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우리 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군이 개편되었을 때 상부조직뿐만 아니라 하부조직까지도 검토하고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 있는 지까지도 충분히 검증된 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군 상부지휘구조에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3일 발행한 홍보책자 <상부지휘구조 개편>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전·평시 위치와 지휘통제 방안은 작전의 효율성, 지휘의 폭, 시설·C4I체계 보완소요, 단계별 통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모총장의 근무위치를 정하지 못한 것은 지휘체계와 참모구성을 확정짓지 못한 것인데 이런 안을 가지고 법률부터 개정하는 것은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함일 뿐이다.

국방부는 각군 본부와 사령부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나열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는 서류상으로만 합쳐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2개 지역에 분산돼 있어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각군 본부를 <도표 2>와 같이 편성한다고 한다.

각군 본부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작전본부는 현 작전사령부 위치(용인-육군, 부산-해군, 오산-공군)에 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제1차장이 현 작전사령부 위치로 가게 될 것이다. 정보·작전·지휘통신·지원참모부는 계룡대에 둔다는 것인지, 용인으로 간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2군사령부 등 일부 부대는 합참이 지휘하는지 총장이 지휘하는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도표 2〉 각군 본부 편성(안)

아직도 여론에 따라 개편안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합동성 강화나 전투형 군대는 고사하고 우리 군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휘하는 것인지 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들만의 개혁 의견수렴도 공감대도 없었다. 이번 국방개혁 307 관련 개정 법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군이나 군사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3월7일 국방개혁 안 청와대 보고 시 각군 총장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런 의견들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날인 3월8일 장관은 의장, 각군 총장 배석 하에 상부지휘구조는 확정되었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각 군이 모두 동의한 것처럼 연출하였다.

3월 중순경 국방개혁에 반대하면 항명으로 간주 인사조치 하겠다, 또는 각군 총장의 계급을 중장으로 강등시켜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관계자의 발언들이 보도된 바 있다. 2011년 3월 23일 국방부 주관 성우회 초청 국방정책설명회에서 군 원로들은 분명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나 국방부는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지 실질적인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9명의 발언 내용이 성우회 소식지(성우소식 87호 2011.5)에 수록되어 있는데 육군 4명, 해군 3명, 공군 2명으로 해·공군의 자군 이기주의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합동참모회의 운영 훈령에 의하면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은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본 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합동참모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2011년 4월 25일 군무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단서를 달았으나 무시된 채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 법제처로 제출하였다. 개혁 관련 5개

개정 법률안은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으나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법제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된 후인 5월17일~5월19일 간 3차에 걸친 예비역 장성 설명회를 가졌다. 국방부로서는 개정 법률안을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였을 뿐이고, 해·공군 역대 참모총장단은 형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참한 바 있었다. 5월24일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5월26일 또 한 번의 의견수렴을 가정한 설명회를 가졌고, 개정 법률안을 국회로 넘긴 후인 6월1일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방개혁안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번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왜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고 개편 내용 곳곳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지휘구조를 바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통합군’이라는 침대를 만들어놓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bed,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노상강도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 쇠 침대에 누어놓고 침대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버렸다고 한다.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하는 관용구로 쓰인다)처럼 선전하고 있다. 합참의 업무 부담을 말하면 대장급 차장을 둔다하고, 각 군 총장의 지휘 폭을 말하면 2명의 차장을 두고 또 작전지휘본부를 만들면 된다고 한다.

각군 총장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면 계룡대와 용인, 부산, 오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한다. 국군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 창설은 유보하고 합참의장에게 일부 군정권을 주는 문제는 재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처방은 없고, 늘리고 잘라서 억지로 맞춘 모양밖에는 없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장기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떤 목표연도를 인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처럼 주변에 군사위협이 없어지고 통일을 이루고 군의 규모를 대폭 감축시키는 등 획기적인 안보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발전 지켜야 할 과제다.

지금은 우리 합참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한·미 연합사 해체 후 미군과의 연합작전 협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 계획의 완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합참의 조직을 '3군 균형'으로 편성하여 합동작전계획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군의 각 작전사령부와 미군 측의 각 구성군 사령부간의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각 군 본부가 군령권을 갖고, 합참이 각 군 본부를 작전 지휘하는 '국군조직법 개편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문제의핵심이 있다. 국방개혁은 하루 하루빨리 이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17기 사관 이 문 호
전 공군전우회 사무총장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였는가?

국방개혁도 소통이 필요하다.

들어가면서

군 창설 이래 과거 어느 정권도 국가 안보의 주역인 현역들의 입을 철저히 막고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한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밀실에서 급조하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다 보니 개혁이 아니라 유사시 작전이 불가능한 개악이 되었고 군 원로들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고치다 보니 일명 누더기 법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통합군제가 최선의 군제(軍制)로 40년 군 생활 동안 꿈꿔왔던 숙원 사업이다” 공언하면서 실질적인 통합군제 형태인 군 상부지휘구조로 개편하면 장군수도 줄일 수 있고 합동성도 강화되고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국방부가 현역들의 입을 막고 강행처리 하다 보니 예비역인 군 원로들이 나서게 되었다. 공군전우회가 중심이 된 3군 원로 대책위는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국방개혁 307계획은 18대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방개혁하여 장군수를 줄이고 합동성을 강화한다는데 왜 군 원로들이 특히 공군과 해군이 반대하는지? 국회의원들은 왜 본회의에 상정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못해 걱정이 많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인 국방개혁 307계획의 의사결정과정과 행태를 통해 향후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통도 없었고 공감대도 없었다.

군의 중추신경인 상부지휘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전쟁 이후나 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나 개편하는 것이 전례(前例)다. 군사 전문가들은 1990년 합참의장에게 막강한 군령권을 주어 각군 사령관을 직접 작전지휘하여 합동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위협에 대처하도록 개편하여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현 군제를 왜 바꾸는 지 그 이유를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합동성 부족이 문제라 진단하고 상부에 보고한 후 국민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합참은 그 어느 누구도 각군에 작전지시를 내린 일이 없는데 합동성 부족이라는 진단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군 통수권자와 국민을 속인 꼴이 되었고, 이 정권은 군 지휘구조개편을 진정한 국방개혁으로 극대화하여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은 국방개혁 73개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군제는 현대전 양상 및 작전환경과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과거 전쟁교훈을 바탕으로 확립된 군사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고도의 전문 분야다.

그러나 국방부는 밀실에서 급조하여 2011년 3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후 다음 날인 3월 8일 각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면서 합의한 안인 것처럼 3군 총장을 배석시키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입법과정에서 각군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도 없었다. 주요 군령 사항에 대해 군 조직법상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전원일치제인 합동참모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3월 23일 국방부장관 주관하에 군제 전문가인 육·해·공군 장성 40명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9명의 군 원로들이 계획된 오찬을 2시간 미루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장관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바로 4월 29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국방대학교설치법 4개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 예고한 후인 5월 17일 형식적으로 예비역 장성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국민대토론회를 6월 1일 실시하였다.

일방적인 설명은 있었으나 소통은 일체 없었다.

청와대는 현역이 반대의견을 말하면 항명죄로 인사조치한다고 하였고 대장인 참모총장이 반대하면 중장으로 한 계급 강등시켜서라도 개혁하겠다고 말하면서 현역들의 입을 막았다. 군 원로들이 수차례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국방장관이 지난 한 해 국회의원 출판기념에 빠진 적이 없고 국방상임위원들과 200여 회의 스킨십을 하고 언론계, 대학교 학생회장단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정치학회에 의뢰해 각종 세미나를 지원하여 정부안을 홍보하였다.

모든 언론 매체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의 충격이 큰 탓도 있겠지만 국방부의 홍보는 빛을 발해 연일 국회를 압박했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신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정을 짠 것처럼 돌아가면서 국방부의 홍보자료를 여과 없이 복사한 듯 기사로 논설로 국방부 기관지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논리도 수시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공군과 해군이 반대해서 못 간다고 했다. 뜻있는 육군 군 원로들이 반대하니 현역이 하는 일에 군 원로들이 참견한다고 말을 바꿨다.

통합군제는 한 사람의 현역 군인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문민통제에 문제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이제 성숙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은 민도가 낮아서 철저히 문민통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쿠데타만 생각하는 듯하나 장관과 합참의장이 의견을 달리할 때 갈등 구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갖게 되면 자군 위주로 군을 이용하게 되어 합동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군에서 가장 작전을 잘 알고 똑똑한 참모총장이 작전 지휘권을 가져야 전투형 군대가 된다고 한다. 군제(軍制)를 평가도 없이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니 서면 연합군사령관에게 UFG 연습 시 적용하여 평가하자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천안함 사태가 합동성 문제가 아닌 것이 밝혀지자 이제 코앞에 닥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바꿔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 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STP :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작성하였고, 2007년 6월 당시 김관진(金管鎭) 합참의장과 샤프 주한미군 선임 장교가 서명했다. 그 후속조치로 한·미 양

국은 전문가로 공동 검증 단을 구성하여 2009년 UFG 을지연습 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상태를 평가하여 김관진 장관이 합참의장 재직 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서명했던 장본인이 현재 계획대로 잘 준비해 오고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군상부지휘구조 개편 이유로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것도 궤변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여부를 물으니 78%가 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고도의 전문분야인 군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장군 수를 줄이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작전권환수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국민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홍보를 진정한 소통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MB 정권의 실정 중 하나가 소통부재로 꼽는다. 그 중심에 주요 언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신문들은 반대 의견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조차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소통부재의 결과를 여지없이 국방개혁에도 보여주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6월 개최된 301회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공군과 해군 그리고 뜻있는 육군 원로들의 노력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국방상임위 법률소위로 넘겨졌다. 정부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가졌던 김장수 의원을 해외 특사로 출장 보내고 한기호 의원을 국방상임위에서 정무위로,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방상임위로 옮기면서까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정기국회에서도 2012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4월 20일 원유철 국방 상임위원장은 국방개혁관련법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표결처리를 시도하였으나 민주당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 6명만이 참석하여 정족 수 미달로 18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하나의 힘은 적어도 함께 하면 큰 힘이 되었다.

공군전우회 김홍래 회장은 국방계획 307계획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올바른 국방개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공군 대책위는 3월부터는 해군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입법예고에 대해 4개 법안에 대해 전우회장 명의로 국방부에 전달하였고,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단은 국방부 주관으로 입법예고 후 형식적으로 3군 예비역 장성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는 불참하기로 하고 문서로 공식 통보하여 여론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공군과 해군 원로들은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6월 20일부터 3일간 7대 일간지에 '우리는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

양당 대표를 만나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40여 회 걸쳐 일간, 주간,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였다.

하루를 예측하기 어렵게 돌아가는 8월 초에 헌법에 위헌된다는 일부 법조인의 말을 듣고 헌법 재판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주법인에 헌법소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거대한 권력기관인 정부와 대응하여 잘못 가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멈추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국방부장관의 진정성 없는 스킨십 보다는 애국충정에서 우러난 약자의 호소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힘을 보탬 결과였다. 3군 원로들이 자군 이기주의를 떠나 오직 군을 위한 투쟁이었기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맺으면서

금번 대책위 활동을 통해 얻은 고귀한 가치는 공군 전우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못 가고 있는 국방개혁에 직·간접으로 적극 참여하여준 열정이었다.

우리 공군전우회가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안보 전문 집단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공군 원로들의 존재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방부는 끊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 개혁이 아니라 특정 군을 위한 국방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이제 현역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국방개혁이 되도록 연구하여 입법화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각 군의 지원 분야 통합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장관 개인의 소신을 충족시키고 정권의 업적으로 삼을 목적으로 국가안보문재인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작전환경과 현대전 양상에 맞게 전력을 증강시키고 합참의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을 균형 있게 보임하여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개혁의 대상인 국방부, 특정 군으로 편성된 국방부에서 군 개혁을 추진해도 안 된다. 3군의 공감대 없는 국방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공사총동창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방 관련 기사나 모군인 공군과 관련된 기사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댓글도 달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가입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공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모군인 우리 공군은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년 간 공군전우회 대책위가 활동했던 5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활동 내용을 '국방 개혁 307계획 대책위 백서'로 정리하여 회원들과 현역들이 향후 군 지휘구조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로운 시대에 발간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오직 국가와 군을 위한 충정으로 적극 참여해준 모든 회원분들께 충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걸어온 길

-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 반대에 붙여 -



12기 사관 배 기준

나쁘면 좋게 고쳐야 한다. 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개혁하면 나빠진다. 해서는 안 될 개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오직 국가(國家)와 국민(國民)과 군(軍)을 위하여 멈추면 위험하지 않다.

옛 우리 선조들은 국가 정치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이라 했다. 잘 살고 외침을 막자는 뜻이다. 국방분야는 방대하고 난해하다. 군 원로 예비역은 국방의 전문가 집단이다. 국가 존망이 달린 국방개혁은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 백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전사(戰史)에서 공격 대비 방어 전략 전술은 대부분 불리하여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기습공격은 치명적이다. 그 약점을 먼저 감안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적시 적소에 하지 못한 원인이 3군 합동성 결여에 있다고 보고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을 서둘렀다.

국방 당국은 군령다운 명령 한번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여 비굴한 도덕의식까지 지적받자 전작권 이전 대비책이라면서 하루아침에 임기응변식으로 개편



목적을 바꾸고 절차도 건너뛰며 온전한 시험 평가도 없이 국군 조직법을 수정하여 국회를 통과 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군을 폄하하여 행정군대를 전투형으로 바꾼다면서 현혹하고 개혁이면 다 좋다는 국민 감정에 편승하여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일간지조차 권력을 대변하면서 왜곡된 여론 조성에 가세하였다.

현재의 상부 군 지휘 구조는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문민통제하의 합동군제로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군정은 국방장관 - 각군 참모총장, 군령은 국방장관 - 합참의장 - 작전(야전사)사령관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이번 개편안은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에게 군정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사령관으로 격하시키면서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군정 군령 공히 국방장관 - 합참의장 - 각군 참모총장으로 사실상 통합군 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 모름지기 국방개혁은 전쟁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승리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 현대전은 하늘과 바다와 땅, 서로 다른 영역(領域)에서 전쟁을 수행한다. 각군이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상호 합동, 지원작전은 당연하나 해·공군이 지상작전의 보조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각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독자성을 보장함으로써 3군이 동등한 입장에서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쟁 승리의 원인은 통계적으로 군정(양병, 정병)이 80%, 군령(용병)이 20%를 점한다. 각군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장관 지휘 통제아래 군정은 그 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을 정점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령은 국방장관 보좌로서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사령관을 작전지휘통제한다.
-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군정 군령권은 국군통수권자를 대신한 민간 국방장관 한 사람에게 있는것으로 충분하다. 합참의장이 군령권에 군정권마저 갖는다는 것은 국방장관과의 이중(중복)적인 권한 부여이다.
- 전쟁계획은 전면전에 대한 계획이어야 하고 국지도발은 한 부분이다.

- 어떠한 조직도 적정 수준의 지휘폭(Span of Control)이 더 효과적인데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 1인이 군정 군령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지휘폭이 넓어 능력의 범위를 초과한다. 전시에는 더욱 심각하다.
-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한다면 각군 본부와 사령부간의 지리적 위치와 이동 시간상 적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미군간 구조적으로 격이 맞아야 한다.
- 군사력의 근간인 무형(정신)전력의 바탕은 60년간 이룩해 온 각군 고유의 문화로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상부 군 구조 개편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필수 충족 조건에 반(反)하고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공군과 해군 예비역의 반대와 군 구조에 밝은 육군 예비역들도 부정적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존 상부 군 지휘 체계가 가장 실효성이 있음으로 이상적인 구조이다. 부분적 수정과 보완은 필요하나 무모한 전면적 개편은 할 이유가 없다. 2015년 전작권 이전 후 지휘체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전면 개편은 불필요한 일을 복잡하게 벌여놓고 시간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2011년 5월부터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안'의 찬반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마침내 금년 4월 20일 제18대 국회국방상임위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상부 군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은 18대 국회로 족하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무모한 논쟁은 이제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정론(正論)임에도 우리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처절하였습니다.
전면 최일선에서 그 일을 해낸 후배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세상사가 올바르다고 언제나 승리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개편을 반대하는 주장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개편을 하자는 상대 세력들이 너무 무지막지하여 우리는 항상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이 곧 꺼질듯하였습니다. 막판에 가서 "그만 포기하세." 제3자들도 측은하여 위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전(風前) 고비때 마다 신(神)의 도움인듯 불씨가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처절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과 끈기는 진리(眞理)에 살고 정의(正義)에 죽으라는 모교 공군사관학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신념이었으며 조국처럼 공군을 그토록 많이 사랑한 까닭입니다.

공식 대책 기구인 공군 전우회 김홍래 회장, 이문호 사무총장, 이영희 기획국장과 이한호 Task Force Team장을 중심으로 공군사관학교 17기생은 앞장서서 주도면밀한 논리적 지성(知性)과 중단없는 저돌적 야성(野性)으로 정면 돌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유병구 회장과 정하섭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19기생은 모임을 주선하고 분주히 외쳐 나서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동문들을 일깨우고 한데 뭉치게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언관(言官)의 기개로 상소문(上疏文)을 부치려 수차례 루비콘강을 건너간 8기생 서진태 선배를 중심으로 몇몇 야인(野人)들은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리하여 굽힘이 없는 비판정신으로 공군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국방기고를 통해서, 안보토론회에서, TV 방송에서, 국회공청회에서 그리고 24기생 한성주 후배는 도서 '위헌적 모험'을 발간하여 맞섰습니다.

사명감에 불탄 어떤 사람들은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마음으로 정론(正論)을 품에 안고 남몰래 레지스탕(resistant)이 되어 입법 사법 언론 학계 교수 그리고 가까운 국민들에게 설파하였습니다.

해군 예비역은 물론이고 반론을 펴기가 거북스런 환경에서 정도(正道)를 소신껏 밝혀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 준 육군 예비역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일념(一念)으로 무리의 중심에서 침묵으로 거부하며 지켜보던 공군 원로 들께서는 우리가 지쳐 소홀할까 걱정하여 정신적 배수진을 쳐 주었습니다.

군내에서는 소군(少軍)이지만 밖에 다수(多數)의 국민이 ‘해서는 안될 개혁은 하지 말아야 하고 무모한 개편안은 멈추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더 많이 신뢰하였습니다.

국민의 그 선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공군사에 길이 빛날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모든 공군인이 3.1 운동 때처럼, 구한말 안중근, 이준,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이 되어 햇불을 높이 들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독수리는 함부로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할 때 우리는 진정 성난 독수리가 되어 끈질기게 움켜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공군의 정신(Red Scarf Spirit)을 만방에 보여 주었습니다.

동네방네 들추고 떠들고 싶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갈림길에서 양지(陽地)만 찾아 다니는 기회주의자들을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유약한 후배들에게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라며 훈계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고군분투한 공군인들에게 그 기적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 큰 박수 한번 쳐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작은 불씨가 남은 트로이 목마를 두고 구두끈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하여 지금 당장 찬사와 격려를 받아야 할 후배가 있습니다.

이한호, 이문호 두 후배는 우리를 대신하여 전면 최일선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각오로 일기당천(一機(騎)當千)하였습니다.

군의 근본을 외면한 채 아집에 함몰되어 달려오는 국방책임자를 가로 막고 호통쳐 정지시켰습니다.

민주국가 체제에 걸맞게 통합군이 아닌 합동군으로서 조국 땅에, 조국 바다에, 조국 하늘에 바칠 군인의 의무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켰습니다.

" 영원하라 ! 조국이며 그리고 군이며 ! "



3기 사관 이종학
서라벌군사연구소장

서라벌에서 온 편지 2

-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

박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박형도 알다시피 나는 국방대학원 교수였기에 65세까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소. 그러나 인생 후반기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8세(1987년) 때, 명예퇴직을 하고 옛 서라벌인 경주로 왔소. 여기는 경주역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시골인데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은 곳이며 아담한 정원도 있소.

최초로 하고 싶었던 과제는, 7세기 한반도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 병립하고 있었는데, 가장 국력이 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을 통일하여 한민족(韓民族)을 형성케 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군사사상을 연구하다가 '광개토왕 비문(廣開土王碑文)'(차후 '비문'으로 약칭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거기의 '신묘년 기사(辛卯年記事)'(차후 '기사'로 약칭함)가 남·북한, 일본 및 중국의 고대사학계(古代史學界)에 커다란 논쟁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광개토왕 서거 1,600주년입니다. 광개토왕비는 장수왕 2년(414)에 건립되었고, 비석의 높이는 6.29미터, 무게는 37톤으로 추정되고, 비석의 4면에는 1,775자가 새겨져 있으나 판독할 수 없는 글자가 141자나 됩니다. 그런데 비문의 기사가 일본의 고대사학계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

府說)’의 논거가 되어 있기에 이런 역사 왜곡(歷史歪曲)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는 장수왕이 부왕(父王)인 광개토왕의 송덕비(頌德碑)로 건립했기 때문입니다. 비문연구의 막바지인 1992년 7월 중국 집안(集安)에 있는 광개토왕비를 답사하러 가서 비를 처음 봤을 때, 그것은 다만 거석(巨石)으로 보이지 않고 옛 친구를 만난 듯 기뻐하며,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형, 비문연구를 8년 가까이했으며, 그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 기사의 해독·해석

광개토왕 비문(차후 비문으로 약칭함)의 쌍구본을 처음으로 일본에 가져간 것은 1883년 가을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간첩이었다. 그 후부터 참모본부 편찬과원 겸 육군대학 교수인 요코이 다다나오(横井忠直)가 중심이 되어, 여러 학자들을 동원하여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889년 6월 『회여록(會餘錄)』 제5집이 비문 연구의 특집호의 형태로 간행되었으며, 거기서 신묘년(391) 기사(차후 기사로 약칭함)는 다음과 같이 해독·해석되었다.

- 碑 文：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斤羅以爲臣民
- 解釋文：百殘(百濟)과 新羅는 옛부터 高句麗의 신민으로 조공해 왔다. 그런데 倭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와 百殘과 □□와 新羅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日本の 通説)

육군 참모본부의 요코이의 주도로 5년간 연구하여 해독·해석된 기사는 그 후 일본 고대사학계에서 일관된 정설로 야마토(大和) 정권(政權)의 조선출병과 ‘임나일본부’ 설의 논거가 되어왔다. 필자는 일본에서의 ‘신묘년 기사’의 통설에 대해 논파(論破)한 논문,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 기사의 검토」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술지에도 발표했다.¹⁾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중진으로 활약하는 서울대학교 사학과 노태돈 교수의 ‘기사’에 대한 해석 및 인식이 필자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 즉

- ‘백제와 신라는 옛부터 고구려의 신민으로 조공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또는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로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1) 李鍾學, 「廣開土王碑文의 辛卯年記事의 檢討」, 『軍史』 제32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와 「廣開土王碑文의 眞實—軍事史學的研究方法による辛卯年記事의 檢討—」, 『日本及日本人』(東京: 日本及日本人社, 1998) 및 『東アジアの古代文化』100號(東京: 大和書房, 1999) 轉載.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신묘년 조 기사의 해석 자체는 ‘통설’과 같이 하는 게 순리라고 여겨진다. 단 신묘년 조에서 전하는 기사의 내용은 그대로 다 사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²⁾

노태돈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그의 ‘기사’의 해석은 일본의 통설과 같을 뿐만 아니라 순리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문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기록해 두었다는 뜻인지? 필자는 ‘제32회 동아시아 고대학회학술 발표대회’(2007. 12. 26)에서, 「군사사학(軍事史學)이란 무엇인가? - 광개토왕 비문(廣開土王碑文) 신묘년 기사(辛卯年記事)를 중심으로 -」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을 간략하게 소개코자 한다.³⁾

- 첫째 : 일본열도의 왜(倭)가 신묘년(391) 이전부터 한반도에 진출했다면, 대한해협을 건너 도해 작전에 필요한 병력·무기·식량 등을 운반하기 위해 「구조선(構造船)의 존재」가 전제·필수조건이지만, 일본의 고대 사학계는 아직도 문헌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도 이것을 실증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 일본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왜(倭)가 391년 백제·신라를 파하고 신민(臣民)으로 삼았다고 가정해도, 비문의 영락 10년(400)과 14년(404)에 왜(倭)는 ‘대궐·대패’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발판이 되는 거점(작전기지)의 상실로 인해 「임나일본부」설은 전연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1793년 3월 나폴레옹은 이태리 방면군 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연전연승하여 황제가 되어 유럽대륙에 군림했으나 워털루 전투(1815)에 패배하자, 남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헤레나에 유배되었다. 전쟁철학자 클라우제비츠는 명저 『전쟁론』(1832)에서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전쟁의 형태에 있어서, 영광은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제8편 제3장). 여기서 영광이란 전쟁에서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뜻하는데, 지금까지 비문 연구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군사이론의 내용을 간과해 왔던 것이다.

2) 노태돈, 「광개토왕 능비」,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서울 : 서경문화사, 2007), pp.445~446.

3) 상세한 내용은 李鍾學 外, 『廣開土王碑文의 新研究』(경주 : 서라벌군사연구소, 1999) 및 李鍾學, 『軍事史學による古代史散策』(慶州 : 徐羅伐軍事研究所, 2007), pp.122~140을 참고할 것.

- 셋째 : 비문에 의하면, 영락 6년(396), 고구려왕이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토벌했고, 백제왕은 항복하여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또 영락 9년(399), 신라왕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신묘년 기사에 통설에 의하면, 391년 이후 백제왕·신라왕은 등장할 수 없을 터인데, 그 후 비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참모본부에서 해독·해석한 신묘년 기사에 통설은 전연 잘못된 해독·해석임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 넷째 : 비문을 작성한 찬자(撰者)는, 고구려의 적국인 백제(百濟)를 ‘백잔(百殘)’이라고 멸칭한 것처럼, 비문에 등장하는 ‘倭’란 일본열도의 야마도(大和) 정권이 아니라, 임나가라(任那加羅)에 대한 멸칭이었다. 그 이유는 비문의 영락 10년조(400)에 의하면, 거기에는 ‘왜(倭)·왜적(倭賊)·왜구(倭寇)’가 등장하지만, 고구려군의 공격목표는 ‘임나가라’였기 때문이며, 또 “도래계 집단(한반도)은 야요이 시대(300B.C.~300)부터 계속하여 급속히 그 수를 증가하여, 아마도 기타규슈(北九州)를 중심으로 많은 소왕국(부족국가)을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⁴⁾고 했기 때문이다.
- 다섯째 : 필자는 신묘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해석한다.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서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그런데 임나가라는 신묘년(391)부터 (침공해)왔다.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 백제와 任那加羅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침략·강탈하기에 앞서, 비문의 왜곡된 해독·해석을 통하여 고대로부터 왜(倭)는 한반도를 지배·통치해 왔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대륙정책의 침략을 정당화했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2008.7.14)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교과서에 게재토록 조치를 취했는데, 그들의 침략적 근성에는 단호히 그리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기사’에 대한 일본의 통설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을 제출한 주요 학자명과 발표연도를 소개한다면, 정인보(1955), 박시형(1966), 김석형(1966), 천관우(1979), 이가원(1995), 이재호(1996) 등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비문연구자, 특히 ‘기사’의 연구·비판의 논문은 계속 나왔으나, 그 연구는 주로 문헌사학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이나

4) 埴原和郎, 『日本人の成り立ち』(京都: 人文書店, 1996), p.283.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문의 (倭)에 대한 연구는 (倭)가 언제나 군사작전에 참가했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즉 전쟁의 준비·수행·결과에 대한 분석·해석은 군사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역사학인 군사사학(military history)이 더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연구대상의 본질에 따라 연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기사’에 대해 군사사학적 연구방법으로 논문을 발표한 것은 필자가 유일하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박형, 나는 ‘기사’에 대한 연구논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에게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잡지인 『일본및일본인(日本及日本人)』(도쿄)에 「광개토왕 비문의 진실-군사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신묘년 기사의 검토-」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창간 110년 기념호에 발표(1998. 4. 1.)되었습니다. 이 잡지를 일본통이요 또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지명관 교수에게 보냈던바, 아래와 같은 회신(1998. 4. 10.)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日本及日本人』을 잘 받았습니다. 곧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본 놀라운 글을 이런 右派 잡지가 실어주다니 참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字句만 따졌는데, 군사작전능력에서부터 분석한 글 정말 귀중한 글이라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형, 내가 때때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일본의 고대사학계의 전문잡지, 『동(東)아시아의 고대 문화(東アジアの古代文化)』의 편집부에서 『日本及日本人』에 발표했던 글을 전재(轉載)했으면 하는 요청이 왔기에 허락하여 전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일,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전사부에서 전사부 군사사학자 및 교수들에게 「한 군사사학도의 연구궤적」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 발표했을 때도 ‘기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나,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 안보문제를 다루는 『일본전략연구(日本戰略研究)포럼』회지(會誌)(2008. 7.)에 「한국 신체제와 한일관계-고대사의 사실(史實)을 둘러싸고-」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기사’의 허위성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박형, 그런데 나는 최근 놀라운 사실을 신문 머리기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즉 「日 학계 일본의 가야 지배설(說) 폐기」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양국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공식 폐기됐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최종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양국 학자들은 서기 4~6세기 왜(倭)가 가야에 군대를 파견해 정치기관인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조선일보〕, 2010. 3. 23.)

그런데 신문기자의 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기사에서 “이 주장에 대해 일본 스스로가 폐기했다”고 적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을 스스로 연구해서 폐기했다는 뜻인지?

박형, 일본의 도쿄 교직원 노조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동아일보』 2011. 10. 29.)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여 가르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독도연구소에서 한글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잡지와 언론기관에 그 사실(史實)을 밝히는 글을 발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박형, 오늘은 이만 줄이고, 형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5기 사관 **신 건 우**
제122대대 1편대장

TOP GUN 소감

눈 내리는 성무대 언덕을 밟고 공군사관생도의 꿈을 꾸지 어느덧 19년이나 지났습니다. 1997년 생도로서의 동지를 떠나면서 전투조종사의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공군사관학교는 아직까지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고향입니다. 저에게는 군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배웠던 곳입니다. 올해 1월, 공사 64기 예비생도들에게 전투조종사의 삶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멋진 공군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씩 걸어나가는 그들을 보며 제 걱정은 한낱 기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예비생도들을 통해 제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998년까지 비행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공군 팬텀의 요람 제151전투비행대대로 전입하였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비행훈련 시절에는 하루하루 비행소티 소화하기도 힘든 '곰발' 조종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전투대대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과 비전을 선배들로부터 배웠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꿈꾸던 전투조종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F-4 팬텀을 조종하면서 가장 깊이 배웠던 점은, 선후배, 전후방석간의 끈끈한 전우애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복좌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배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 또는 왜 후배들이 못하냐고 질책하기보다는 후배들의 능력을 이끌어 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선배이자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었기에 비행대대 교관 및 29전대 교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 F-15K로 기종 전환하였고, 전환훈련 과정 중에 이러한 면을 특히 강조하였기에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업그레이드 된 무기체계나 항전장비, 전술개념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복이 아주 많은 전투조종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은 저에게 바쁘고 힘든 한해였지만, 반대로 전투조종사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최고의 한해였습니다. 그중에도 1년간 저와 함께 고생했던 선후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매 사격대회 결과 1,000점 만점에 990점을 획득하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저의 동료들이 값진 노력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흐뭇한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떠나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고귀한 조국영공 방위 임무완수에 땀 흘리고 있는 선후배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비·무장사 및 지원요원들 모두가 진정한 탑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0기 사관 김 영 배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Ready for take off”

비상의 꿈을 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지도 어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 공사 60기는 지난 4년간의 정예화 된 생도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영예로운 공군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난 생도생활을 마무리하며 졸업 및 임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에 걸맞은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돌이켜 생각해보았다.

생도생활에는 1학년 ‘복종’에서부터 2학년 ‘모범’, 3학년 ‘자율’, 4학년 ‘지도’에 이르기까지 학년별로 각기 다른 모토가 주어진다. 이런 ‘다름’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복종의 의미에 대해 몸소 느끼고, 인내와 끈기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던 메추리 1학년 생도생활, 첫 후배를 맞이함으로써 솔선수범하는 자세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2학년 생도생활, 주어지는 자율에는 항상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3학년 생도생활 그리고 교내 최고학년으로서 사명감 하나로 학교를 이끌었던 4학년 생도생활.

우리는 이런 4년간의 생도생활 속에서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내면화하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졸업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

난 생도생활 중 작전참모생도, 63기 기본군사훈련 지도생도, 해외봉사활동 팀장, 행/패러글라이더반 반장 등 다방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참여하였고,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리더의

위치에서 출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도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드높이는 으뜸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을 잘 알고, 그 비전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난 항상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으뜸인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렇게 보낸 4년간의 시간들은 내가 장차 공군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난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생도생활 중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는 임지로 떠나려는 때, 나는 내가 졸업식에서 공사 60기를 대표하여 총동창회로부터 수여받는 ‘대표보라매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과연 내가 이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난 대표보라매상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대표보라매상은 결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상이 아니었다. 이 상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 우주 공군의 주역이 될 우리 60기에게 보여주는 선배님들의 큰 기대감인 동시에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신뢰와 사명이었던 것이다. 그 의미를 알고서야 비로소 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에 젖어들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 60기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맘껏 펼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몸도 마음도 완벽히 준비되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 적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신뢰받는 공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선진공군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를 넘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그 날까지 공사 60기는 언제나!

“Ready for take off!”



7기 사관 김국창

당신만 행복하다면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Sandra Day O'Connor)'는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이 됐다.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로 갈려 다툼을 일삼아 오던 대법원에서 '중도의 여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균형 감각을 지녔던 대법관이었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에도 흔들림 없이 법정을 지켜온 강인한 오코너 대법관이 2005년, 갑자기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법조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종신직인 대법관 자리를 미련 없이 내놓게 된 것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밀착 간호하기 위해서였다. 로스쿨에서 만나 열애 끝에 결혼한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로서 그녀의 좋은 보좌역이기도 했다.

부인의 헌신적인 간호와 사랑에도 남편의 기억력은 점점 쇠퇴, 자기 부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 요양원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그의 남편이 요양원에서 만난 한 여성 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오코너가 요양원을 병문할 때마다 남편이 새 애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장면을 목격하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거나 그의 환자애인을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남편을 즐겁게 해 주는 그 부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좋아해서라도 행복해지기만 하다면 나는 기쁩니다."라고 오코너는 말하곤 했다.

내 고향에 '서산덕'이라 불리는 부인이 있다. 중매결혼으로 만난 남편은 한량끼가 있던 사람으로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딱한 사람이었다.

처자식들을 돌볼 생각도 없이 세상 떠돌며 제멋대로 살아온 그가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병든 몸을 이끌고 조강지처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부인은 홀로 농사도 짓고 품도 팔며 온갖 고생을 감내, 어렵사리 3남매를 키워 결혼, 분가시킨 후 겨우 숨을 돌릴 만할 즈음에 남편이란 작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착하고 선한 부인은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든 남편을 불쌍히 여겨 받아들였다. 돌아온 탕자는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부인을 도우며 몇 년을 그럭저럭 지내더니 결국은 또 술을 먹기 시작했고 드디어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치료를 받고 겨우 깨어나기는 했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일생을 고생 속에 살아온 부인에게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다.

바깥출입도 못하고 방안에서 간신히 움직이는 상태로 지내면서 부인의 수고와 도움으로 약 사 먹고 재활치료 받으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그럼에도, 착하기만 한 부인은 ‘이런 남편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르겠다.’며 밝은 얼굴로 살아간다.

자식들 다 내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 일할 의욕도 없고 무료하기만 한 삶이었는데 그래도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집에 있어 움직이게 되고 사람 냄새라도 맡을 수 있으니 그래도 살맛이 난다는 그녀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며 “여보 나 왔어. 아픈 데 없어”하면 남편은 어눌하지만 “괜찮아, 어서 와요” 하며 누워서라도 반갑게 맞아주니 얼마나 고맙고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젊었을 때는 하도 속을 썩여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지금은 중풍환자로 고생만 시키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불쌍하고 귀하게 여겨지니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리 파이퍼는 “젊어서의 사랑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황혼의 사랑은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 아내마저 기억 못 하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는 오코너 대법관이나 30여 년을 타지를 떠돌며 살다가 돌아온 중풍병자 남편이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서산택의 그것은 차원 높은 행복으로서 심리학자 파이퍼가 말한 “황혼의 사랑은 상대가 행복해함을 보며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공감의 가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느끼는 고차원적 행복보다는 평소 건강한 부부관계로 사

는 평범한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니겠는가!

위의 두 여인의 경우를 보면서 이제 80대가 불원한 필자는 혹 아내가 앓아눕거나 병으로 입원할 경우를 상정해 보면서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큰 병으로 입원, 간호가 요구될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이 분명하지만 과연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소극적인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평소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며 위해주고 보살펴 주며 살아가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것이 최선의 대책이란 생각이 든다.

우선 부부간에 사랑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취사와 요리, 청소와 정돈, 운동과 건강관리를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친구요 동반자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마부(馬夫)론

- 훌륭한 지휘관은 유능한 마부(馬夫)가 되어야! -



11기 사관 명영남

군(軍)은 기르는 데는 천일, 쓰는 데는 하루아침이란 말(養兵千日 用在一朝)이 있다. 군은 싸워서 이기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는 천일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전쟁의 승리보다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억제력을 발휘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상의 가치는 최고의 대비 태세와 철통 같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준비로, 싸우지 않고 이기(不戰勝)는 것이다. 다음 가치는 장병 및 국민 교육으로 국가 안보관과 확고한 단결심을 확립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휘관은 계급과 계층별로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급지휘관은 임무형(任務型) 리더로 왕성한 체력을 기초로 하여 행동으로 부하를 이끌어 가고, 중견 지휘관은 계획형(計劃型) 리더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두뇌(頭腦)로 부하를 이끌어 가며, 고급 지휘관은 철학을 기초로 하여 덕성(德性)으로 부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초급 지휘관은 말고삐를 잡고 말을 끄는 것이며, 중견 지휘관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이며, 고급 지휘관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 것 같다”고 비유한 군사 전략가도 있다.

옛날 한 아라비아 왕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좋은 말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최상 최고의 좋은 말을 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최고의 좋은 말 100필을 구해서 조련사로 하여금 훈련을 시켰다. 나팔을 불면 달리다

가 또 다른 나팔을 불면 즉시 멈추고, “달리다가 멈추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반복하여 시켰다.

장기간의 강도 높은 훈련 끝에 수족같이 일사분란(一事紛亂)하게 움직이는 명마(名馬)가 되었다. 보고를 받은 왕은 직접 나와서 시험을 했다.

물이 있는 강가에 큰 울타리를 쳐 놓고 그 안에다가 100필이나 되는 말을 몰아넣었다. 말들은 고된 훈련 끝에 맛있는 사료를 보자 맘껏 배불리 먹었다. 왕은 말에게 사료는 넉넉하게 주되 마실 물은 절대 주지 말라 지시했다. 말들은 배는 부르지만 목말라 죽겠다고 몸부림을 쳤다. 가까이 강물이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며 물 냄새까지 물씬 풍기는 데 울타리가 있으니 넘어갈 수가 없었다. 말들은 고개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앞발을 높이 들고서 난동을 부렸지만 절대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이들이 지났다. 그다음에 강 쪽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말들이 강물이 있는 쪽으로 괴성을 지르면서 우르르 달려나갔다. 말들이 강물에 거의 왔을 때 정지 나팔을 불었다.

대부분의 말들은 들은 척 만 척 물로 뛰어들어가 텀벙거리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중 네 마리는 정지 명령에 따라 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딱 서 있었다.

바로 이 네 마리가 아라비아 명마(名馬)의 종마(種馬)가 되었다.

강한 군대는 명마(훌륭한 부하)와 명 마부(유능한 지휘관)의 만남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강하고 뛰어난 말과 가장 우수한 사람을 실전적 훈련으로 강인한 군대를 육성(育成)할 수 있다. 일사분란한 지휘체제(指揮體制)를 확립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군(軍)이 되어야 한다. 고난(苦難)이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역경(逆境)이 사람을 위대(偉大)하게 만든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공군의 에이스도 백련천마(百鍊天魔)의 고되고 실전 같은 훈련을 오랫동안 쌓아야만 태어난다. 총알이 비 오듯 쏟아지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생과 사의 악전고투를 수없이 치러야 천하의 명장(名將)이 탄생한다.

최고 지도자나 최고 관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진다. 그러므로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자질을 연마하고 다듬어야 한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뛰어난 리더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 좌우(左右)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소로천(蘇老泉)이 관중론(管仲論)에서 역설(力說)한 말은 마음속 깊이 명심(銘心)하고 반추(反芻)해야 할 것이다.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흥(興)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망(亡)한다. 현자(賢者)는 그 몸이 죽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나라의 멸망(滅亡)을 우려한다”.

87 공군 장학회

14기 사관 정성규
87장학회 이사장

2011년 12월 어느 날,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공군 교육사령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단법인 87 장학회'가 공군 가족 자녀들 중 7명을 선정해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그칠 날 없다는 요즘인지라, 더욱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장학금을 받은 서울 시립대학교 세무학과 3학년 신정민군(공군 교육사 신근식 준위 아들) 등 7명의 얼굴에도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제41회 장학금 수여식

대한민국 공군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감동이 남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87장학회는 공군과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공군장병 스스로의 힘으로 설립한 최초의 장학재단입니다. 그 역사는 24년 전인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군 87계획에 의거해 공군 교육사령부가 대전에서 경남 진주로 이전을 하던 당시, 사령관이셨던 고 공영화 소장(예, 공사 7기)과 지휘관 참모들이 장학 재단 설립의 뜻을 모았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와 사천 3훈비장병 및 군무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국가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군 장병 및 군무원 가족의 대학생 자녀였습니다. 특히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공군 현역 및 예비역만의 힘으로 설립해 그 의미를 더욱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0월 31일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87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공군 가족 자녀는 387명입니다. 장학금은 총 2억 4천150만원에 이릅니다. 지급 대상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설립된 1991년 이후 2000년까지는 공군교육사령부 및 3훈비에 근무하는 장병의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손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후 2001년부터는 광주 1전비 장병 자녀들, 2007년부터는 김해 5전비 장병 자녀들까지 장학금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간 1천여만 원으로 한정된 자원입니다. 향후 대구 11전비까지 확대해 남부지역에 위치한 공군 전 부대장병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2012년 현재는 교육사령부와 3훈비, 1전비, 5전비 등 4개 부대로부터 전·후반기 각각 20여 명을 추천받아 반기별로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자원은 87장학회의 뜻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87장학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크고 작은 암초를 넘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이신 고 공영화 장군께서는 친지들을 이사로 영입해 기부금을 적립했고, 이후 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현 이사 및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납입해 장학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장(예비역 소장 정성규)을 비롯해 이사(예비역 대령 최영작 외 5명), 감사(예비역 중령 김은수 외 1명), 예비역/현역공군 회원(예비역 준장 이기택 준장, 대령 김용덕 등 9명), 민간인회원(최대웅 외 5명) 등 총 24명이 회원의 전부이지만, 이들이 87장학회에 갖고 있는 애정과

열정만은 240명 부럽지 않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특히, 올해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대학 등록금 인상 등을 고려해서 2012년부터 1인당 장학금을 60만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이사 및 회원들의 기부금 액수도 불가피하게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에 모 이사는 군인 연금의 일정액을 매월 기부금으로 기부하는 등, 후배 장병 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회원들의 소망은 87장학회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87장학회는 제주도에서 ‘공군 나눔의 집(고 공영화 장군 사모님 이순희 여사 운영)’이라는 별도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매월 전국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보내주는 재활용품과 87장학회 이사들이 모아서 보낸 재활용품을 정리해 건당 1천원에 판매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제주도 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아동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라매 나눔의 집

공군 나눔의 집은 지역 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재활용품들은 공군 조종사 및 그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이라는 입소문을 탄 덕에 특별히 인기가 좋습니다. 불우한 이웃도 돕고 우리 공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재고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전투비행단 전 장병 및 공군 인사참모부 부장 이하 참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군 내부에도 장학기금 모금 행사나 조직이 많아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24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87장학회는, 분명히 그러한 흐름의 물꼬를 트는 데에 초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모두의 모범이 되는 장학회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다.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타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들만의 힘으로 우리 후배들의 자녀에게 도움을 준다는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초대 이사장이셨던 고 공영화 장군님의 순수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군이 우리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군의, 공군에 의한, 공군을 위한 '87 장학회'에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백담사의 가을



19기 사관 박창용

잡을 수 없는 세월을 찾으러 여행을 떠났지요. 어쩌다 떠나는 여행은 흘러간 세월의 자취를 볼 수 있어 정신세계를 넓혀주는데 여유로움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더군요.

동해의 푸른 파도는 예전과 다름없이 힘차게 출렁이는데 가을 바다는 번잡함이 없어 한적하더군요.

지난여름의 북적대던 수많은 인파가 내뿜던 소음들이 말끔하게 지워버린 해변에는 조용함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주더군요. 다만, 지칠 줄 모르며 끝없이 밀려와서 사정없이 부서지는 파도만은 예전의 그것과 똑같더군요.

그 왕성한 파도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영겁을 오가며 날카롭던 바윗돌을 깎고 깎아서 부드러운 조약돌을 만드는 거친 파도는 영원한 것일까요?

백사장을 걸으며 해변에 부서지는 하얀 물거품을 바라보면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면서, 파도의 영원성과는 달리 못 생명 있는 것들이 가야 하는 길이 너무 좁고 짧은 것이어서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한시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슬픔을 보았지요.

생 노병사라는 인간의 생의 한 주기가 끝이 나면 어김없이 돌아가야 하는 자연의 질서를 생각했지요.

내설악 깊은 곳 첩첩산중에는 계곡마다 뻑뻑하게 들어차 있는 송림이 하늘을 가린 채 오가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더군요. 아직도 계곡에는 여름의 푸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산머리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어요.

송림에서 뿜어내는 진한 솔 향이 코를 찌르는데 가끔씩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노랫 소리가 고요를 깨뜨리더이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좁다란 계곡에는 바위까지 하얗게 물들어 있는데 용케도 돌고 돌아 흐르는 옥수가 보석처럼 맑고 깨끗하게 보이더군요.

순간 복잡해진 마음의 티끌까지 옥류에 씻어서 청정한 몸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니 이내 부질없는 욕심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일찍이 선조들께서는 우리 산야를 금수강산이라 노래 했건만 이제는 맑은 물 보기도 쉽지 않게 되었으니 백담사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얼른 눈을 옮길 수가 없더군요. 군데군데 작은 웅덩이에는 푸른색을 띤 맑은 옥수가 넘치도록 고여 있어서 마치 하늘에서 하강한 선녀들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은 후 방금 떠난 것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조용히 흐르고 있더이다.

까마득한 계곡의 정상에 머물고 있는 흰 구름이 외로워 보이더군요. 보이는 것이 선경인지라 어느 한 곳인들 놓칠 수가 없어서 정신을 놓고 감상하고 있는데 이내 바람 따라 흔들리는 그윽한 풍경 소리가 정신을 일깨우더군요. 그리고는 긴 고요가 찾아와 몸을 감싸며 비로소 이곳이 백담사 고찰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지요.

산사에는 고요가 있다 하여도 내 마음의 고요로 이어지지는 않으니 그것이 속세에서 물든 번잡함 때문이라면 그냥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 족해야 할까요? 어찌 고요한 산사에 와서 공연한 욕심을 내다니 어리석은 인간이 갖는 욕망이 부질없고 끝이 없는 가 봅니다.

백담사에는 많은 사연이 얽혀 있더군요. 조국의 미래와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불심을 갈고 닦으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기도에 정진하고 마음의 다짐을 이루어서 중생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고 고승의 반열에 올라 청사에 길이길이 추앙받는 사람도 있고,

떠나간 권력의 무상함을 뒤돌아보며 솟아오르는 분노를 삭이느라 술한 밤잠을 설치면서 눈 덮인 산중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외로운 한을 달랜 사람의 사연도 있더이다.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는 한평생의 인생인지 그걸 어느 스님께 길을 물어보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지요.

산사에도 그리움과 외로움이 존재할까요? 세속에 얽힌 백팔번뇌를 끊고자 온갖 수행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정진하여 부처님께 다가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심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그리움일까요?

아무리 자신을 갈고 닦아도 도를 구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이 되었을 때 이를 수 없는 것의 한탄이 외로움 되어 다가올까요?

그러나 인간이 갖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본시 같은 것이라면 그리움과 외로움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간만이 갖는 때로는 부질없는 감정이 아닐는지요? 공연히 깨끗한 산사에서 세속적인 헛된 망상을 하였나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했으니 미혹한 마음에도 조그마한 지혜의 빛을 느꼈다면 여행의 보람은 더하지 않을까요?

이번 여행에서는 모처럼 눈을 즐겁게 하고 정신의 기쁨까지 얻었지요. 마음속에 존재하는 갈등과 욕심을 버리고 닦아서

어쩌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조금은 가벼워졌을 육신을 기대하면서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쌓아 가슴속에 안고 백담사를 떠났답니다.





22기 사관 **이 영 하**
전 레바논특명전권대사

레바논 소통 이야기

- 레바논 대사의 소통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

작년 9.14일 이른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05시40분에 일어나 아침운동을 시작하며 시야에 들어오는 베이루트 시내를 내려다보니 아침의 고요가 짙게 깔려 있어 무척 평화롭게 보였다.

내일이면 대사생활을 마치고 그리운 고국산하를 향해 귀국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스레 실감 났다. 레바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였으며, 그중에 한가지로서 페이스북 활동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근 직전에 잠깐 들어가 보았다. 페이스북 친구인 정진관님이 보낸 다음과 같은 글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항상 깨우침이 많은 글로 절차탁마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 아내, 돈, 친구, 취미 / 퇴직 5友를 꼭 챙겨라 /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에서 ----

신문글씨가 잘 안 보일 때, 턱밑에 나는 흰 수염을 볼 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나를 닮은 ‘늙은이’의 옆얼굴을 볼 때, 회식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앉을 때... 가끔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래, 이제 내 나이도 오십이지” 쉽 없이 달려온 남자의 인생이다. 직업에 따라, 삶의 자세에 따라, ‘나이 오십’을 느끼는 중력은 제각각이다.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50이란 숫자에 ‘공황장애’와 ‘당황’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천명’이 주는 공통분모도 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애뜻한 마음을 느끼고, 가족을 생각하며 세계 여행과

전원생활을 꿈꾼다. 중앙 선데이가 진행한 ‘남자 나이 50’ 설문에선 교수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도 있지만 자영업자, 장의사, 무명화가 등 만화경 같은 50대들의 삶이 서려 있다”

아침 시간에 그것도 귀국을 앞둔 시점에서 이 짧은 문장이 그동안 폐북 친구와 소통했던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레바논에서의 소통이야기의 첫머리가 되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의 서두에 옮겨 적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본인이 2년 6개월간 대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왔던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최근 정세 위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한 다음 소통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레바논은 지리적으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의 교차지역으로서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정치·종교·문화를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 따라서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민족적·종교적 마찰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아시아로 이어지는 최상의 무역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요소들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어 왔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국경분쟁과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제 분야의 문제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8월 3일에는 이스라엘과의 국경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이스라엘군 1명과 레바논군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바 있으며, 레바논 내 불법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적 견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레바논의 정치권력은 종파별 배분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통령은 기독교(마로나이트)가, 총리는 이슬람의 수니파가,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위직 종파별 안배는 어느 정도 정치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11년 1월 25일에 헤즈볼라(시아파 성향)가 지지하는 총리 지명자 ‘나집 미카티’가 레바논의 새로운 총리로 임명됨에 따라서 수니파 지지자들에 의한 반대집회와 과격한 시위가 레바논 전역에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Rafic Hariri 전 총리 암살사건을 조사하는 STL(유엔특별재판소) 문제처리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다소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 불안은 과격단체에 의한 테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레바논의 우리 교민이나 특히, UNIFIL(United Nation Interim Forces In Lebanon)의 일원으로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동명부대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사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동명부대와 함께 공조하여 첩보수집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동명부대와 대사관이 주기적으로 합동 정세토의를 실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준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전 유지 예방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부터 레바논에서의 소통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얼마 전 그동안 이메일 소통을 해왔던 후배장군으로부터 고민사항을 전해 들었다. 지휘관으로서 그의 고민은 일부 부대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성사고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전투력 발휘에도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군은 부대 정밀 진단 등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소통’의 문제가 실마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본인이 레바논 대사로 부임하여 2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특별히 ‘소통’에 관심을 갖고 대사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나의 영원한 전우들인 군 후배들에게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하면서 본인의 소통에 관한 소신과 적용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대화와 소통의 다른 점을 살펴보고 유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통의 가장 큰 기반은 신뢰라고 하며 그래서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오해와 불만을 야기하게 된다.

중국 진나라 효공 때의 명재상이었던 상앙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책을 고안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앙의 일화를 우리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고 부르며 “나무를 옮기게 해서 신뢰를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상앙은 남문에 나무 하나를 세워놓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십금(十金)을 주겠다”고 백성들에게 공약하였으나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상앙은 다시 두 번째 공약을 내놓았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한 백성이 반신반의하며 나무를 이동하였고 상앙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즉시 오십

금을 지급하였다. 어떻게 보면 상앙의 터무니없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일화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성공적 소통사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굴지의 기업들도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강조하여 정서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사경영을 해나가고 있다.

미 소프트웨어 회사인 SAS 회사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며 형식적 소통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지는 소통채널로 직원들의 호응을 얻어 성공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본인은 대사로 취임한 이후 앞에서 언급한 소통에 관한 이론적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대 국가 간의 소통, 대사관 조직과 업무수행차원의 소통, 개인 차원의 친지/친구간의 소통 등 3가지 차원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 정성을 기울였다.

첫째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소통 문제는 2011년도가 한-레바논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착안하여 2010년 초부터 한국과 레바논간의 협정 체결 상황을 점검하고 3가지 소통 강화 협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까지는 양국 간에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만이 존재하고 있어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문화협정, 외교관/관용 여권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환경협력 양해각서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대사직을 끝내기 전에 서명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완료하여 개인적으로 크게 자부심을 느낀다.

또 하나의 예는 인적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일이었다. 우선 양국 간에 수교 30주년이 되었어도 동포사회발전이 미진 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한인회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인들의 대표적 창구가 부재하였는바, 대사가 직접 소통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민들과 여러 번의 면담과 설득을 통하여 2011년 5월에 한인회를 최초로 출범시켰으며, 레바논 대사가 관할국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시리아도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시리아 한인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한-레바논 의원 친선 협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의원 외교채널이 없음에 착안하여 2010년 6월에 레바논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계기에 의원 친선 협회 구성을 적극 건의하였는데 레바논 국회의장이 2010년 9월에 한-레바논 의원 친선 협회 활동을 하도록 5명(128명의 의원 중 5명)을 지정하여 대사관에 통보하여 주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문화행사, 국경일 기념행사, 태권도 시범행사 등에서 양국 간의 가교역할과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 가지 자랑스럽게 언급하고픈 사항은 한국-레바논 친선 협회를 재창립한 사실이다. 본인이 2009년 3월에 대사로 부임하자 친선협회 임원 5~6명이 대사관으로 초도면담을 왔었다.

그러나 본 협회는 거의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소극적이었으므로 국가 간의 소통채널 기능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임 1년 반이 지난 2010년 9월 그동안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나 상품에 호감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에게 한-레바논 친선 협회 재창립 소식을 전하고 참여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교육·예비역 장성 등 사회 각 분야의 유력인사 100여 명 모두가 참여하겠다고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명무실했던 한-레바논 친선협회가 100여 명의 유력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2011년 6월 새 출발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친선협회로 탈바꿈되었으며 협회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변모하였다.

다음으로, 대사관 조직과 업무수행차원의 소통문제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전 대사관직원들에게 상호간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을 강조하였고 특히 우리 한국 외교부 직원과 레바논 현지 채용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편견과 차별 없는 조직 관리는 원활한 소통과 안정적 조직 운영의 기반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강조하였다. 특히, 소통의 3대 영역인 업무적 소통과 창의적 소통, 그리고 정서적 소통 중에서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매주 월요일 직원 조회를 실시하여 상호간 업무적 소통을 완료한 후 타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개인별 의견 발표시간을 5분씩 부여하였고, 분기에 1회 정도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저 오찬/만찬을 통하여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회의 마지막에는 4~5가지의 리더십 참고 자료를 대사가 직접 준비하여 유인물로 배포하고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후배 외교관들의 리더십을 함양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의 업무능력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직원조회를 활용하여 감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양방향소통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대사관’, ‘출근하고 싶은 대사관’ 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자부해 본다. 아울러 영사로 하여금 현지 레바논인 직원들도 주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각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정서적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중동 민주화 혁명(재스민 혁명)의 성공요인의 한 축이 되었다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관한 대사관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싶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의 역할과 비중이 적은 체제인 경우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민간의 역할과 비중이

큰 체제인 경우 여론 선도그룹(엘리트, 종교계, 학계 등) 및 여론 확산매체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SNS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레바논은 나라의 소규모이나 언론매체가 대단히 발달하였으며 SNS 활용도도 매우 활발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대사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페이스북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이며, 대사 부임 직후인 2009년 후반기부터 페이스 북에 가입하였고 대사의 활동이 한국의 긍정적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안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2009년에는 베이루트 국제 마라톤에 전 대사관 직원이 참가토록 하여 주최측을 놀라게 하였으며 2010년도 대회 때는 6개국 대사(영국, 스페인, 루마니아, 벨기에, 한국, 체코)가 릴레이 마라톤에 참가하였는바, 레바논 언론계에서 특별한 찬사를 받은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레바논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연계하고, 레바논 국민들이 한국 관련사항을 쉽게 접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코너를 facebook 내에 만들었다. 2011년부터 “Hello Lebanon Meet Korea”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하였으며, 103명의 친한 인사가 등록하여 한국 관련 소식을 계속 공유함으로써 장차 한-레바논 관계 증진과 호혜적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은 UN 안보리 결의안 1,701조에 의거하여 2007년 7월 19일 최초로 제1진이 남부 레바논 지역에 파병전개한 후, 만 4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없이 최고의 작전성과를 올리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동명부대의와 소통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서두에서 소개한대로 분기 1회씩 합동정세토의를 실시하여 대테러 첩보수집과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6대 단



장으로 부임한 김태업 대령과는 특별한 소통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사작전 측면에서 “Korea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친 한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에도 대사관과 동명부대가 서로 힘을 모았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모두가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이 분야 성공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지난 2010년 외교부 주관 방한연수에 참가했던 레바논 제1의 방송매체인 LBC (Lebanese Broadcasting Corporation) TV의 앵커는 대한민국 예찬론자가 되었으며,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개막식에 자발적으로 사회진행을 맡아 현지 방청객들에게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대사가 직접 LBC TV 생방송에 출연토록 협조해 주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동명부대에서 실시하는 방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사관과 동명부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군작전 성과를 남부 레바논 주둔 지역만이 아닌 레바논 전역으로 확산시켜감으로써 동명부대의 활동상과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시행한 친지/친구 간의 소통 원활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은 공군에 전투조종사로 재직하면서 80년대 초반 소령시절에 주 독일 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경험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있다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 왔으며,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위관급 장교였을 때는 영관급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면서 자신을 개발하였고, 영관급 장교였을 때는 장차 장성이 되었을 때의 자신을 그려보면서 준비했었다. 결과적으로 공군에서 전역한 후에도 조직 경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의 4T CEO 과정에 입교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네트워킹과 소통을 강화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사직에 임명됨은 물론 많은 개인적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7년 8월에 공군 참모차장 직으로부터 전역한 이후, 2008년도에는 한국 지속가능학회 주관

의 개인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도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CEO과정에서 선정한 ‘2009년도 자랑스런 원우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도 연말에는 계간 ‘문예춘추’ 사의 수필분야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여 문단에 등단하게 되었으며, 2011년 9월에는 레바논 대통령궁에서 레바논국가 공로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친수 받았고, 귀국 후 2012년 2월에는 ‘2012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12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공로대상을 수상하였고, 4.30일에는 ‘열린 문학상’ 대표와 충헌공으로 시호를 받은 박 문수 암행어사의 종가인 고령박씨 대종회의 공동주관으로 제정한 ‘황금 마패상’을 수상함으로써 전역 이후 5년 연속 영광스런 수상을 계속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와 정서적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물이었다고 확신한다.

본인은 공군사관학교 재학 중일 때 “군인의 시적 체험과 시인의 군인수련은 전인 형성의 기틀이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으며 나중에 현역 부대장 시절에는 이러한 메시지를 지휘 관리에 적용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한 부대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문학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많았고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는 교지 <성무>에 자작시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문학적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키워 왔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레바논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고국에 있는 사랑하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안부편지를 수필식으로 써서 보내드리기 시작했었다.

소위 이영하식 소통 활성화와 인연 심화시키기 노력의 일환이었다. 레바논에서 보고 듣고 일하면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하여 지인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글을 쓴 것인데 결과적으로 신인문학상까지 받게 되었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과 우리들 마음에 깔려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 나갈 작정이다.

끝으로 본인이 군에 있을 때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되새기는 말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물에 가서 송농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는 것이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1년에 백번의 작심삼일을 하면 원래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군 후배님들이 레바논 소통이야기를 기반으로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여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소통의 역량과 자세를 갖춰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통의 달인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비행생활과 우주의 신비



19기 사관 이 영 순

전투조종사생활 25년, 모교에서 비행교수생활 9년, 사설(私設) 승진비행학교 교관생활 2년 등, 36년간 공적(公的)인 비행활동의 비행시간을 모두 합하면 6,420시간으로, 하루 24시간 나누어 보면 267일로 8.9개월 동안 하늘에서 체공한 시간이며, 특히 팬텀 조종사로 야간비행시간이 347시간으로, 1년 365일에서 며칠 모자라는, 1년 내내 야간비행을 한 기록을 되새길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그리고 1970년 여의도 비행장에서 처음 L-19 초등비행훈련기에서부터, 각종 전투기, 훈련기, 경비행기에 이르기까지 18개 비행기종을 조종한 비행생활이 내 인생에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36년간 비행생활 중에 깊게 각인된 여러 가지 체험들은 경이로운 중압감과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흥분되어진 그 순간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첫번째 체험은, F-4D 시험비행 중에, 고도 54,000ft 상공에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60,000ft에서는 까만 하늘이 내 머리에 닿는 중압감과 공포적인 스릴을 느끼면서, 마치 깊은 물 속에 잠기는 것 같은 침묵에, 나의 심장박동소리만 크게 울리며, 태양을 바라보니 빛살이 바래어져, 그을린 유리에 일식현상을 관찰했던 초등학교시절의 태양처럼 빛을 잃은 태양이 신기로웠다. 그리고 착륙 후 낮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집중이 잘 안 되고, 검은 하늘에 부딪힌 충격에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었다.

중국에서 지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선조 12년부터 교육해온 천자문(千字文)에 첫 문장이 天地玄黃으로 시작되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의 의문이 풀림과 동시에, 과학기술이 작

금에 비해 현격히 미진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까만 하늘의 원리를 알고 간파했을까? 실제로 내가 체험한 이후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끊임없는 의문점이 연상되어졌다. ‘까만 하늘이 어떻게 푸른 하늘로 보여 지며 아침, 저녁노을이 저렇게 붉을까?’ 아울러 바다의 물빛 색깔이 당연히 무색이지만, 하늘색에 따라 변하는 바다색깔, 수직에서 깊은 바닷물 속은 역시 검은 색깔(예:玄海灘)이다. 조종사들이 해상작전 할 때, 비행착각에 참고할 사항들이다. 하늘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층층이 그 구조와 특징이, 지상의 생명체를 보존하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충격적인 체험은, 팬텀기로 야간비행 중의 현상이었다. 그날은 장마기간 중이어서 지상임무에 제한을 받다 보니, 비교적 많은 비행편대가 야간요격임무로 동시다발적으로 비행 임무를 하기 때문에, 자주 항적이 겹쳐 공중충돌의 위험 때문에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복잡한 무전이 다소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는 우리 비행편대를 아예 고도를 높여 30,000ft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니 한결 여유로워졌다. 나는 교관자격으로 후방석에서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흰 구름이 덮여 있는 듯하여, ‘혹시 비행기가 배면상태로 날고 있지 않나?, 혹은 비행착각에 빠지지 않았나?’ 짧은 시간에 혼란이 초래되면서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니, 비행임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높은 고도에 무슨 구름이냐?’ -장마철의 구름은 대략 10,000ft에 형성됨- 다시 한 번 유심히 쳐다보니, 그것이 구름이 아니라 별무리들이었다.

‘아-!!! 어쩔! 구름처럼, 모래밭 같은 별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아-!!!’ 충격적인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짧은 순간이나마 저 별무리 속에서 팬텀기를 타고 수영(遊泳)하는 나!, 만화영화에서 우주의 별들을 스치는 슈퍼맨이 된 나! 시정장애요소들이 적은 그믐날 밤의 조건에서 마치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황홀하게 쳐다보는 경이로운 우주의 신비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의 존재는?’ 한없는 영상(靈想)이 우주의 신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탐사 위성(WMAP; Wilkinson Microwave Autotroph Probe)이 지상 150만Km 상공에 떠있으면서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광활한 우주를 과학자들은 거시세계(巨視世界)라고 한다. 내가 비행기에서 본 밤하늘의 구름처럼 우윳빛 띠처럼 보이는 은하(Milky way)에는 약 1,000억~2,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너비가 대략 10만 광년이나 되는 나선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옆에서 보면 얇은 원반모형을 하고 있지만, 이 원반의 두께는 무려 2,000광년이 된다고 한다. 태양계가 속해있는 우리

은하 이외에도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NASA의 발표에 의하면 우주의 별 수는 70조가 넘으며 우주의 지름은 2억 광년이나 된다고 한다.

우주와 인간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즉 거시세계(巨視世界)의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 인간의 인체의 세포 조직은 0.02~0.03mm 정도의 미물(微物)에 불과한 세포가 생체를 지켜나가는 기본단위라는 사실이 실로 경이롭다. 공교롭게도 인체를 이루고 있는 정교한 유기체의 세포 수가 75조 개라는 것을 두고 인체를 소우주(小宇宙, microcosm)라고 칭하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신기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거시세계(巨視世界)의 신비로움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시세계(微視世界)의 신비도 거시세계(巨視世界)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미크기 1cm, 즉 10^{-2} 미터이고, 바이러스는 1마이크로미터, 즉 10^{-6} 이고, 분자는 1나노미터(nm), 즉 10^{-9} 미터이고, 원자핵은 10^{-14} , 양성자는 1펨토미터(fm), 즉 10^{-15} 이다. 그리고 쿼크(quark)는 10^{-35} 미터이다.

인간탄생의 수태과정에서 건강한 청년의 경우 정자 수가 3억 마리 전후로 - 7천만 마리 이하의 불임의 원인 - 수태과정에 여성의 질 벽을 통과할 때, 산성과 알칼리성의 치열한 각축전을 치를 때, 먼저 출발한 정자가 희생되어지면서 여성의 질을 녹이며 동료 정자의 길을 열어주는 희생에 의해 한 정자가 자궁에 안착하면 수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 한 인간의 생명은 1/3억의 확률로 수태되어지며, 더욱 경이로운 사실은 안착된 한 마리의 정자에 인자(人子) 정보(情報)는 영국 대영백과사전의 단어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우주의 신비 못지않게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신기하고 고귀한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닌가? 이 한 인간은 시인(詩人)이 되어 눈에 보이는 우주창공의 별들을 가슴에 쓸어 담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을 높이 찬양하기도 한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삶 속에서 온갖 것을 맛보고 음미하는 인간이 우주신비(宇宙神秘)의 중심축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주와 더불어 인간의 고귀한 탄생과 존재는 미시(微視)와 거시세계(巨視世界)의 신비와 더불어, 우주의 신비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참으로 오묘할 뿐이다.

세 번째 체험은, 속도와 거리, 그리고 세월이다.

팬텀의 최대속도는 음속의 2.4배(Mach 2.4)이다. 즉 음속 2.4배로 10분간 날아가면 489.6Km의 거리에 도달하므로 한반도를 10분에 주파할 수 있기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우연하게 지구의 공전속도를 알고부터, 속도가 빠른 팬텀기를 조종한다고 자랑하곤 마음의 사라졌다. 그것은 지구의 공전속도가 1초당 29.75Km, 즉 음속 87.5배의 속도 앞에 어찌 M2.4를 자랑할 수 있으리오. 또한, 이 지구의 공전속도가 바로 세월이란 개념정

립을 하면 할수록 깊은 철학과 사색에 잠기게 된다. 일반인들은 별로 깊은 생각 없이 세월은 流水와 같다고 한다. 의식하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지만 실제로는 음속의 약 88배로 질주하고 있음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을까? 그런 선상에서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1시간만 살다 죽더라도, 1시간 동안 지구가 날아간 거리는 107,100Km로 지구를 약 3바퀴 -지구둘레 ; 40,192km- 회전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구의 100년이란 세월은, 우주 한가운데서 셈할 때에는 6.75시간에 지나지 않으며, 4만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계에서는 약 101일, 즉 3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주 안에 유(有)와 무(無)가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생활(飛行生活)은 4차원세계(次元世界)이다.

0차원이란 한 점으로 위치만 있고 크기, 길이 넓이가 없으며, 1차원은 기하학적으로 선(線)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며, 2차원은 평면으로 가로 세로가 있으며, 3차원은 입체공간에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것은 일반상식이다. 4차원은 3차원의 입체물체에다 시간(Timing)이 부여되면 무생물체가 생명을 지니게 된다. 즉 비행기 자체만으로 주기장에 대기하고 있을 때에는 3차원의 공간에 서 있지만, 조종사가 목적의식(일명 Timing)을 가지고 시동을 건 순간부터 항공기는 생명체의 역할을 한다. 창공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비행하는 것은 4차원의 영역에서 새처럼 4차원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목초(木草)는 생혼(生魂), 동물(動物)은 각혼(覺魂) 그리고 인간(人間)은 영혼(靈魂)이 모두 4차원세계(次元世界)의 영역이다. 생명이 없는 죽음 즉, Timing이 끊어지면 그것은 3차원의 물체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영공수호(領空守護)를 위한 비행생활이야말로 숭고하고 차원(次元) 높은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비행생활(飛行生活) 중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바늘구멍으로 우주(宇宙)의 신비(神秘)를 보고 깨달으면서 깊은 사색(思索)에 문혀 느끼는 것은,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더욱 깊어지기만 하며,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도 결국은 신비(神秘)롭지 않은 것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여 한계를 벗어나면 신비(神秘)라는 용어 외에 표현할 길도 없다. -인간(人間)은 우주(宇宙)만큼 신비(神秘)롭고 고귀(高貴)한 존재(存在)임에 틀림없으니까....

별무리 속에 빠진 나

별무리에 갇혀
별 속으로 빠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나

모래시계 모래 빠지듯
박테리아 씨앗처럼
더 작게만 녹여지는
별무리 속에 魂이 遊泳한다.

검은 밤, 깊은 곳
존재하는 생각의 나래
우주보다 더 크다

莊嚴과 神秘들
구슬 꿰매어
내 가슴 안에
조용히 잠들고 있다.



24기 사관 유 원 봉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가?

군 생활하면서 그동안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전역 후 제2의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매년 배낭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로 TOUR PLANNER, 여행 작가, 사진작가로 군 경력과는 별개의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여행자가 버림과 채움으로 여행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오는가? 길 위에 선 여행자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진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채워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홀로 떠나는 배낭여행은 새로운 삶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명인 행복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다. 실제로 배낭여행자의 대부분이 그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으로 삶의 행복을 꼽는다. 전 세계를 돌며 여행을 하는 동안 당

신의 하루는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 맛을 음미하듯 또 하루는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 찬 흥미로운 블록버스터 (BLOCKBUSTER)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떠나라!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DO WHAT YOU WANT!

훗날 자신의 삶을 인생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런 고민 후 배낭을 메고 떠나기로 했다면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저지르는 순간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믿고 결단하라!

나는 1983년 미국에 비행훈련 목적으로 '넬리스 (NELLIS)' 공군기지에 파견되기 위해 최초로 해외에 첫발을 디뎠다. 힘들고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비행 훈련이었지만 흥분되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랜드 캐년(GRAND CAYON)'의 경이롭고 웅장함에 그저 입만 벌어질 뿐이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감동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후 1990년 미국에서 짧은 유학기간 동안 아틀라스 지도(ATLAS MAP) 한권 들고 미국을 살살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금요일 떠나 월요일 새벽에 귀가한 적도 많을 정도로 여행에 심취했다.

그 후 공부를 마치고 귀국 중 유럽을 한 달 정도 배낭 메고 기차여행을 시작으로 여행에 빠져들게 되어 틈만 나면 떠나면서 지금까지 50여 개국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든다. 나는 그동안의 노하우(KNOWHOW)를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과감한 결단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HAPPY BACKPACKER가 되어 제2의 행복한 삶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즐거운 배낭여행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무조건 떠나는 여행은 있을 수가 없다. 이웃 동네 놀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치밀한 여행 계획만이 새로운 미지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행계획을 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여행경비와 환전은 어떻게?

경비에 따라 여행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경비에는 항공권, 숙박비, 기타경비(식사, 입장료, 일반 교통비), 예비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항공권, 숙박비 등은 거의 여행 출발 전에 거의 확정적이지만 기타 경비, 예비비 등은 불확실한 항목이 될 것이다.

경비는 여행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인터넷(INTERNET), 여행 책자 등에서 물가 등을 판단하여 쉽게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환전은 무조건 많이 해결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대략적 산출 금액을 초과되는 것은 ATM기에서 인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VISA, MASTER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에서만 현금결제를 한다. 일반 경비는 여행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해외에 가서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행지의 역사, 문화를 마음껏 경험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야 할까?

먼저 어느 곳(여행지)으로 갈 것인가?

먼저 평소 가보지 못한 정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여행지의 정치적 안전성 외부 자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기에 따라 여행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여행자라면 비수기에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여행 지역, 국가를 확실히 정하고 최소 비용으로 여행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고 싶다면 어느 국가, 어느 곳을 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다음 어떻게 루트(ROUTE)를 잡아야 할 것인가?

동남아 국가의 경우 국내 육로 이동시 '인프라(INFRASTRUCTURE)' 문제로 비행기로 2시간 거리가 8~10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라도 이동하면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게 된다. 동남아의 경우 '저가 항공'이 발달하여 적은 비용으로 항공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수단도 루트 (ROUTE)에 대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10년 38일간 동남아 6개국 여행 시 16회의 항공기를 탑승하였지만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런 경우 항공일정을 잡을시 국가 간 항공일정에 국내 항공일정도 계획에 연계 포함해서 계획해야 한다.

많은 저가 항공사가 운행되고 있는 만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둘째 여행 목적지(국가)의 어디를 볼 것인가?

그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볼 것이 많은 나라는 더 많은 일정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행 가려고 하는 지역은 처음 가는 곳인 만큼 정보가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 그 정보는 여행 '가이드북(GUIDE BOOK)', '인터넷 카페(INTERNET CAFE)', 여행국의 문화원, 관광 여행 사들이 선호하는 여행지가 어딘가 등을 참고하여 일정을 결정하면 된다.

정보가[당겨줌] 부족한[당겨줌] 나라에서는[당겨줌] '론리 플래닛 LONELY PLANET(www.lonelyplanet.com)'에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주어진 기간에 방문지가 결정되면 이동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항공 이동시 이용 가능한 항공사에는 어떤 곳이 있는가? 'stop over'는 어느 국가 등의 티켓 조건 확인이 필요한데 어디에 'stop over'를 하느냐에 따라 일정 및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공 티켓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루트(ROUTE)'가 결정된다. 정확한 정보(운항날짜, 시간 등)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철도, 버스 이동시간은 여행책자에서 확인 가능 하지만, 변동성으로 참고만 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면 된다. 현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셋째 항공권 구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국이 결정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티켓구입이다. 성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성수기에 항공권은 늦어도 2~3개월 전에 구매한다. 항공권이 확보되면 여행국 내의 국내 항공권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정보 수집을 한 후에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 구입은 미리 할수록 프로모션(PROMOTION) 상품이 많고 하루 차이, 즉 요일에 따라 요

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일정 조정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최종 일정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항공권은 '구글(GOOGLE)' 검색 엔진 검색창에 'cheap airtickets or airfares'을 치면 쉽게 많은 가격비교 사이트 및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다. 참고로 'www.lowcostairlines.org', 'www.discountairfares.com' 등에서 비교해서 저렴한 '티켓(TICKET)'을 구입할 수가 있고 호텔도 같이 예약가능하다. 여행

루트가 결정되면 국내 여행사에도 문의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잊지 말자.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 시 인천에 출발하는 항공권일 경우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미얀마(MYANMAR)’ 항공권 구입 시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하였는데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계획 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간에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이점이 있었다. 동남아 오지 국가 같은 곳은 한국 국내에서 항공권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구글(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쉽게 직접 항공사 홈페이지를 찾아 구입할 수 있다. 언어가 힘들면 ‘구글(GOOGLE)’ 번역 툴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넷째 여행지의 숙소 예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숙소 예약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약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4성급 이상의 호텔이 싸다고 해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면 그림의 떡인 것이다.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배낭여행객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사항은 여행지에 위치하면서 버스, ‘트램(TRAM)’, 지하철로 찾기 쉬운 역세권인가? 시설, 조식제공, 요금 등을 고려하고 타 여행자들의 평가 등을 최종적으로 참조하여 결정한다. 또한, 전 일정에 대한 호텔예약은 여행지의 불확실성으로 여유가 충분한 일정이 아니라면 최초 입국 시 만 하고 나머지 일정은 현지에서 직접 호텔을 잡는 것을 추천하고 요즘 같은 ‘스마트 폰’ 시대에는 ‘AGODA’, TRIP ADVISER’ 앱 같은 예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예약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INTERNET) 예약 사이트는 역시 ‘구글(GOOGLE)’ 검색엔진을 통해서 ‘cheap hostel or hotel’ 로 쉽게 검색할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참고하여 예약하면 된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는 ‘www.hostelbookers.com’ ‘www.agoda.com’ 이다. 커미션도 없고 타 ‘사이트’에 비교해서 같은 숙소라도 가격이 저렴하다. 호텔이나 항공권 예약 시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불 조건이라든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의 취향,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낭여행자라면 숙소는 휴식의 즐기는 장소라기보다는 잠만 자고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쓰는 ‘도미토리(DORMITORY)’ 같은 숙소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행경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자와 대화를 통해 문화와 여행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여행 다니다 보면 밤 9~10시 넘어서 호텔에 도착하게 되고, 일찍 호텔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의 이동 교통수단이다.

공항에 도착하여 호텔로 이동한다든가 여행지로의 이동수단, 여행지에서의 교통수단 등이다. 이것은 호텔예약 시 가장 큰 고려사항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여행 목적지의 최 인근에 숙소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불편하지만 참여행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일정에 여유가 없을 경우는 부득이 항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여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여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 번만 경험을 쌓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일반 여행사에는 ‘자유여행’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 호텔, 에어 팩(AIR PACK)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항공권, 호텔예약 대행, 그리고 맞춤 배낭여행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배낭여행 상품도 ‘길라잡이’가 있어 좀 더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여행할 수 있는 상품, 세계 각국인 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다국적 배낭여행’ ‘한국 AGENCY: www.shoestring.kr, www.baenangpark.com)도 있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기 스타일(STYLE)에 맞는 여행을 계획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겨 봄이 어떨지...

편안하고 안락한 관광에서 벗어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진정한 그곳에서 골목길을 걸어보고 전통시장, 벼룩시장, 길거리 먹거리를 즐기며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면 말이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 즐거움으로 준비과정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것도 여행에 대한 즐거움 때문이고 행복함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행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가져 다 준다고 확신한다. 여행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게 되었는지, 여행하다 보니 건강관리가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을 가져 다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이 가고는 싶으나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언어에 대한 소통 문제였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군에서 생활하고 배운 배경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다녀온 국가들이 영어권이 아닌 국가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인생은 어느 정도 경제력과 충분한 시간이 허락한다고 생각할 때 용기 있는 결단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내일을 위한 여행계획이 흥분되는 것은 오직 나만이 아니고 모든 BACKPACKER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 글이 다소나마 해외 배낭여행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세한 준비과정, 고려사항,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담 등을 같이 나누고 싶다.

끝으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부르짖었던 'Carpe diem! Seize the day, Make your lives extraordinary'을 상기하며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 내 축제의 시간을 내일 올 소낙비 걱정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



히말라야 임자체 등정기(登頂記)



19기 사관 이 달 호

전역을 앞두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잠 못 이루는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몰려왔다면 이제 부터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전역 후 첫 해외여행지로 히말라야를 선택한 것은 실제로 자유를 확인하기 위한 몸짓이었다. 2004년 초의 일이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를 느끼려거든 히말라야로 가라.”는 어록이 돌아다닐 정도로 히말라야가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11년에 다시 한 번 히말라야를 찾았다. 이번에는 히말라야의 자유가 아니고 등반을 맛보겠다고 나선 것이니 그야말로 간이 부은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내가 퇴직한 후에 여가활동으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활동이 등산이었는데 매주 한 번꼴로 국내의 여러 산들을 올랐고 간간히 해외의 높은 산에도 다녀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킬리만자로(5,895m)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최고봉이고 엘브르즈(5,642m)는 유럽 대륙에서의 최고봉이라 등반 성공에 대한 성취감이 남달랐던 것 같다. 또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30m) 트래킹은 전역 후 처음으로 시도했던 해외 산행이었기 때문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로부터 언제부터인가 내 생전에 6,000m 이상은 올라가 보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을 갖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2011년 봄에 드디어 히말라야에 있는 임자체(Imja Tse)를 등반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임자체는 해발고도 6,189m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8,848m)와 인접해 있으며 아일랜드 피크(Island Peak)라고 더 잘 알려진 봉우리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해외산행을 위한 팀이 구성되었고 2011년 4월 7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7시간의 비행 끝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하였다. 8명의 동반자 중에는 최고 연장자로 공사 17기 김운태 선배도 함께 동행하였다.

등반의 시작은 카트만두에서 국내 선으로 30분가량 동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루크라(Lukla)에서 시작되는데 루크라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은 본격적으로 원정대를 꾸리는 일이다. 주로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등반에 필요한 짐을 꾸리는 일인데, 지원 인력으로는 등반 가이드, 요리사, 포터, 잡일을 거드는 보조원 외에 야크를 부리는 마부 등 모두 10여 명의 현지인들이 선발



되었고 이들과 함께 야크 7마리가 우리들의 등반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천천히 걷는 것이 히말라야 등산의 기본 원칙이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운행해서 대략 500m 정도 고도를 높이면 하루 일정이 끝난다. 등정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드디어 에베레스트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등반 5일째부터는 고도가 4,000m를 넘어가면서 고소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산소가 부족하니 숨을 헐떡이게 되고 간혹 몸의 움직임이 빨라지거나 커지는 경우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왕성하던 식욕이 한풀 꺾이는 시점도 바로 이맘때인 것 같다. 거기에도 물이 바뀌어서인지

자주 찾아오는 설사 증세는 점차 체력적 부담을 안겨준다. 또한, 이곳 고산지대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금방 어둠이 찾아오고 기온이 급강하하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 금방 감기증상이 나타난다.

등반 7일째에 드디어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였다. 해발고도 5,080m인 이곳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보이지 않고 온통 황량한 돌무더기 천지다.

등반을 시작하고 9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이하였다.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4시간 정도 올라 5,600m 지점인 하이 캠프(High Camp)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했다. 저녁 식사로 밥 몇 숟가락을 억지로 먹고 몇 시간 동안 침낭 속에 들어가 억지로 잠을 청한다. 몇 시간만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데 제대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자정 무렵에 기상하여 정상등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마늘 수프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중무장 차림으로 텐트를 출발한 시각이 새벽 1시 반이었다. 분위기상으로는 마치 비밀작전에 투입되는 전사들 같다. 한 마디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헤드 랜턴과 달빛에 의지하여 전진 또 전진 오로지 앞사람의 뒤만 놓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토해낸다.

얼마 동안이나 힘겹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드디어 눈이 쌓인 설사면(雪斜面)에 도달하였다. 해발고도가 5,850m 지점인 이곳부터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급경사면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전개된다.

등산화는 이중화(二重靴)로 바꿔 신어야 하고 그 밑에는 크램폰이라고 불리는 빙벽등반용 아이젠을 착용하게 되는데 신발의 무게도 무겁거니와 얼음에 박히는 날이 너무 높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 게 그리 만만치 않다.

설사면(雪斜面)을 오르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만 되면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힘은 들었으나 한 발 한 발 전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이어 만나게 된 빙벽과 처음 대면했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다. 우리의 등반길에 이렇게 가파르고 거친 빙벽이 버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데리고 온 가이드로부터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라곤 보이지 않는 빙벽과 악전고투를 벌이는 중에 “이제 더 이상은 죽어도 못 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체념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가 빙벽의 계곡이 끝나고 능선 길에 발을 디딘 시점이었다. 그때가 대략 오전 9시경이었으니 물경 8시간의 긴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상까지는 아직도 30여m를 더 올라야 한다. 다만, 가파른 빙벽이 아니고 완

만한 설사면(雪斜面)으로 이어진 능선길이다. 정상까지 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서 그만 하산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 또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올라가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덕에 6,189m의 정상을 밟을 수 있었다.

마침내 해내고 말았다는 환희의 감동도 없었고 어떠한 감흥이나 느낌도 없었다. 다만, 기나긴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인식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제는 잠시만이라도 주저앉아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갔다고 모든 게 끝난 일이 아니다. 올라갔으니 내려와야 하는데 체력이 바닥나고 온몸의 기력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하산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가물가물해지는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며 하산 길 7시간을 버티고 천신만고 끝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는데 캠프에 먼저 도착해 있던 일행의 말을 빌리면 비몽사몽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고 텐트 속에 쓰러져서는 그야말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날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걸렀던 것은 물론이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를 못하였다. 일행보다 하루를 더 쉬 후 그 다음 날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탈진한 상황이 가져온 결과였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만이 간신히 하산 길 걸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고 만신창이 모습으로나마 출발지였던 루크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행운이

었고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이곳을 출발한 지 꼭 보름만의 일이었다.

우리와 처음부터 동행했던 7마리의 야크 중에서 오직 2마리만이 우리와 함께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었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 체중이 4kg 정도 빠졌고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무려 보름이나 걸렸다. 반나절이면 끝낼 일인데도 만사가 귀찮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대로 옛날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대략 2주 정도가 걸렸고 이때쯤 돼서야 정상등정의 고통이 옅어지는 것 같았다.

분수도 모르고 겁 없이 도전을 했다가 그야말로 혹독한 대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히말라야였다. “중학생 정도의 체력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던 여행사 사장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주저함 없이 도전을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히말라야였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수없이 목격되는 비석들이 이곳이 히말라야임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히말라야였다.

이 글은 공사신문에도 게재하였는데 말미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

“도전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전에 몸을 던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무쪼록 이 글이 ‘죽을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되새겨보고 생도들의 도전의식을 일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몇 년 후 어느 후배가 8,848m 에베레스트를 올랐다는 기사가 실린 공사신문을 받아보고 싶다.”

8,000m급 봉우리는 언감생심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전에 7000m급 봉우리까지는 꼭 올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남미 대륙에서의 최고봉인 아콩카과(6,959m)를 최종 등반지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6,000m 이상 올라가 보고 싶었던 꿈을 이룬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은 안 하기로 작정한 것이 이번 임자체 등반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9기 사관 한 봉 규

건강한 숨쉬기

발달한 과학문명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도 비약적으로 늘어나 기대 수명이 80을 넘게 되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오래만 산다면 그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일 것이다.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단지 목숨만 이어가는 물리적인 삶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육체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올바른 숨쉬기 통한 건강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숨을 쉰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숨을 쉰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예전에 읽었던 선도 수련에 관한 글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가 평생 쉬어야 할 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글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평생 2천만 번의 숨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2천만 번을 50년 동안에 다 쉬면 그 사람의 수명은 50이고 100년 동안 쉰다면 100살 동안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숨을 천천히 쉬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에 대한 비밀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이론 중에는 활성산소에 대한 것이 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불이 잘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듯이 활성산소는 인체세포가 빨리 타도록 한다. 즉

세포의 소멸과 생성 주기가 빨라진다는 건데 낡은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기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일부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포가 무한정 재생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세포의 재생횟수는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호흡을 빨리하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질수록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 몸이 경직되면 기혈(氣血)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호흡을 빨라지게 하고 호흡이 빨라지면 몸이 경직되어 심장의 화(火)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혈이 막히니까 위로 치솟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늦추면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심호흡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호흡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자신의 호흡의 길이를 늘일 수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그 방법들을 알아보자.

〈입으로 숨 내쉬기〉

1. 서거나 앉거나 어떤 자세여도 무방하지만, 처음에는 누워서 하는 것이 좋다. 누운 자세에서 두 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고 두 팔은 45도 아래로 내린다.
2. 눈을 감고 입으로 숨을 내쉰다. 호흡이 거칠게 나온다면 거칠게, 가늘게 나온다면 가늘게 자연스럽게 내쉬는 호흡을 되풀이한다. 들이쉬는 호흡은 짧게 하고 계속해서 내쉰다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요령
3. 반복하다 보면 내쉬는 호흡이 점점 차분하고 가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휘파람을 불듯이 숨을 가능한 한 가늘고 길게 내쉬도록 한다.
4. 가슴에 의식을 집중하고 5분 정도 반복한다.
5.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숨을 들이쉴 때 양손에서 팔을 타고 가슴까지 기운이 들어오고, 내쉴 때 가슴의 탁한 기운이 팔을 타고 양 손바닥을 거쳐

나간다는 상상을 해 보는 것도 좋다. 하다 보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양 손 바닥에서 기운의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가슴에서 막힌 혈이 열린다.

〈지감수련〉

감각을 그치는 수련으로 에너지를 느끼면 뇌파가 안정화되면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진다.

1.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도 좋다.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다.
2. 눈을 감을 상태에서 두 손을 천천히 들어서 합장하듯 가슴 앞에 모은다. 이때 손뺨치기를 100회 정도 한 다음에 동작을 이어서 하면 좋다. 손의 느낌에 의식을 집중한 채 한동안 머무른다.
3.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면 양손 사이를 5cm 정도 천천히 떼어본다.
이때 의식은 양손 사이에 집중한다. 손 사이를 조금씩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두 손 사이의 느낌에 집중한다.
4. 반복하다 보면 손바닥이 저절로 밀치고 끌어당기는 듯한 자력감이 느껴진다. 그 느낌에 의식을 집중하고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느낌이 강해지면 기운을 타고 동작을 더 크게 한다.

〈자고 일어날 때 기지개 켜기〉

1.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3분만 투자해서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아침은 밤새 숙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근육은 여전히 뻣뻣하고 굳은 상태이므로 가볍게 살살 풀어주고 문지르고 두드려주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기분 좋은 생각과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2.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숨을 멈춘 채 단전에 힘을 짝 주면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 단전에서 기운이 사지로 뻗어 나간다. 기지개를 켤 때는 ‘아 시원하다’ 하고 소리를 내고 하면 더 좋다.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상과 같은 동작들을 한다면 호흡이 차분해지고 길어지며, 마음 또한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으로 몸이 아프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피폐해지면 몸도 축나게 마련이다. 적절한 운동으로 몸도 튼튼하게 유지하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라앉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물리적인 장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진정한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짧은 소견이나마 밝혀 보았다.





12기 사관 **김 영 식**
세무사

부동산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보유 재산 중 생전에 자신을 위해 쓰거나 사회에 기여하고 남은 부분은 가족이 상속 방법으로 물려받게 된다. 대략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생전에 미리 일부 재산의 증여 또는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중 일부를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같은 누진세율이지만 재산을 나누어서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재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역시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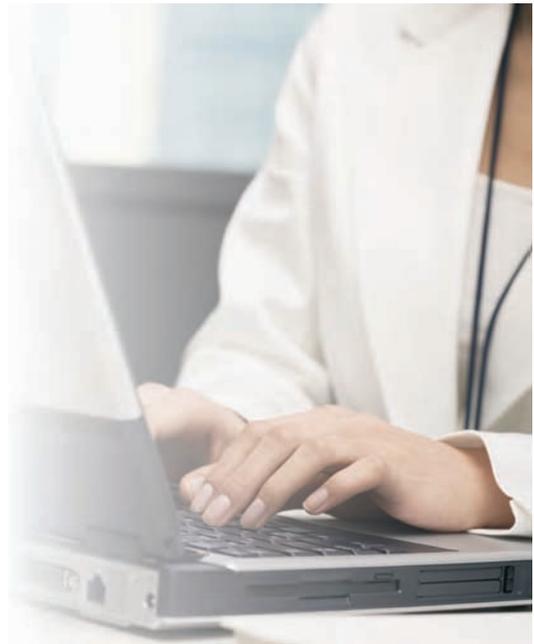
또한, 임대보증금 등 증여 부동산에 딸린 부채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수증인이 부채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그 부채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피상속인의 부채는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상속인들이 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면서 한편으로는 상속받은 금융재산 중 20%는 2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표에서 제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기왕이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당장 조금 더 내더라도 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귀하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증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건강하실 때 하라고 권합니다. 본인이 최근에 진행 중인 상속 준비 건은 피상속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상속받을 분들이 재산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속세가 과다하다고들 하지만 미리부터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사전증여도 잘하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세무상담 연락처 ☎ 사무실 : (02)765-5148, HP : 010-3728-1370



1기 사관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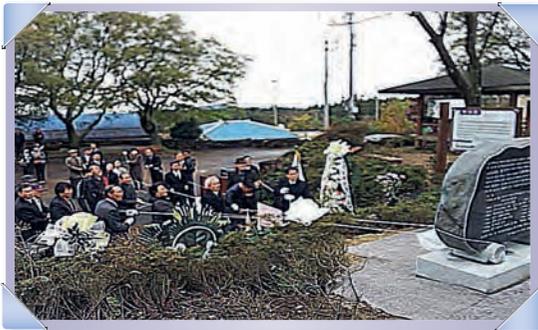


1기 사관의 임관 60주년 기념행사가 2011년 7월 8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1기 23명이 참석하였고, 초청 인사로 생도시절의 교수, 생도대장, 교수부장 및 교직원과 선·후배 참모총장, 공군전우회장과 공사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축하를 드렸다. 1기 사관은 공사로부터 모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의를 받았으나, 후배들 교육에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자체행사를 거행하였다.

공군참모총장은 축하 화환과 개인별 선물을 보내주었고, 공사에서는 1기 사관의 생도시절 각 개인 사진과 생활상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 행사장에서 상영하여 옛 추억을 되살리고 정담을 나누게 하였다. 총동창회장은 모든 후배 동문들을 대신하여 지난 60년 동안 공군과 모교 및 총동창회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선배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표하는 뜻에서 금일봉을 전해 드렸다.

7기 사관 동정



2011년 12월 3일故 공영화 장군님 2주기에 맞추어 '87 장학회 이사장 정성규(14기) 회원과 이사들, 여러 친지 분들을 모시고 제주도 해안 축산마을 진흥태 회장이 제막식에 부하여 고인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는 공 장군님 1주기 추도 예배 시 유족 대표인 공 교수님과 협의하여 마을에서 추모 사

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4월 마을 임시총회에서 온 마을 주민이 정성을 모아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의결된 것이다.

故 공영화 장군님은 '92년 축산 마을에 입주한 이후 마을 진입로 포장, 마을 회관 신축 및 혜화 장학회 설립,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복지 장학회로의 확대 시혜, 공유지에 유실수 식재 사업 등 마을 주민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활동으로 지내오시다가 2009년 12월 4일 병환으로 소천하셨다.

10기 사관 동정

지난 5월 4일 녹음이 풍성한 가운데 10기 사관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부 행사로 성무의식과 공군 블랙이글스팀의 화려한 곡예비행을 관람하고, 2부 행사는 기수별 자체 계획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기념행사 이전 10기 사관은 가족과 함께 2박 3일간 공군전투비행부대와 산업시찰을 함께 하

면서 각별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도 하였다.

10기 동기생회와 김홍래 회장은 감사의 표시로 모교 발전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하며 2천만 원을 공사 발전기금으로 쾌척하였다.



14기 사관 동정

14기 사관은 입교 50주년을 맞아 50년 전의 세월로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에 옛 공군사관학교 터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동기생들이 모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962년 2월 25일 가입교로 시작된 만남과 생도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사회, 집안 걱정, 자식 걱정 접어두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남은 세월 동안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 지난날들을 회상하면서 만남을 즐기자고 다짐하며 14기 사관들만의 만남의 50년을 기념하였다.



17기 사관 동정



지난 3월 27일 17기 사관 봉우회 회원들은 공군전우회 총회에서 김홍래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7기 사관들은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국방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 기생이 하나로 단결하여 공군전우회 대책위 활동에 몰심양면으로 적극 참여하여 18대 국회에서 적용이 어려운 악법인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무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공로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6명이 과천 대공원 등산을 함께하여 전우애를 다지면서 모군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자고 다짐하였다.

21기 사관 동정



21기 사관 여명 산우회 7인은 2011년 11월 1일~17일까지 히말라야 고봉 중 5,000미터 체르고리 정상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통상 일반인이 산소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체르고리 정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량탕계곡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여명 산우회 회원들은 약 1년간 서울 근교산은 물론 설악산까지 다니며 훈련을 거듭한 노력 끝에 마침내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두들 환갑들이 지났으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데 대해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보낸다.

22기 사관 동정

전역 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전북 김제에서 우리나라 환경보존 활동(하천사랑운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김재승 동문이 2011년 11월 22일 SBS에서 주최한 전국 물 환경 대상 사회문화 부문(가시연꽃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1년 물 환경 대상 특집 3인의 에코 리포즈'로 11월 27일 방영되었다.



22기 최병운 동문이 '병법에서 배우는 명장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방대 리더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이 시대 리더십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우리 후대에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병운 동문은 또한 2011년 3월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보통 가문의 위대한 리더 金古木禮傳"을 발간한 바 있다.



46기 사관 동정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16년 만에 조혈 모세포(골수) 기증 약속을 실천해 한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 46기 이명우 소령은 생도 시절이던 '96년 백혈병을 앓다 골수 기증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입양아 출신 미국 공사생도 성덕 바우만 군의 사연을 접한 뒤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조혈모세포협회



에 기증 서명을 했다. 이후 공사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이룬 그는 제1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 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 근무해 왔다. 이 소령은 지난해 11월 협회로부터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영공 방위를 위해 체력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조종사로서 잠시 고민했지만 16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총동창회 알림

- 정기총회
-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현황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 전역자 현황
- 주소 변경
- 각 기생회 임원현황
- 편집후기/기고안내

정 기 총 회

- 제19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19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7일 공군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20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 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무 보고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9,129명
- 현재 인원 : 8,369명
- 예비역 인원 : 3,961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635,247,704	18차년도
19차년도 적립	39,265,386	평생회비 : 15,600,000 이자수입 : 23,665,386
적립 총액	674,513,090	

● 19차년도 운영목표

‘동문 및 공군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총동창회’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
2. 모교와 공군발전의 후원자 역할 강화
3. 대 사회 공헌활동 전개로 총동창회 위상 제고

● 주요 추진 업무 결과

1. 부대 격려 방문

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교육사, 군수사, 북부사, 남부사

나. 일선부대 : 3훈비, 11전비

※ 부대 방문시 총동창회 현황소개 및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친목의 날 행사

가. 등산대회

- 과천대공원('12. 5. 16) : 210명 참석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11. 11. 16) : 60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대국

3. 총동창회 임관기념 행사

가. 장 소 : 공군사관학교('12. 5. 4)

나. 참가인원 : 10기 사관(50주년), 29기 사관(30주년),
40기 사관(20주년), 50기 사관(10주년)과 가족,
총동창회 임원 등 약 1,000여 명

다. 주요행사 : 1부 행사 - 사관학교 계획에 의거

2부 행사 - 각 기수별 자체행사

※ 발전기금 : 기생 및 개인명의 4천5백만원

4. 60기 사관 졸업식 대표보라매상 수여

가. 수상자 : 소위 김영배

나. 공사 추천자 표창

5.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발

- 가. 7기 사관 곽영달
- 나. 17기 사관 이한호
- 다. 17기 사관 이문호

6.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동

- 가. 공사 졸업생(60기) 특강 및 기념품 증정 ('11. 2. 21)
-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 ('11. 9. 7)
-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1. 9. 21)
-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1. 10. 12)
- 마. 현역후배 임원기수 간담회 ('11. 8. 31)
- 바. 기타 간담회 (수시)

7. 조문 활동

-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을 통해 공지
 - SMS 전파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상하 10개 기수)
 - 조기(弔旗)를 통한 조문 (68회)
- 나. 현역 순직자 조문 (2회)
 - 회장단 직접 조문, 유가족 위로 및 조의금 전달

8. 공사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가. 공군사관학교 ('12. 6. 13)
- 나. 주제 : 바람직한 생도 교육을 위한 제언
- 다. 참석 : 19/20차 회장단, 기생회장(21~26기) 등

9. 공군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가. 공군 인트라넷을 활용한 현역과의 소통 확대
- 나.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기금 기부
 - 신규사업 및 성무인 가을축제 행사 예산 (1천만원)
- 다. 올바른 국방개혁 T.F 지원

● 심의의결 안건

- 안건 1. 19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 안건 2. 19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 안건 3. 19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 운영금 현황

●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19기 찬조	7,740	7,74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1~39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700	1,010	
광고비	1,500	2,500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1,720	13,030	

● 회원/특별찬조

(단위 :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서진태 (8기)	100
이선희 (18기)	100	이상배 (19기)	50
이경훈 (30기)	40	김준수 (7기)	30
윤자중 (1기)	20	심인태 (30기)	20
김영환 (1기)	10	정지수 (11기)	10
최규순 (1기)	10	최홍선 (5기)	10
공사 6기생회	10	국군기무사령관 (평생회비 기금적립)	100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는행 |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총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는행 | 1002-885-490929 •예금주 | 이영희(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당연직 임원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2~19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0~40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0차년도 운영기수는 20기로 임원기수는 12기~40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28기 완납

● 19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11.07.01 ~ '12.06.30

기수	현재인원	납부인원	미납인원	납부자명단					
25	124	124	0	강준상, 구천술, 김덕렬, 김상범, 김석인, 김선중, 김영근, 김정완, 김진환, 박권석, 변순철, 서성철, 손웅경, 신권범, 신만수, 심영섭, 심우섭, 이동호, 이성삼, 이성희, 전진웅, 지경호, 차기수, 한영철, 현문준, 홍석두					
26	118	118	0	권영근, 권영한, 김교식, 김병락, 김상희, 김진성, 민병우, 박경명, 박병길, 박영수, 백승일, 신동익, 신성환, 안갑주, 양광석, 윤문학, 이대열, 이병인, 이요섭, 이주웅, 이창수, 이철우, 장영출, 장윤희, 정연학, 주시성, 주호태, 최건수, 최상철, 최수원, 추연진, 홍순만, 홍철진, 황대식					
29	138	77	61						
30	156	71	85	김상기, 김종석, 장조원					
31	164	61	103	조한구					
32	166	82	84						
33	174	45	129	신용인, 최용섭					
34	167	56	111	김 훈, 이재한, 장기주, 최상수					
35	249	23	226	강 훈					
36	263	13	250						
37	255	10	245						
38	237	14	223		39	223	15	208	김순태
40	241	15	226		41	241	6	235	
42	277	27	250		43	271	4	267	
44	218	11	212						
45	220	19	201		46	227	1	226	
47	201	2	119		48	192	105	87	전찬삼
49	200	1	199		50	193	3	190	
51	203	0	203		52	202	1	202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0	186		56	155	1	154	
57	157	0	157		58	134	0	134	
59	137	0	137		60	148	0	148	
합	현재인원 : 8,369		납부인원 : 2,757		미납인원 : 5,612				

기수	납부자명단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박종환,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구, 권성범,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종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현, 김문일,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만우, 이봉세, 이현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박종운,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42	강문중, 금기호, 김성덕, 김익택, 김창진, 김태우,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섭,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조진호
44	김도현, 김상훈,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박정수, 이강희, 이수훈, 이재욱, 이한기, 전용성
45	강영운, 광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규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신범수,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연, 민병역,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호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종,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이수리
50	안성민, 양정환
52	박인철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6	이한준
	51, 54, 55, 57~60기 납부자 없음.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예산획득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지원

● 기금모금 현황

구 분	금액(억)	비 고
기업 및 단체	34	삼성테크윈(주) 등 62개 단체
등 문	20	학교동문 1,549명
학부모/후원자	4	학부모 등 388명
합 계	58	총 1,937명, 62개 단체

● 기금사용 계획('12년)

구 분	금액(억)	비 고
생도 국외 견문확대	2.3	생도 1인 110만원 지원
생도 학술·문화 체육사업	0.5	생도 대외 학술대회 참가 및 대외 경기 출전
교수/훈육요원 학술연구	0.1	교수 학술 세미나 등 교육발전 연구지원
지정기부사업	0.3	풍석군사학기금 등 3개 사업
합 계	3.2	'96 ~ '11 사용 총액(24억)

※ 기금원금은 영구 보존되며, 이자수입(4.0~7.7%)만으로 운영

●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 (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 학교본부 및 박물관 기부자 사진 및 명부유지, 고액출연자 감사패 증정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현황

기금총액 : 58억원

● 1억원 이상

(주)삼성테크윈(10억1천)	(주)삼양화학공업(5억3천1백)	(주)대우중공업(5억)
(주)대우중공업(5억)	이종학(공사3,2억6천2백)	(주)부영(2억)
최동환(공사27,1억5천)	보잉코리아(1억2천6백)	장지량(9대공참총장,1억5백)

● 1천만원 이상

강민수(공사9)	곽현성(공군가족)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대중(역대대통령)	김도열(공사1)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용철(공군가족)	김재식(공군가족)	김진호(공사27)	김홍래(공사10)	공사발전추원회
공사총동창회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다음카페 공.학.모	(주)바이텍정보통신
박영민(사후53)	박원석(사후2)	박진숙(공사5)	(주)블루니어	서정욱(사후37)
서진태(공사8)	소망교회	승진기술(주)	양창근(공군가족)	온성철(공사4)
원불교충북교구	(주)원일인터내셔널	유상신(공사8)	윤대봉(공사8)	이성재(공사25)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임용환(공군가족)	정제훈(공군가족)	최성열(공사15)
최용철(공군가족)	(주)한국로스트악스	한광희(공사9)	홍재학(공사4)	해인사(대한불교조계종)
공사2기생회	공사3기생회	공사4기생회	공사5기생회	공사6기생회
공사7기생회	공사8기생회	공사9기생회	공사10기생회	공사17기생회
공사18기생회	공사26기생회	공사30기생회	공사35기생회	공사36기생회
공사37기생회	공사40기생회	공사51기생회	공사52기생회	공사53기생회
공사54기생회	공사55기생회	공사56기생회	공사57기생회	공사58기생회
공사59기생회				

● 5백만원 이상

강흥조(초정노인병원이사장)	경주전장	공영화(공사7)	김규태(공군가족)	김대욱(공사15)
김락은(공군가족)	김문숙(군무원)	김선근(공군가족)	김인기(공사3)	김재환(란스튜디오)
박찬욱(공군가족)	안창명(공군가족)	이광학(공사11)	최춘홍(독지가)	공사1기생회
공사14기생회	공사15기생회	공사16기생회	공사20기생회	공사21기생회
공사22기생회	공사23기생회	공사24기생회	공사25기생회	공사27기생회
공사29기생회	공사31기생회	공사32기생회	공사33기생회	공사34기생회
공사39기생회	공사41기생회	공사42기생회	공사43기생회	공사44기생회
공사45기생회	공사46기생회	공사47기생회	공사49기생회	공사50기생회

1백만원 이상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수준(공사22)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2사관총동문회	공군발전협회	공군전우회청주지회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회(공사18)	군사과학원	권혁달(공사9)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경복(공사3)	김경중(공사12)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광은(군교수)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김남돈(독지가)
김도식(공사8)	김두만(사후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양수(공사13)	김연호(공사34)	김영본(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은기(공사22)	김을식(공군가족)	김이곤(사후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근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현(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주식(공사15)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 현(공사14)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석(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농협물류센터지점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주)루시컨설팅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환(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자(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성국(공사16)	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선(공사14)	박준범(공사49)
박창권(공사27)	박춘택(공사12)	배기준(공사12)	배양일(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동기(공사16)	비씨카드	사후77기동기회	서동열(공사4)
서명교(공사46)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설현주(공사41)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군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신평근(공사18)
심성용(공사46)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병철(공사13)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안택순(공사14)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엄상영(공사24)	연양희(공사21)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필환(공사23)	외환카드	유병구(공사19)	유병희(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흥(공사21)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자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현(공사13)	이기호(공사41)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호(공사17)	이봉운(공사24)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오(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역수(공사14)	이영준(공사18)	이영하(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은(공군가족)	이정윤(공사45)	이정일(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식(공사11)	이태윤(공군가족)	이한호(공사17)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일진중전기㈜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상훈(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임호순(공사24)	장덕수(공사13)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세현(공사33)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승혜(교수)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귀균(공군가족)	정성규(공사14)	정중구(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정희두(공사45)	조규식(공사17)	조미행(공군가족)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찬(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사후59)	조환기(공사31)
주창성(공사16)	주님의교회	차옥환(공사17)	차종권(공사20)	차흥준(공군가족)
채관석(공사31)	천기광(공사18)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범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인(공군가족)	최부용(공사35)	최상곤(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용환(공사15)	최정봉(참사랑병원이사장)
최정숙(공군가족)	최호준(공사22)	하만윤(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용(공사21)
학부모친목회	한봉철(공군가족)	(주)한드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원동(공사24)	212대대비행교수회
공사13기생회	공사19기생회	공사28기생회	공사38기생회	공사44기순직자
공사48기생회	공사60기생회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1.07.31	준장	김명호	조종	28	'11.08.31	중위	김현용	무기정비	58	
	준장	박병구	조종	28	'11.09.01	중령	노청래	시설	33	
	준장	박재구	조종	28	'11.09.30	대령	김명현	조종	28	
	준장	정재부	조종	28		대령	조대호	시설	30	
	대령	권영창	보급수송	30		중령	김길수	조종	31	
	대령	고영대	정보통신	31		대령	박동진	무기정비	31	
	대령	권태호	항공통제	31		대령	윤용인	무기정비	31	
	대령	최대영	무기정비	31		중령	이종선	교육	32	
	중령	권승택	조종	38		대령	서관석	조종	35	
	대위	추삼호	보급수송	49		대령	송철웅	조종	35	
'11.08.31	대령	구명수	교육	27		대령	김원수	조종	36	
	대령	한경표	정보통신	27		대령	김종관	조종	36	
	대령	한태희	조종	27	중령	이정룡	조종	37		
	대령	황명균	기상	31	중령	이창렬	조종	37		
	중령	김충원	시설	32	중령	이철성	조종	37		
	중령	남기진	조종	38	소령	장희철	방공포병	40		
	중령	유수중	조종	38	'11.10.31	대령	백흥중	정보	27	
	중령	이석중	조종	38		대령	이광주	인사행정	27	
	중령	김시윤	조종	40		대령	한상오	조종	33	
	'11.08.31	중령	김창철	조종	40	'11.11.30	중장	오창환	조종	25
중령		김한주	조종	40	대령		권계원	조종	27	
중령		박도현	조종	40	대령		박정규	정보통신	31	
중령		박성완	조종	40	중령		김준수	조종	37	
중령		손영찬	조종	40	중령		이현발	조종	37	
중령		심영택	조종	40	소령		김희구	시설	38	
중령		안성찬	조종	40	대위		이주호	조종	49	
중령		채정욱	조종	40	'11.12.01		중위	김완규	정보	57
소령		배상우	조종	42	'11.12.31		대령	박철규	보급수송	28
대위		권영란	정훈	49			대령	선기훈	인사행정	28
대위	이승재	무기정비	49	대령		이상천	조종	28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1.12.31	대령	유태일	조종	28	'11.12.31	대령	이병근	인사행정	31	
	대령	이경찬	무기정비	28		대령	이제환	조종	31	
	대령	이대원	방공포병	28		중령	이종근	헌병	31	
	대령	이만근	무기정비	28		대령	이현주	보급수송	31	
	대령	이상욱	조종	28		대령	임완재	조종	31	
	대령	이재필	조종	28		대령	정승진	무기정비	31	
	대령	이주석	정보	28		대령	채관석	교육	31	
	대령	장대홍	무기정비	28		대령	최영준	무기정비	31	
	대령	지윤규	조종	28		중령	허기주	보급수송	31	
	대령	하태직	조종	28		대령	추상채	관리	33	
	대령	홍성표	조종	28		대령	이인석	정보통신	34	
	대령	김동환	무기정비	29		소령	이태영	무기정비	36	
	준장	조평현	무기정비	29		중령	김선진	교육	37	
	준장	최정근	시설	29		소령	홍용희	교육	37	
	준장	박종완	조종	30		중령	김동렬	조종	38	
	소장	이광수	조종	30		소령	양천호	교육	40	
	준장	조영봉	무기정비	30		대위	김석훈	조종	54	
	대령	고종봉	정보	31		'12.01.31	소장	이상길	조종	26
	대령	고형규	항공통제	31			소장	장윤화	조종	26
	중령	김기중	정보통신	31			대령	김병철	무기정비	28
	중령	김명곤	항공통제	31			대령	김영석	조종	28
	대령	김용복	보급수송	31			대령	음종민	정보	28
	중령	류전수	정보	31			대령	홍순협	조종	28
	중령	반석태	운항관제	31			대령	박갑용	정보통신	31
	중령	박봉수	헌병	31			대령	유보형	조종	31
	대령	박양기	정보통신	31			대령	고정우	무기정비	35
	대령	배상욱	보급수송	31			중령	김일기	조종	36
	대령	성덕용	조종	31			소령	권재성	방공포병	37
대령	송병근	정보	31	중령	김영우		조종	37		
대령	이남형	인사행정	31	중령	황원기		조종	37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2.01.31	중령	전지훈	조종	39	'12.02.29	소령	임준묵	조종	45
	소령	정의상	조종	44		소령	임형호	조종	45
	대위	박준범	조종	49		소령	전경석	조종	45
'12.02.29	중령	김중명	정보통신	31		소령	정권택	조종	45
	대령	박해룡	항공통제	31		소령	정순영	조종	45
	대령	권창률	정보통신	32		소령	정연오	조종	45
	대령	방장규	조종	32		소령	정인철	조종	45
	대령	김동수	무기정비	33		소령	조현수	조종	45
	소령	강노현	무기정비	40		소령	최동철	조종	45
	중령	도익환	보급수송	40		소령	최성윤	조종	45
	소령	류형년	교육	44		소령	황성연	조종	45
	소령	유병화	조종	44		소령	황의용	조종	45
	소령	고영균	조종	45		대위	최형근	조종	50
	소령	곽형식	조종	45		대위	강수정	무기정비	55
	소령	김범수	조종	45		대위	김승환	기상	55
	소령	김종욱	조종	45		대위	박승환	운항관제	55
	소령	라대영	조종	45		대위	박한성	정보통신	55
	소령	박도준	조종	45		대위	성경민	방공포병	55
	소령	배영환	조종	45		대위	신동혁	조종	55
	소령	서치룡	조종	45		대위	오민진	인사행정	55
소령	소승호	조종	45	대위	오인택	항공통제	55		
소령	송석호	조종	45	대위	이장용	방공포병	55		
소령	윤우진	조종	45	대위	정규용	무기정비	55		
소령	윤한신	조종	45	대위	정민호	인사행정	55		
소령	윤형순	조종	45	대위	정요한	교육	55		
소령	이경영	조종	45	대위	최준호	관리	55		
소령	이성훈	조종	45	'12.03.31	대령	이완	조종	29	
소령	이정근	조종	45		대령	정덕용	무기정비	29	
소령	이효원	조종	45		대령	이동규	인사행정	31	
소령	임성규	조종	45		중령	임현구	무기정비	31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2.03.31	중령	최광영	조종	34	'12.05.31	소령	이중호	관리	46
	중령	김인석	의무행정	37		소령	안관현	정보통신	49
	대령	김호동	조종	37		대위	임은혜	보급수송	55
	중령	전용억	조종	39	'12.06.30	대령	박동창	조종	32
	소령	이성수	조종	49		중령	서경한	보급수송	32
	대위	박정열	방공포병	55		중령	심부수	시설	32
	대위	손명욱	인사행정	55		중령	이재웅	조종	32
	대위	정우석	무기정비	55		대령	조준로	조종	32
	대위	정홍기	정보통신	55		중령	신항균	무기정비	33
'12.04.18	대장	박종현	조종	24		중령	심동섭	조종	33
	대령	김성곤	교육	28		대령	최용섭	조종	33
'12.04.30	대령	김광수	관리	29		중령	김윤섭	조종	35
	대령	이규연	정보통신	29		중령	김윤희	조종	37
	대령	박대홍	조종	32	중령	최영석	조종	37	
	대령	박지업	기상	32	중령	한경건	조종	37	
	대령	박천신	항공통제	32	중령	김영권	조종	38	
	대령	최우열	무기정비	32	중령	박종호	조종	38	
	중령	곽영래	정보통신	33	중령	이계삼	조종	38	
	대위	장진철	시설	50	중령	전민호	조종	38	
	'12.05.31	대령	구용우	정보	29	중령	정재석	조종	38
		대령	박진화	조종	29	중령	김영기	조종	39
준장		양철환	조종	29	중령	최세웅	조종	39	
대령		박창일	무기정비	31	중령	박주철	조종	40	
소령		김도봉	인사행정	38	중령	김의택	조종	42	
소령		이태희	항공통제	38	소령	조철환	조종	45	

주소 변경

(’11년 7월 ~ ’12년 6월)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	김동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0 한솔마을 구(아) 107-1103	463-914	031-715-0662
2	이유명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9-44호 동원빌라 3층	153-030	02-803-2153
2	이종선	서울 구로구 온수동 155 온수힐스테이트(아) 116-1003	152-791	02-806-7399
3	정규혁	경기 광명시 하안동 296 주공6단지 602-1007	423-755	02-898-0742
5	박증식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3 동산(아) 6-503	459-718	070-8969-4262
5	황교찬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이텐하우스6단지 613-103	152-130	02-686-1983
9	이재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 224-305	463-773	031-715-6864
9	정원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5-6 에버빌 401호	446-573	031-702-7744
10	김한용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아) 1-506	137-799	02-533-9941
10	백승웅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73 판교원마을 1018-302	463-410	02-582-5820
10	이영우	서울 강동구 성내동 397-1 양지빌딩 502호	134-030	02-782-0451
10	이은봉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상도3차(아) 327-208	156-732	02-2637-5653
15	김덕훈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6길 6	130-827	02-966-8520
15	안위공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아이파크 213-1001	446-567	031-890-4722
15	최용찬	경기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31, 삼성마을5단지 504-1401	435-020	031-397-2821
16	박경웅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호미로 330 106-1202	260-190	010-4068-3839
16	권남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삼성 관음(아) 102-302	157-040	02-3662-7941
16	김중환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중앙하이츠(아) 204-1504	363-785	043-293-5507
16	임정빈	경기 의왕시 내손1동 774 반도보라빌리지 206-1004	437-767	031-346-1325
17	이창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금호어울림(Dk) 101-1101	150-090	051-507-5207
17	최주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아이파크 105-204	446-708	070-7778-3150
18	윤봉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부센트레빌(아) 607-704	448-150	031-892-7703
19	김덕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144 흥덕마을 경남아너스빌 1303-1502	446-993	031-272-7894
19	김우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540-4 201호	426-171	031-499-8266
19	김영철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47-13 써니아트(빌) 401호	137-807	02-372-0858
19	김현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67 삼성5차(아) 519-501	448-785	031-272-3557
19	변상균	서울 관악구 청림동 1001 관악현대(아) 103-1003	151-755	02-886-5461
19	송병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898-10	420-845	010-3933-1108
19	엄영성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6 장성마을 204-201	411-707	031-917-6738
19	유근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리센츠(아) 210-701	138-911	02-2675-1053
19	유태형	서울 중구 필동3가 62-16	100-273	02-2276-0861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9	윤영원	경기 의오아시 내손1동 774 반도보라빌리지 205-1702	437-767	031-342-4876
19	이계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 1-42	150-894	02-2667-0994
19	이계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64 가경e편한세상(아) 504-702	361-869	043-213-5123
19	이인형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동일하이빌 2차 210-1104	446-705	031-275-6431
19	주진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589* 임광그대가(아) 307-401	445-737	031-239-7707
20	이정호	대전 중구 유천동 10 현대(아) 109-103	301-757	042-841-5766
21	권이현	대전 유성구 상대동 3블럭 한라비발디(아)301-702	305-313	042-483-5697
21	배창식	경북 영주시 휴천3동 419 현대대영(아) 105-401	750-762	070-7596-7691
21	안봉열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림(아) 107-405	156-761	02-816-2272
21	이근재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62 현대(아) 3-404	135-857	02-576-8597
21	홍종백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신동아(아) 407-1401	156-771	02-534-5749
21	황일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44 장재마을 휴먼시아 1108-1602	336-857	010-4706-7188
22	김은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58 자이1차(아) 101-1101	448-140	031-893-4959
22	백계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26 LG빌리지3차 313-401	448-531	010-5673-5201
22	최길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 LG개포자이(아) 101-902	135-543	070-4045-6225
23	이기주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25-3 해돋이주택 1-403	579-803	010-3111-7150
24	김수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 608-606	134-782	02-481-9802
24	김재철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5 무학(아)103-1002	157-862	02-2658-6149
24	표상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20, 213-1404 (이목동,수원장안힐스테이트)	440-310	031-256-1683
25	김상진	충남 계룡시 서금암3길 5 금암동 쉼리움 1028호	321-900	010-6231-3131
25	변순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아) 2-304	120-765	010-3738-4373
25	서상철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스트팰리스 1304-1104	448-913	031-272-2171
25	손종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6-6 301호	135-010	02-516-7087
25	하왕규	경기 용인시 성북동 버들치마을 경남아너스빌 204-902	448-739	070-8711-6256
26	최지수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남원주 두산위브(아) 109-1302	220-980	033-901-4435
28	이재원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3 아주(아) 102-906	406-806	032-433-6303
30	고영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44 대림한숲(아) 102-202	430-702	031-341-8854
30	김정수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24-10 동문굿모닝탑 1-701	158-077	02-2653-6898
34	심재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9단지 907-2002호	410-794	010-6298-8791
40	서철모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0 SK View3차 302-401	412-220	02-935-6169

각 기생회 임원현황

(’12년 0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최규순		21기	김영곤	정삼연	41기	허강철	설선주
2기	박지용	채영현	22기	민형기	정갑순	42기	이종서	이동현
3기	소명옥		23기	정대주	장창연	43기	김상진	이종훈
4기	박병순		24기	오연근	김수원	44기	류형년	홍창현
5기	정봉수	성보경	25기	류홍규	박기호	45기	이강훈	김도형
6기	이윤우		26기	변정돈	정진기	46기	서정민	
7기	전상환	정구석	27기	박경중	장경찬	47기	이영진	문성훈
8기	장정호	송재선	28기	김영민	김명현	48기	고종진	원기탁
9기	강민수	천왕봉	29기	김홍온	김용환	49기	이정영	
10기	김홍래	김태석	30기	정경두	박성준	50기	정병식	손다혜
11기	김광현	김달수	31기	임동훈	김용덕	51기	김계한	이현석
12기	신동윤	배양일	32기	이건완	안상훈	52기	윤민록	조효희
13기	이준순	최종덕	33기	전용성	조상용	53기	최주영	우승지
14기	민신웅	신재철	34기	김종범	편완주	54기	조원기	권선영
15기	김평람	이호재	35기	진광수	박찬규	55기	이재환	강수정
16기	권명남	양길수	36기	오형식	윤성모	56기	조해광	정신기
17기	고영섭	김익창	37기	이상철	김현정	57기	정인식	이준범
18기	이영준	강재필	38기	현인하	김완룡	58기	박전규	최나라
19기	김영철	김두환	39기	임정구	김재권	59기	차규식	백승우
20기	장성문	최병철	40기	김태욱	김종원	60기	이상우	구상협

편집후기



이번 호는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시선을 모으고 내용 면에서는 무엇을 담아 회원 모두에게 '읽고 싶은 동창회지' 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星武' 표제도 한글 '성무'로 바꿔보고, 디자인에도 변화를 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성무'지를 통하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공사총동창회의 소식을 전하고 회원간에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막상 편집을 끝내 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부득이 일부 회원님의 옥고를 수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기고자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공사총동창회를 아끼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집에 수고하신 김현진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친절과 성의를 다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편집, 발간해주신 국군인쇄창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인

기고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 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2호 성무지 원고는 2013. 3. 2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12. 7. 1.

발행인 : 유병구

편집인 : 정하섭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공로 자랑해서 공으로 날기



**한국항공소년단은 대한민국 공군,
항공우주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함께 합니다.**

■ 단원모집기간 : 연중수시

■ 입단방법 : 홈페이지 가입 www.yfk.or.kr

■ 문의 : (02) 953-7543

♣ 후원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0-996245

※ 기부된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국제노선으로 더 넓은 세계를!

빅뱅과 함께 더욱 다양해진 제주항공의 하늘을 즐기세요!



제주항공 국제 8개 도시 글로벌 취항

•인천발 :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칭다오, 홍콩, 방콕, 마닐라, 호찌민 •김포발 : 오사카, 나고야 •부산발 : 홍콩, 방콕 •제주발 : 오사카

JEJU AIR 

예약: www.jejuair.net 1599-1500



F-35.

한반도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

F-35
LIGHTNING II

설계 단계부터 진정한 스텔스 성능과 고도의 기술을 구현하도록 제작된 F-35는 대한민국 공군에 혁신적인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F-35는 차세대 항공전자장비와 외형 디자인, 오차 범위가 모발 직경의 절반 이하인 정교한 생산 공정의 통합을 통해 절대 우위의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진정한 스텔스 성능과 효율적인 비용. F-35 라이트닝 II는 한국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THE F-35 LIGHTNING II TEAM

NORTHROP GRUMMAN BAE SYSTEMS PRATT & WHITNEY

LOCKHEED MARTIN



튼튼한 파트너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보잉은 한국치공구(주) 박영욱 사장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치공구(주)는 보잉
항공기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보잉은
그 전문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BOEING**